

旌 斯 閣 (第 9 號)



橫城文化院

表紙說明

【於斯買】

1. 高句麗時代의 橫城의 古을 이름을 於斯買라 稱함
2. 統一新羅時代에는 橫川으로 改稱
3. 朝鮮朝 太宗14年(1414)에 橫城으로 다시 改稱 現在에 이르렀음

【泰豐樓】

1. 朝鮮正祖22年(1798)에 橫城縣監 鄭來昇이 國泰民安과 時和年豊을 祈願하며 設立
2. 1952年 6.25動亂中 老朽로 붕괴
3. 1992. 9. 17 韓錫龍 道知事의 支援 및 橫城 郡民의 뜻을 모아 復原竣工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횡성군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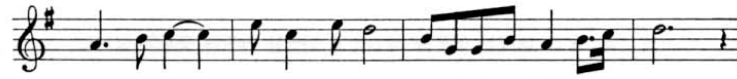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뻗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횡 성 - 교 빛 거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뻗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께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횡 성

斯 羅 志

(第9號)

橫城文化院

脈(맥)

황성문화원장 윤재택

절벽 바위틈
이끼
흔이 흩어져
어느 여름날
우뢰와 함께
바위를 흔들고
값아 먹는다
맥 맥이 돌기에—

들관 깨어진 흙
떡잎을 밟고
새 순이 솟는다
어느 폭풍우 치던 날
땅을 조개
부리는 소스라 친다
맥 맥이 돌기에—

산 언덕 매운 눈보라
노송은 녹슬은 껍질
참고 견딤은 푸르름으로
꽃꽂한 기상
눈보라 치던 석양
견디다 못해 일은 침이 되었네
맥 맥이 돌기에—

하루살이(부어) 알이
깨지는 벼락 소리
황소 뿔 흔들어도
노래 하노라
맥 맥이 돌기에-

태를 자르는 소리
구겨진 허파
퍼지는 고통
그러취는 피 묻은 손
심장은 심이 없네
맥 맥이 돌기에-

이끼는 이끼 대로
풀은 풀 대로
나무는 나무 대로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대로
사람은 사람 대로
맥의 숨소리
맥 맥이 돌기에-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차 례

序 詩

맥 (脈).....尹載宅

發刊辭

횡성문화원장尹載宅/11

祝 辭

횡성군수柳在珪/12

횡성군의회의장李日寧/14

特 輯

고 이연승 문학의 특성임교순/15

泰豐樓를 바라보며김승기/18

詩

현충일 (顯忠日).....곽영기/24

산 (山).....곽영기/25

어답산 유정 (御踏山有情)곽영기/26

도심의 밤곽영기/27

바위와 숲곽영기/28

| | |
|-----------------|--------|
| 지나가는 비 | 김성기/29 |
| 밤 비 | 김성기/30 |
| 나의 일상적인 것 | 강정식/32 |
| 한라산 억새꽃 | 강정식/33 |
| 쓰레기 | 임희경/34 |
| 결 실 | 양경애/36 |

한 시

| | |
|--------------|--------|
| 韓中修交 | 金台鎭/38 |
| 登寒溪嶺 | 金基元/39 |
| 方晞文民治世 | 金基元/40 |
| 公明選舉 | 宋寅錫/41 |

특 집

| | |
|--------------------------|--------|
| 고향예찬 | 이일영/42 |
| 농경문화의 유지보전을 | 허석구/44 |
| 선열의 얼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자 | 정호일/47 |
| 젊은날의 추억 | 최정희/52 |
| 횡성 며느리 | 박수자/54 |

향토사 순례

| | |
|--------------------|--------|
| 반구선생의 반구정 | 이병덕/57 |
| 홍석규와 매일리 충혼탑 | 박순업/64 |
| 석불유감 | 박순업/66 |

수 필

| | |
|----------------------|--------|
| "사람의 냄새"가 그림구나 | 조상현/68 |
| 간폐이(덩이)가 분 사람들 | 권용환/72 |
| 무덤앞에서 | 최성침/82 |
| 꿈 | 홍성원/84 |
| 꿈 | 백영아/86 |
| 해외동포 | 박명순/88 |
| 꿈 | 이정재/90 |
| 친정어머니께 | 김용순/92 |

동 화

| | |
|--------------|--------|
| 사랑 도깨비 | 김양수/94 |
|--------------|--------|

소 설

| | |
|-----------|---------|
| 화(火)..... | 정재영/102 |
|-----------|---------|

학생문예

| | |
|---------------|---------|
| 우리 소 | 심현기/122 |
| 우리 소 | 이은경/124 |
| 우리소 소니 | 최정민/126 |
| 나의 보금자리 | 정은선/128 |
| 품앗이 | 오영숙/131 |
| 나의 꿈 | 박은진/134 |

| | |
|--------------|---------|
| 일기장 | 김성범/135 |
| 일기장 | 김현미/136 |
| 그리운 통일 | 최화성/137 |
| 밤 길 | 윤신영/138 |
| 밤 길 | 최정화/140 |
| 꿈 | 장지혜/142 |
| 일요일 오후 | 안선희/143 |
| 임원명부 | /144 |
| 회원명부 | /145 |
| 문화원행사 | /149 |
| 편집후기 | /151 |



[1992. 2. 18 제1회 횡성군민 연날리기 대회]



[1992. 8. 22 문화단체 향토사 강좌 및 친목아유회]
한석룡 강원도지사 참석



[1992. 9. 17 태풍루 복원경축 한마당 큰잔치]



[1992. 10. 20 문화의날기념 문화동호인 모임에 각 기관장도 참석]



[1992. 9. 26 항토사료집 제11호 발행 축하케익 절단]
편집자(문화원 부원장 권용환右) 문화원장(윤재택)과 함께



[1992. 9. 2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시연]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점말 옹기 굽기"



[1992. 9. 17 태풍루 복원 준공 테-프 절단]



[1992. 11. 7 제1회 태풍예술제 국민학교생 사물놀이]

發 刊 辭



橫城文化院長 尹 載 宅

希望찬 癸酉年의 나래를 펴는 새해 元旦에 郷土 文藝誌 於斯買 9號를 發刊하여 우리 文化 生活의 메마른 곳들을 한 구석이라도 恣恣히 적시고자 文化 同好人의 두터운 愛郷詞를 담아 봅니다. 옛말에 故郷 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는 말이 있습니다. 現代社會에서 이 古事가 退色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고 이 於斯買를 通하여 새롭게 다져지기를 渴求해 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내 고장이 따뜻하고 우리 故郷의 땅 냄새가 우리 몸 속 깊이 스며들어 故郷을 떠났어도 그 내음이 變치않고 언제나 愛郷心을 돋우어 줌은 人心 좋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世紀로 向한 歷史의 큰 潮流속에서 疎忽하고 잊혀졌던 우리 固有 文化의 發掘과 우리의 것을 우리가 保存해야함은 모두의 共通된 義務라고 생각하며 이 於斯買에 심은 郷友愛로 내 고장 文化를 더욱 所重하게 간직 발전하기를 우리 함께 다짐하게 됩니다.

좋은 글을 精誠껏 寄稿하여주신 여러분과, 編輯을 爲하여 수고하신 編輯委員께 深深的 感謝를 드립니다.

來日을 爲하여 버루에 먹을 적시면서 새해에 모-든 分의 幸運을 祈願합니다.

祝 辭



橫城郡守 柳 在 珪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이제는 조용히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이 때에 우리 군의 유일한 향토지 “어사매”가 아홉번째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여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군정을 무사히 이끌어 나감은 물론 지역내의 사회, 문화 발전에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각종 도로망확충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활발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그중 무엇보다도 고등교육기관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 대학을 유치코자 하는 노력이 어느정도 구체화, 가시화 되었다는 것은 군민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지방화의 물결속에서 지방자치의 서툰 걸음마를 시작한지 두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군재정 자립도가 미약하고 또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의식이 미숙한 터라 지방화가 그 올바른 자리매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방화가 구체화, 명백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군 문화예술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향상에 뒤따르는 성숙한 군민의식의 배양, 그리고 정신적 풍요와 충만함의 욕구충족은 문화원을 중심으로한 우리 군의 자생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화단체의 보다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다시한번 “어사매” 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는 이 작은 책 한권이 보다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알차게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祝 辭



橫城郡議會議長 李 日 寧

꿈과 보람의 壬申년도 아쉬움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於斯買 9號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熱意와 精誠으로 郡內 唯一한 鄉土文藝誌인 於斯買를 發展시켜온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삼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祖上의 얼과 鄉土文化의 傳承發展 및 情緒涵養에 寄與하며, 郡民들의 愛鄉心 鼓吹는 물론 自矜心 向上에도 많은 業績과 보람을 쌓아 왔습니다.

오늘날 高度로 發達된 物質文明과 함께 郡民의 삶의 質을 높이기 爲하여는 情緒涵養을 위한 精神文化의 發達이 무엇보다 要求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때 날로 發展되어 가는 於斯買의 發刊은 우리 郡民의 밝은 등불이 되고 있어 내심 慰安이 되고 關係者 여러분에게 恒常 고마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제 於斯買 9號를 發刊하게 됨은 文民時代를 맞아 무엇보다도 郡民의 和合과 團結이 要求되는 때 時宜適切하고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文藝誌 “於斯買”가 온 郡民의 愛鄉心を 더욱 북돋아 郡民의 슬기와 力量을 集結하여 鄉土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郡民의 幸福한 삶을 創造하는 促進劑가 되기를 所望하오며, 밝고 希望찬 癸酉年 새해에는 온 郡民의 榮光과 幸福이 充滿하시고, 많은 郡民의 參與와 사랑속에 鄉土文化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다시한번 於斯買 9號의 發刊을 祝賀합니다.

고 이연승 文學의 特性

— 해의 주인, 해의 文學 —



문협원주지부장 삼창국민학교 교감 임 교 순

이연승이 살아 생전에 文學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내가 그의 一周忌를 지나면서 살아 있는 가장 첫번째 일이 그의 文學을 재조명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文壇 데뷔는 후배이지만 저승길에는 선배가 되어버린 그가 나를 믿고 그의 유작들에 대한 정리를 맡겼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作品을 중심으로 나의 소견을 적어볼 생각이다.

이연승의 첫번째 동시집 「해를 파는 가게」에서 그가 대표작으로 내세울 만한 동시 「해를 파는 가게」가 책의 표제로 쓰여졌다.

원, 세상에 판다 판다 해도 해를 팔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연승이 이 작품의 첫번째 제목은 「거울가게」였다. 거울 속에 해를 끌어드렸다. 해는 우주의 근원이다. 우주를 가난한 거울가게에 끌어드려 누구에게나 필요한 해를 사가게 하겠다는 환한 생명부여의 넉넉한 해학이 숨어있다.

“날마다/하늘을 파랗게 닦아 놓고/해를 팝니다.

날마다 하늘을 평화롭게 닦아 놓고 그 속에 해를 담아 파는 주인 그가 이연승이 자신이 였다. 푸른하늘은 평화의 상징이며 빛나는 해는 생명의 근원이다. 한 개 뿐인 해를 얼마든지 많은 갯수로 늘일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 한편 현실에 대한 해학적인 꼬집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나 팔고 사기를 좋아하는 생활의 문제도 이 작품에서는 시사하고 있다.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가 하늘나라에서 해를 파는 가게 주인이 되었는가 싶을 만큼 그의 작품을 그의 모든 것이 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두번째 동시집 「햇살이 사는 동네」, 여기서도 그는 해를 좋아했다. “햇살이/사는/동네에는/모두, 모두 모여 듭니다./가랑잎이/길 가다/쉬었

다 가고/또래 또래다 이들이/모여서 놀고/추워 떨던 찬 마음이/녹아 내리고/햇살이 사는 동네는/따뜻합니다. /

가장 쉬운 시어로 가장 평범한 사실을 시로 승화 시킨데는 그의 성격적인 표현이 너무나도 생생하다. 햇살,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여 살려는 본성이 있다. 가랑잎이 길을 간다는데서 인생의 석양길 가는 나 그네의 인상을 주며, 그 가랑잎이 쉬었다가 가는 위안의 터전을 제시 하였고, 추워서 떨던 찬 마음이 녹아 내리는 햇살 동네, 찬 마음을 녹게 해 주려는 이연승의 작의가 결국 햇살 같이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의 마음은 늘 해였다. 모든 것에게 따뜻함을 주려든 그가 자기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혈소판이 부족해서 나누어준 따뜻한 피를 갈구 했던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기억을 하면, 그의 마음속 따뜻한 해를 이 작품 속에 다 쏟아 부었는가 싶다.

「설날 아침Ⅲ」이란 작품에서도

동쪽 하늘에/해님이 떠오르면/참새떼의 목소리가/햇살과 함께/온 세상에 퍼지는 아침/집집마다 창문 열고/목은 먼지 날려 보내면/황금빛 햇살이 방안에 들어 와/축복의 춤을 춘다/모두다 일어나/빛살을 입에 물고/손잡고 손목잡고/마주 보면서/올해도 올해에는……/약속하는 이 아침/

여기서도 햇살이 집집의 창문으로 들어 온다고 했다.

해를 좋아 했고, 해를 마음에 품고 살다 간(해의 시인) 이 연승이라 할만 큼 그의 詩的 소재도 독특 했다. 그것은 다음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해는 어디서 뜨나」

산 속에 아이는/해는 산 속에서 떠서/산 속으로 진다/바닷가 아이는/해는 바다에서 떠서/바다로 진다/도시 아이는/해는 빌딩 위에서 떠서 빌딩 틈으로 진다고/서로서로 우기다가/헤어집니다. /

자기 처지마다 우주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자기의 주장이 다르지만 해가 지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모든이에게 공평한 해의 위대함과 자기처지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살려주려는 이 연승의 마음을 여겨서도 알 수가 있다.

「봄노래」

들판을/밝히던 햇님이/청자빛 하늘에다/빛살을 뿌리면/종달새 모여와/잔디밭에서/새 봄을 캐어물고/하늘을 난다/톡/톡/톡/새싹들의 눈트는 소리에/시냇물이 입을 열고 노래 배우면/산/산/산들이/물결에/매달려 춤을 춘다/

해 때문에 생명이 트고,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을 부여하는 작의가 역역하다.

「감나무」

해님에게/쫓겨난/빛살들/감나무에 앉아/또 하나의/해를 만든다/한 개 한 개/온 나무로/변저가는 불덩이/입/입/입마다/웃음이 터지고/감/감/감 소리가/마을 짝 찬다/

여기서도 햇빛을 해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해를 또 만들려고 한 作詩의 실험적 태도가 엿보인다. 해에서 빛살이 내려와 감에서 다시 해로 변하는 것이나 그 감이 다 생명을 부여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고, 그것이 마을에 짝차게 함으로 감과 가을과 풍요를 확 느끼게 하는 작법상의 시도가, 이연승의 문학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연승의 文學的인 자세는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 해의 문학, 해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환하다.

■ 고 이연승연보

- 1938년 7월 11일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삼배리에서 출생
- 1957년 3월 21일 춘천사범학교 졸업
- 1957년 3월 31일 횡성군 가곡국민학교 교사로 부임
- 1958년 12월 17일 군에 입대
- 1959년 12월 18일 제대 후 복직
- 1975년 월간문학 제15회 신인상 동시 「방앗간」이 당선되어 문단 데뷔
- 1980년 8월 21일 동시집 「해를 파는 가게」출판
8월 28일 횡성 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
- 1981년 국민학교 교감 시험 합격
- 1981년 국민포장 받음
- 1982년 3월 1일 횡성 창봉국민학교 교감으로 승진
- 1982년 동남아 5개국 교육시찰(일본, 자유중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 1983년 1월 12일 제2회 강원아동문학상 수상
- 1985년 3월 1일 영월군 교육청 장학사로 부임
- 1985년 6월 25일 제2동시집 「햇살이 사는 동네」출판
- 1986년 5월 7일 제18회 한청동아동문학상 수상(동시: 고갯길, 회한한 세상)
- 1988년 3월 1일 횡성군 장학사로 전임
- 1991년 2월 1일 제9대 강원도 아동문학회장으로 피선, 취임.
- 1991년 7월 1일 원주 횡성간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원주기독 병원에서 가료 중
- 1991년 8월 11일 오후 4시 30분 영민, 유족으로 부인 정순옥 여사와 슬하에 봉희, 경희, 병희, 순희, 병진 2남 3녀가 있음.

泰豊樓를 바라보며

橫城郡廳 內務課 金 承 基

“태풍루(泰豊樓)”를 소재로 써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필자에게는 태풍루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고, 또 향토문화나 유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본지도 꽤 오래 되어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무엇이건간 기고해 달라는 제청이 있고하여 태풍루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써 보고자 한다.

먼저 밝혀두지만 필자는 문화재나 향토사에 관한 깊이가 그리 깊지않은 처지이고 보니 편견이나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I. 태풍루에 깃든 소망

필자가 3.1공원에 오를 수 있었던 나이에는 이미 태풍루는 흔적이 없었고, 그것이 태풍루의 것인지 아니면 동헌의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원이고 군청뜰이고 있었던 주춧돌 몇개의 기억과 구 문화원자리에 있었던 “태풍극장”이란 것이 고작이어서 그것들을 피 맞추어 짐작함이 태풍루를 회상할 수 있는 전부이다.

어쨌거나 올해 이 고을주민의 표상이고, 상징이라던 태풍루가 오랜 숙원 끝에 옛모습 그대로 복원되고, 성대한 준공식을 가진 것은 그동안 등한시 해온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판도 격에 걸맞는 어른께서 써 주셨으니 금상첨화라 하겠으나 다만 문화재 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래 현판사진도 있을 터이니 그대로 묘사하여 별도로 전시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러면 필자가 그쪽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고 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던 때의 기억과 본인이 참여했던 “橫城郡誌(횡성군지)”등을 근거로 태풍루가 뜻하는 의미와 복원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태풍루의 복원과정, 공정, 규모, 양식, 예산등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필자로서는 논하지 않고자 한다.

군민에게 잊혀졌던 태풍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십수년전 향토문화제를 태동시키면서 그 명칭을 명명할 때 지역원로와 유림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으로 그 이후 태풍문화제(泰豐文化祭)가 연륜을 더하면서 “태풍제례(泰豐祭禮)”가 생기고 태풍로(泰豐路)가 생겨나더니 태풍루 복원이 거론되고 마침내 3.1공원의 전망 좋은 자리에 옛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태풍루는 원래 조선 정조(正祖) 32년인 서기1798년 당시 이 고을의 정래승(鄭來昇)현감에 의하여 동헌 뒷편이었던 현 3.1공원에 건립되어 150여년간 군민의 사랑을 받다가 한국전쟁중이던 1952년 봄 쇠락하여 붕괴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풍루가 의미하는 바는 “태풍(泰豐)”이란 단어의 클태 “泰”자는 국태민안을 뜻하고 풍년 “豐”자는 시화연풍을 뜻한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부국강영과 국민의 화평함을 염원한 것이라 하겠으며, 전형적인 농촌으로 주산업이던 농업의 풍년을 기원하고 있으니 산업발전을 염원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자는 당시 유교 문화권에서 관과 선비를 중시한 사고였다면, 후자는 농경에 종사한 백성들을 중시한 사고의 발로로 남너노소 貧富貴賤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군민의 기원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침언한다면 극히 주술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누각을 세우면서 “민막(民瘼 : 흉년, 괴질, 재난, 악정등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든 민폐)을 없애고자 하는 “고민막”으로 의미도 컸다고 하니, 봉건사회에서 보기 힘든 민본행정의 표본이라고나 할까 백성을 어여뻐 여긴점 역시 숭고한 태풍루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이 누각은 조선말기와 구한말을 지나 격동의 근대사 초입에까지 유림들의 학문탐구의 도장으로, 위정자의 선정의 요람으로, 또한 백성의 휴식처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향사와 함께, 군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해왔으며, 더우기 3.1운동 당시에는 이곳에 매복해 있던 일본경찰들이 군청을 향하여 몰려드는 만세대열에 대하여 무차별 난사하여 학살을 가한 민족비극의 현장이란 아픈 역사를 목도해야만 했다.

이상이 필자가 알고 밝힐 수 있는 태풍루의 실체에 대한 견해의 전부이다.

II. 태풍제에 관해서

태풍루를 복원하면서 그곳에 기왕이면 태풍제향을 올릴 수 있는 제단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에 필자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제향의 명칭이 태풍제이고 보면, 태풍루에서 제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껏 그곳에서 제례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접해본적이 없으며 누제(樓祭)에 대하여 들어본 바도 없고, 더욱이 문화제의 복원은 가능한한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전에 없었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바람직 하지 못하며 꼭 제단을 쌓아야 한다면, 더 많은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고증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부언해서 해마다 태풍제의 장소를 놓고 왈가 왈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정녕 군민의 소중한 염원을 기구하는 제전이라면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군민의 또 하나 정신적인 지주이며 문헌상 예부터 기우제등 천제가 치루어 졌다는 태기산(泰岐山)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횡성의 주산으로 명기된 마산(馬山 : 필자의 견해로는 국사봉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측하나 좀 더 고찰이 필요함)의 명당자리를 터잡아 제단을 쌓고 정갈하게 산신제로 지내는 방법이 논의 될 만하다.

또 위의 문헌이 전하고 있는 옛 사묘(祠廟)터 중에서 학계의 의견을 들어 적당한 곳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군내의 사묘터로는 사직단(社稷壇)을 비롯한 성황사(城隍祠), 여단(勵壇)등이 있었으며, 사직단은 관·민이 국태민안, 사직의 안녕, 추수에 대한 감사등 현감이 주가되며 관과 민이 합동으로 천신에게 제사하던 장소이고 보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위치와 원형을 고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것 역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같은 논지에 대하여 일부 종교계에서 시대착

오적인 발상이며, 미신숭배라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종교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삶의 뿌리이며, 원천이었던 토속적이고 민중적인 문화의 한 편린이며, 생활의 양식으로써 복원하고 또 가꾸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Ⅲ. 앞으로의 과제

이제까지 논한 의견이 유형적인 문화유산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무형적인 문화유산, 특히 이 고장을 가꾸고 지켜온 인물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군지편찬 작업을 하면서 향토인물사를 정리한 바 있고, 또 당시에 무연고분묘로 방치되었던 강림의병총(講林義兵塚) 성역화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관과 문화원등에서 최양옥선생묘소, 김순이여사 묘역정화, 금대리의병총정화등 꾸준히 노력하여,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이름없는 필부로서 나라를 지키다가 스러져간 이들에 대하여 이제나마 그 넋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것은 백번 잘한일이며 이로써 향토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런 묘역정화나 성역화사업은 관이나 특정단체가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고인의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고증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주민들이 이 고장의 인물로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킨 후에 주민의 뜻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까지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앞서 열거한 분들의 공적을 비하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다만, 어느분, 어느유적을 먼저 정화하고 성역화해야 하는가의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의 최지사는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이며, 김여사 또한 여자의 몸으로 3.1만세 운동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이 고장의 인물이며, 틀림없는 순국열사이다.

그러나 최지사께서는 그래도 해방 후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았고, 그 공로로 공직에 근무하면서, 30여년 이상 편한 여생을 보낸바 있어 그분의 공적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

으며, 그 공로로 정부의 서훈을 받은 바 있고 또 수년전 그의 죽음에 정부 관계부처에서 공식으로 애도한 바 있다.

또한 김순이(황소아줌마)여사는 황성의 3.1운동거사가 가능하도록 만세운동 모의장소를 마련해 주고 만세운동을 독려했던 유공자이면서도 후사가 없어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있던 것을 이장 성역화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독립운동가 한분은 당시 군내의 명문 부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학업에 전념하라는 부모의 간곡한 당부를 뿌리치고 풍전동화와 같은 나라를 구하고자 혼연히 일어나 의병장으로 눈부신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제의 강력한 의병토벌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 할 수 없게 되자 만주로 망명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독립군 참모로 활약하다가 해방직전 같은 동포인 공산주의자의 저격으로 이국땅에서 한맺힌 생을 마감한 것으로 각종 독립운동사가 전한다.

필자가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그분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이국에서 순국함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유해마저 환국하지 못해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아무런 직, 간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② 군내에서는 꽤 알려진 부호였었다고 하나 그로 인하여 그의 문중이 몰락하고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가문의 재산이 그후 단한평도 그의 후손에 되돌아가지 않았고 십여년전까지도 그의 부인이 반실성한 절인이 되어 다닐 정도로 가문의 몰락과 후손마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몇년전 작고한 지역 유명인사의 증언에 의함).

③ 그의 의병활동이 무성해지자 일본군은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가족을 몰사시키겠다는 협박과 관계의 등용등 회유하려 하였지만 그날로 황성경찰서를 습격할 정도로 자신과 가족의安危를 돌보지 않은 투철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④ 국내의 모든 의병이 일제의 무자비한 토벌로 폐산 소멸할 때 굴하지

않고 만주로 망명하여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이당시 사상분열의 혼란기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으며 끝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 이국에서 순국한 점.

⑤ 끝으로 그분에 대한 공적이 뚜렷함에도 그분을 기리거나 기념할 만한 아무것도 이 고장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한말 의병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병장의 한사람이며, 가장 확실한 횡성인이라는 점 등이다.

물론 필자는 위의 인물과 혈연, 지연등 아무런 연관도 없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몇가지 점을 들어 위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어느 유적의 복원이나 새로운 향토인물의 발굴에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이런 훌륭한 분을 배출한 마을이나 읍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분을 배출한 문중으로부터 논의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문화원이나 학계, 그리고 관으로, 더 나아가 전군민이 동참하는 군민운동으로 승화할 때 진정한 향토사의 재조명이며 고장의 자람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태풍루처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흉상이나 기념비일지라도 모든 지역민의 정성을 모아 이 고장의 명소나 그가 태어난 생가터 부근이나 마을어귀 아니면 도로변 공원등에 세워져 이제나마 독립된 나라, 발전하는 나라, 융성하는 민족의 참모습을 지켜보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에게 환한 빛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태풍루로 시작된 글이 엉뚱한 방향에서 글을 맺게 되어 유감이라 하겠으나 이일 또한 태풍루 복원 못지않는 정신문화의 복원이라는 값진 일이라 생각하고 이해있길 바란다.

현 충 일

박 영 기

동재기 나루 건너
장미빛 오월은 가고
산마음 물마음이
숲이 잠든 국립묘지에
구명 난
가슴을 떨며
길게 우는 나팔소리

유월 한이 서린 구름
먹빛으로 떠도는 길에
오늘은
천동번개로
목을 놓아 울어 주고
충혼의 저 무덤들 위에
무지개를 걸어 주오.

박영기/○ 출 생 지 :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89번지

○ 생년월일 : 1939. 10. 20

○ 경 력 : 시조문학 천료

제1시조집 개나리

제2시조집 대관령

제3시조집 세월을 삼킨 노래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강원시조문학회원

북원문학회원

돌기와문학회원

해안문학회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근무(서기관)

산

곽 영 기

산은 비우려 할 때
가장 화려한 산이 된다

봄의 꽃이 아름답고
여름 잎이 시원하며
가을 열매 풍성하지만

한 해를 떨쳐 버리려는 순간에
가장 그 찬란한 빛을 발한다
그리고 하얗게 지워버린 산은
아주 정갈하고 지순한 산이 되어

비로소
신의 걸작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詩

어답산 유정 (御踏山 有情)

곽 영 기

만감의 격랑을 안고
어답산에 오른다

나무들은 색동옷에 모여 서서 손 흔들며
꿀물은 응얼거리며 눈부시게 달려오고
산새들은 노래 불러 늦은 귀향 위로 하는데
바위들 일어서서 옛날 얘기 일러 준다

초라한
오늘의 내 행색을
모르는 척 반겨 준다.



도심의 밤



곽 영 기

빌딩숲 사이로
하늘이 낮게 깔리면서
어둠을 내리 쏜다
결 고루 내리 쏜다
진중일
경련 하던 도시
서서히 누그러진다.

뒤엉켜 불꽃 뿜던
차들도 사람들도
어둠의 이불 속에
가워 늘린 꿈을 꾀다
상처 난
삶의 꺾이기들이 여기 저기 잠꼬대 한다.

바위와 솔

곽 영 기

개벽을
거부한 바위의
그 무거운 침묵을 비집고
솔 한 그루
뿌리 내려
질긴 명의 삶을 툰다
양극의
그 둘은 하나로 되어
이제 사진발을 감수한다.



지나가는 비

김 성 기

바랜 구름자락 찢어진 새로
 가슴팍 다 드러낸 채
 청보리 췌던
 퇴약벌을
 눈두렁에 얹혀 윤기 잃어가는
 개구리알처럼
 저주하며 날귀 세우던
 松皮의 하얀 속살

섬뜩섬뜩 잘리는
 헛배 부른 작두질에
 부황으로 끼니 때우다
 봉두난발 손각시로 떠난 日月
 상처 입은 짐승의 영기로 남아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며
 바짓가랑이 잘 못 낀 채
 미쳐 돌아나는 하늘
 미쳐 해매는 낫
 헤픈 흐름
 한 입에 씹으며
 마른침을 뱉고 있다.



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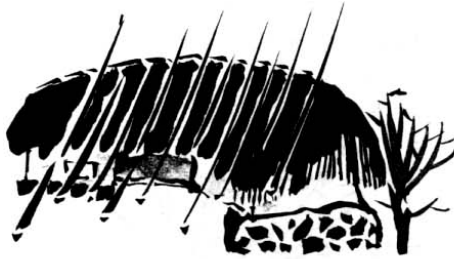
김성기

밤 새워 밤비가
아름다움을 훔치는
아가씨의 손수건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둔밤
누구도 없는 어둔 밤에
목마르게 늘어진 신작로를 더듬어
여름을 한방울 한방울
실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월을 울음 울다가
취해 쓰러진 창 밖
욕심 없는 거지의 손바닥에
그나마 남아 있던 여름을 모두어
이 저녁 밤새워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공허를
 매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밤비는
 아름다움을 훔치는
 아가씨의 손수건으로
 텅 빈 밤의 별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金 聲 起

· 1946. 8. 6 횡성읍 가담리에서 태어나 춘천교육대학졸업 197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아동문학평론지 동시 추천 완료. 한국아동문학인 협회, 강원아동문학회, 복원 문학회 회원이며 현재 원주시 장양국민학교 근무

나의 일상적인 것



강 정 식

잠에서 깨어나면
하루가 시작 되는데
그 시각 부터가
사람마다 다르구나

여러분야의 일자리에서
신나게 일을 한다든가
혹은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 한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나는 어느쪽인지
나도 모르면서
여태껏 살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내봐야 알겠지만
짐작컨데
지금보다 더 나으리라는
빛나는 예감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낸다.

한라산 억새꽃

강 정 식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느다란 줄기는
크게 몸서리 치고
안개 구름이
산 중턱을 감쌀 때
빨갭게 피어나는
이고장 전설

해녀의 혼이 묻은
마른 풀잎이
가볍게 춤추면
지나간 세월이
억새 꽃으로 핀다.



강 정 식

-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어영골 271번지서 출생
- 월간 "한국시"와 "농민문학" 신인작품당선으로 등단
- 전국금용인 문학상 수상.
- 홍천문인협회 시분과위원 및 "해가람"시 낭송회원
- 현재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근무
- 홍천읍 회방5리 126-4 전화 434-2378

쓰레기

임 회 경

내 어린 시절
쓰레기통 없던 그때,
타는 것은 아궁이에
과일 껍데기 토끼장에
음식 찌꺼기 뜨물통에
깨진병은 돌담 위에
우리 어머니
쓰레기 없이 살림도 참! 잘하셨지!
다 떨어진 양말 두 켤레
금방 새 양말 한 켤레
어머니 손은 요술손이셨네.

내 (내가) 어머니된 지금 우리집 쓰레기통 모두 일곱개
아침마다 쓰레기 태산 일세
내 탓 인가!
시대 탓 인가!
내 탓 인가!
시대 탓 인가!

덜컹덜컹 쿵!
새벽마다 대문 앞에서 나는 소리
청소부 아저씨 쓰레기 치우시는 소리.
그 때마다 난 가슴 조이며, 얼굴 붉히네.
내아이 이 다음에 커 우리 어머니 손은 쓰레기 만드는 손
어렸네.
하면 난 어찌나?
아궁이 없어 그랬다 할까?
토끼 돌담 없어 그랬다 할까?
아니면, 이 시대에 태어나 그랬다 할까?
아 난 내 어머니 반 만이라도 담고 싶네!
쓰레기 없이 살림 잘 하시던 그 시절 내어머니!

(92강원 여성백일장 시부 차상)

결 실

양 경 애

하나 둘……
떨어지는 잎새들은
채색된 아름다움을 토해내고
맑은 하늘에
결실의 열매들은
등근 웃음으로 달려 있다.

하나 둘……
떨어지는 낙엽들은
혼자일 수 밖에 없는 작은 서러움으로
분신과 향기는
모두 바람에게 주었건만
알곡으로 채워져
사람의 손을 기다린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슬퍼했지만
풍만함을 어루만지며
가슴이 몽클한
소망을 여는 결실의 기쁨이여라.
언약도 없었건만

다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 많은 아픔들을 걸려서
겉질의 싹어짐으로
황토색 흙이 되어 제 몫을 다한다.
갔다가는 다시와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결실의 계절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기전에
성숙한 여인이 되어
황금 물결 출렁이는 들판에 서서
빈 가슴을 채워주리라

(92 여성백일장 군대회 장원)

韓中修交



金台鎭

卜日修交兩地香
各從儀禮自生光
同推發展仁心合
共進繁榮勝事昌
一結千秋眞友國
相通萬里卽吾鄉
堂堂大誼惟深厚
有信其情永不忘

韓中修交

卜日하여 修交하니 兩國이 香氣롭고,
各各 儀禮를 좃으니 스스로 빛나네,
함께 推進하여 發展하니 仁心이 和合하고,
繁榮을 共進하니 勝事가 昌盛하리,
한번 맺으면 千秋에 참된 友國이요,
萬里를 相通하니 곧 나의 故鄉이네,
堂堂한 大誼는 오직 깊고 두터우니,
朋友有信의 그 情分은 永遠히 잊지 못하리.

登寒溪嶺



金基元

574

846

連杖登峰適晚秋
 寒溪嶺頂戴天浮
 巉巖怪怪千相露
 清澗潺潺萬壑流
 五色丹楓如畫展
 六旬白髮似仙遊
 石火人生豈不憂

寒溪嶺에 올라서

323

連杖하고 登峰하니 마침 晩秋인데,
 寒溪嶺의 頂上은 하늘을 이고 떠 오르네.
 巉巖은 怪怪하여 千相을 드러내고,
 清澗은 潺潺히 萬壑을 흐르네.
 五色의 丹楓은 그림같이 펼쳐지는데,
 六旬의 白髮들은 神仙같이 노니누나.
 山河가 開闢한 後로 星歲는 얼마이고,
 石火人生을 어찌 가엽게 여기지 않으리.

方晞文民治世

金 基 元

軍閥專橫幾十年
 回思恨憤不忘憐
 幸鳴勝鼓追民瘼
 始闢文治燦國權
 億兆蒼生終選傑
 萬乘統領恰如天
 大韓善政至於此
 明教常途永世傳

바야흐로 文民治世가 밝아오다

軍閥의 專橫이 몇 十年인고,
 恨스럽고 憤함을 回思하니 連情을 잊지 못하겠네.
 多幸이도 勝戰鼓를 울리고 民瘼을 追放하니,
 비로소 文德의 政治는 열리어 國權이 빛나도다.
 億兆蒼生들이 마침내 莫傑을 選拔하니,
 萬乘의 大統領은 마치 하느님과도 같도다.
 大韓民國의 善政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常途를 밝게 가르쳐 永世에 傳하리라.

가시리니
연정

- 金基元 / ○ 橫城邑 介田里에서 出生
 ○ 弘益大 法科卒業
 ○ 陸軍中領豫編
 ○ 韓國漢詩協會會員

김기원

公明選舉



宋寅錫

公明選舉誓蒼天
國運興亡在此前
窮智共期先進日
擇仁應享太平年
金錢失勢經綸密
酒食無功政策全
與野同心成大事
備邊猶勝甲兵堅

公明選舉

公明選舉를 蒼天에 盟誓하니,
國運의 興亡이 이 앞에 있도다.
智慧를 窮究하여 함께 先進의 날을 期約하고,
仁者를 選擇하니 應當히 太平年代를 누리리라.
金錢이 時勢를 잃었으니 經綸이 精密하고,
酒食은 功勞가 없으니 政策이 完全하네.
與野가 마음을 和合하여 大事를 成功하면,
邊境을 防備함에 있어 오리려 甲兵의 軍械보다 나으리라.

故 鄉 禮 讚



橫城郡議會議長 李 日 寧

泰岐산 뻗은줄기 德高山에 精氣모여 향토를 守護하고 蟾江의 맑은 옥수
悠悠히 東西로 감싸돌아 굽이치는 곳

산과 들엔 奇花瑤草 널려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며,
푸르른 松林에는 白鷺가 孤高한 姿態를 뽐내며 나래를 펴는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 내고향 이라고 !

일찍이 交通이 發達하여 文物이 豊足하였으며, 祖上들의 進取的인 氣像
과 愛國表情은 이고장을 愛國의 고장으로 지키고 가꾸어 왔으며, 우리 後
孫의 自矜心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祖上の 발자취와 얼이 곳곳에 깃든 이곳에서 태어나 꿈
과 希望을 키우고 자라왔습니다.

農事철에는 두레를 하고, 名節에는 함께 모여 飲食을 나누며, 좋은 일이
나 곳은 일이나 내일같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협동하고 相扶相助하며 삶을
가꾸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삶의 情趣와 哀歡을 깊이 간직한 故鄉땅 !

언제 어느곳에 살더라도 내 故鄉은 하나,

내 故鄉은 橫城이로세 !

祖上の 발자취와 얼이 깃든 故鄉에 대한 愛情은 우리 祖上과 父母兄弟에
對한 道理이며, 責任이고 義務일진대 우리의 뿌리이며 永遠한 安息處인 우
리의 故鄉을 다같이 가꾸어 봅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잘자라며 꽃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입
니다.

故郷의 發展은 우리의 마음을 餘裕롭게 살찌우는 마음의 糧食이며 幸福
한 삶을 創出하는 힘의 源泉입니다.

愛郷心이 充滿한 同郷 橫城인 여러분!

우리 다같이 力量을 한테모아 우리의 故郷 橫城을 더욱 살기 좋고 豐饒로
운 곳으로 가꾸어 봅시다.



농경문화의 유지보전을



재경횡성군민회장 허 석 구

횡성문화원으로부터 향토문화지 어사매(於斯賈)의 원고청탁을 받고 문득 새삼스럽게 고향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다.

생각만해도 가슴설레이게 하는 사랑의 원류이기도 하고 그리움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고향의 추억처럼 아름답고 그리운것은 없다고 하는것 같다.

어머니 품속 같이 따뜻한곳, 어머니 냄새처럼 흠냄새 풍겨오는 어머니의 땅, 고향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렇게 박혀 진한 향수로 남아있게 된다.

모천회귀(母川回歸)란 말이있다. 연어의 강한 회귀본능을 두고 한말이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연어는 거친 대양에서 일생을 보내고 번식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찾아와 그 모래바닥에 알을 낳고 죽는다.

어디 연어 뿐이겠는가 수구초심(首邱初心)이라하여 여우는 죽을때 자기가 살던 고향(굴)을 향하고, 남쪽에서 온 새는 월조소남지(越鳥巢南枝)라 하여 나무에 앉더라도 남향한 가지만 올라 앉는다고 했다.

하루중에는 황혼의 아름다움이 있고 계절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황혼의 아름다움과 풍요의 가을 같은 나이가 있다.

이제 그 나이로 옮겨가면서 고향이 더더욱 그리워지고 있는 것은 연어처럼 우리에게도 고향 회귀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도시생활의 분주함으로 마음의 여유조차없는 생활에서 지쳐 외롭고 고독할 때 살며시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년의 내고향이다.

못자리에 파릇파릇 새싹이 트면 일년 농사가 시작됨을 알았고, 골목길 담벼락에 꽃호박이 열릴때면 성하의 여름이 왔음을 느꼈으며, 언덕반이 텃밭에 알밤이 떨어지면 가을이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긴긴 겨울밤을 맞이하곤 했었다.

누군가 우리 인간을 땅각의 동물이라 했다지만 우리가 유독 못잇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일 것이다.

필자가 재경 황성인의 모임인 향우회 회장일을 맡아 본지도 어언 몇년이 되었다.

재경군민회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이니 만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이지만 고향애기를 주고 받으며 회향병을 달래는 유일한 모임 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의 뜨거운 고향 사랑은 재경 회원들의 모임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쉬워 고향 황성의 발전을 위해서 향토문화행사의 지원 등 내고장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재경 황성인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포근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향의 연결고리로서 재경황성 소식지를 창간하고 제5호까지 만들어 연락이 닿는 황성인에게는 정성을 들여 보내기도 했다.

비록 면수와 부수에서는 초라할지 몰라도 우리 재경 황성인에게는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소중한 지면으로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우리의 고향, 우리의 농촌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와 함께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과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온 농촌구조 역시 새로운 고도산업사회에 알맞도록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면에서는 고향의 정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데 따라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농어촌의 구조역시 현대산업구조에 맞게 새로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적으로 겪어온 것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촌의 전통문화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전통문화라고 해서 뭐 그리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면서 남겨 놓은 삶의 흔적이며 향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어느 월간잡지에서는 최근 우리의 농촌에 사랑방이 없어졌다고 했다. 사랑방은 우리 조상들이 집안일이나 마을일을 도모하고 논의하던 장소로서 때로는 명절에 율놀이등의 전통민속놀이를 하던 곳이다.

이제 그 사랑방 구실을 농촌 구석구석에 생긴 다방이 대신하고 있고 한국 사람 두사람만 모이면 판이 벌어진다는 고스톱이 모든 민속놀이를 몽땅 잡아먹어 버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람 냄새가 나는 농촌문화가 상업화된 도시 소비문화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맑은 시냇물에 고기가 뛰어놀고 소박하고도 끈끈한 인정이 숨쉬는 곳. 우리 스스로 미래의 땅이라고 자처했던 횡성도 이제 많이 변화되어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또 농업과 공업이 접목된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농외소득원이 개발되는 등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거대한 변천 속에 몰라보게 탈바꿈하여 그 시절의 추억은 이제 마음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부업으로 일할 농공단지가 많이 생겼다는것은 농외소득증대란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농사보다 농공단지 취업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물론 우리 농민들도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현대생활에 편리하게 구조조정을 해야겠지만 일과 놀이가 남은 아름다운 농촌문화나 한국적인 농촌분위기가 유지되는 선에서 모든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농촌은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도시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리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도 흔들림없는 농촌으로 발전 될 것이다.

횡성이 고향이고 한평생을 농업과 더불어 살아온 필자는 우리의 고향만큼은 아직도 우리의 농촌문화가 살아있어 훈훈한 인심이 있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고향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先烈的 열 (선비精神) 을 더욱 계승 발전 시키자 橫城은 愛國의 고장이다



정 호 일

1. 愛國의 고장의 歷史의배경

우리 橫城은 自古로 옛 先祖들께서 나라를 위하여는 忠節을 신조로 삼아 身命을 아끼지 않았으며 社會와 家庭을 위하여는 孝를 바탕으로한 道德性을 함양하여 왔으며 自己스스로는 不義와는 타협하지도 굴하지도 아니하고 탐욕을 버리고 分數를 지켜왔으므로 民心은 순박하면서도 自主性이 강하며 의세에 항거하는 기백이 강하였기에 先烈들의 國난극복을 위한 항쟁사는 高麗朝의 거란족 여진족 합단족 왜적등의 侵入擊退 朝鮮朝時代에는 오랜세월동안 여러차례의 전란사와 더불어 近世에는 의병항쟁 三一運動史등을 고찰하여 볼때 他地方에 比하여 월등하고도 빛나는 歷史를 가진 고장이라 하겠다. 西紀 1987년 郡民의 이름으로 (당시 군수 韓尚澈) 우리 橫城을 愛國의 고장이라 명명하였으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歷史를 지닌 우리 郡民이라 하겠다. 이러한 훌륭한 歷史를 창조하여 주신 先烈들에게 우선 감사하며 그 歷史를 교훈삼아 더욱 계승발전시킴이 우리 郡民의 責務이기도하다 고로 그 열 (정신)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이 오늘을 사는 우리 郡民의 精神的인 支柱를 삼는 근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意義에서 나는 그 열이 선비精神이라 表現하고자 한다.

2. 선비精神이란

孟子는 말하기를 맑고 곧고 참 된 것이라 하였으며 四君子 梅 蘭 菊 竹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필자나름대로의 견해를 표현한다면 國難克服을 위하여

는 충절을 바탕으로 목숨을 바쳐 앉장서며 社會나 家庭을 위하여는 孝를 바탕으로 道德을 함양하였으며 個人生活에서는 正道와 奉仕를 신조로 삼아 不義와는 타협하지도 굴하지도 아니하며 권세나 욕망에 눈을 뜨거나 肉體的 安樂위에 오염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아는 강인한 실천력을 가진 정신이라 하겠다.

이러한 얼(정신)은 바로 자연스럽게 민족혼을 형성하였고 古속에 허다한 빛나는 歷史를 창조한바 이에 그 본보기로 몇가지를 소개코자 한다.

3. 선비정신의 例示

1. 저 유명한 嶺南선비 남명조식(南冥曹植) 先生은 西紀 1555년경 明宗이 승하하고 宣祖가 즉위하니 나이 15세라 모후가 섭정하는 조정에서 丹城현감(지금의 山淸)으로 任命하니 曹植先生은 부임하지 않고 사직상소와 함께 王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당시 제도에도 不拘하고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國事의 그릇됨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나라가 이지경이고 보면 자전(大妃)은 밖의 소식이 막힌 깊은 궁궐안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宣祖)는 나이 어린 선왕의 한 외로운 자식(孤子)일 뿐입니다라고 國政刷新案을 상소하였다. 王과 大妃는 크게 노하였고 조정의 重臣”들은 크게 놀랐으며 士林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그러나 少壯관리와 成均館 유생들의 펴내는 正論에는 조정도 어찌 할 수 없어 화를 면하였다 한다.
2. 西紀 1460년대 世祖朝때 高官을 지냈으며 漢學者였던 李石亨先生은 집에 연못을 파고 亭子를 지어 계일정(戒溢亭)이라 이름하니 이는 水位로 分數를 가르친 계일정신 바로 선비 精神이라 하겠다. 연못에 水口를 돌로 막고 물이 넘치면 빼고 물이 적으면 물을 가두어 항상 물은 마르지 않고 넘치지도 않게 함은 부귀와 영화가 항상 넘치지 않고 재물이나 먹고사는데 넘쳐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子孫이나 주위 人士에게 가르치니 우리 先祖들의 精神生活을 엿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3. 우리 橫城이 낳은 日帝 항쟁의 선봉이요 獨立鬪士였던 崔養玉先生은 어릴때부터 獨立心이 강한 분으로 學業을 中退하고 橫城三一운동의 막후 활동을 하였으며 國內外에 숨어다니면서 독립단체군자금모금에 至大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西紀 1929년 서울 春川間을 來往하는 우편 물수송차습격과 현금탈취事件의 主人公이기도 하다. 前後 수차례의 옥고生活을 겪으면서 옥중에서 解放을 맞아 光明을 되찾고 餘生을 橫城에서 보내신 志士이시다(자세한 事蹟은 甲川面 추동리 公의 墓碑文에 詳細히 기술 되어 있기에 소개한다).

위의 열거한 例示의 內容을 吟味하여 볼때

첫째, 南冥曹植先生은 나라와 民族을 위한 일이라면 身命을 돌보지 않고 朝廷(王, 大妃)를 두렵다 않고 簾政을 쇠신하려는 愛國衷情

둘째, 李石亭先生은 德을 바탕으로 한 탐욕을 버리고 分數를 지키어 그릇됨이 없도록 子孫이나 社會에 敎訓을 남긴 清白精神

셋째, 崔養玉선생은 亡國의 恨을 독립으로 풀어보겠다는 一念으로 少年 시절부터 누구의 가르침도 받은바 없이 스스로 學業을 中退하고 구국활동에 一生을 바친 그의 愛國精神, 그 모두가 民族魂인 선비精神에 귀착되는 바 본받아야 할 髣髴스러운 열(선비정신)이라 하겠다.

4. 우리가 가져야 할 의지

우리 橫城이 이런 자랑스러운 愛國의 고장으로 自處함은 이 時代에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先烈들의 身命을 돌보지 않은 愛國表情의 선비精神으로 이루어진 歷史인 만큼 우리는 한갓 傳受者로 자랑만이 能事가 아니라 이 精神을 더욱 계승발전시키는데 意志와 努力이 있어야 하겠고 그 成果도 가늠함이 先烈에 報答하는 後孫의 道理이라 생각한다. 이는 當然한 歷史的 使命이고 責任이기도 하다.

5. 오늘의 國內外的 情勢

지금 우리나라는 世界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가고 있으며 당

장 外侵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당한 先進國이 되기에는 더욱 우리의 努力이 要請되는 마당에 弱肉強食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先進諸國의 經濟(貿易) 戰爭은 날이 갈수록 極烈하여지기만하니 自然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한 難局克服에 經濟的으로 外交的으로 科學的으로 武力전쟁 以上の 國民의 지혜와 노력이 要請되는 바이고 國內的으로는 民族의 至上과제이고 堯舜인 南北統一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와는 반비례하여 150萬 兵力이 휴전선에 서로 대치중이고 언제 어디서 불시에 北의 도발이 있을지 또는 國內교란이 있을지 우리는 民主 自由 平和의 統一이 꼭 이루어지도록 항상 경계심을 게을리 할 수 없음을 勿論 統一力量 배양에도 萬全을 期하기에 굳은 결의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武力戰爭만이 國難이라는 觀念에서 一步 더 나아가 國家와 民族의 運命을 左右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國難이 우리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6. 우리의 자세(姿勢)

위와 같이 國內外的 커다란 難題를 두어깨에 지고 來日을 위하여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오늘을 직시할 때 우리 郡民은 先烈들의 愛國하는 얼(선비精神)을 거울삼아 難局克服에 加一층 분발해야 하겠거늘 一部나마 몰지각하게 이를 外面하듯이 無分別한 外來文化의 流入에 앞장서 社會 혼란을 조성하는 가하면 過去를 망각하기 쉬운 人間의 약점에 편승하며 나만이 편하게 잘살면 된다는 利己主義 道德과 禮節을 저버린 個人主義를 만연시키며 선비精神은 古今에 不變이라는 哲學마저 도외시하는 世態를 엿볼수 있음은 甚히 유감된 바라 하겠다 고로 빛나는 선비精神의 계승발전은 우리 郡民의 必然的인 우선과제로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같이 못하다(知而不行이면 反不如不知)의 古語를 되새기며 西紀 1983년 선포한 선비精神이 가득 잠긴 郡民憲章(當時郡守 柳在珪)을 거울삼아 이 精神계승발전의 具體的 實踐方案 이 있어야 하겠다. 이는 衆智를 모아 決意되기를 바라는 바이나 주제넘게 몇가지 私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1. 全郡의인 民間推進 기구를 구성하여 全郡民의 얼(선비精神)의 재발전

-
- 과 凝集에 努力한다.
2. 愛國의 高장을 상징하는 각종 歷史的인 기록을 수집하여 社會에 소개한다(冊子)
 3. 聖域化의 意志로 愛國 유적의 복원 또는 새로 설치가 어렵다(現在 行政當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一部 복원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다).
 4. 권위있고 규모를 갖춘 紀念造形物의 설치가 필요하다(現在 大路邊에 있는 郡의 設置物은 너무 초라하다).

7. 結 言

옛부터 政治나 權勢에 집착하였던 많은 人士의 비참한 歷史 보다는 선비 精神이 充滿하였던 人士나 德望家의 事蹟이 民族의 師表로 길이 장하여 오는 事實을 우리는 수많이 보고 있으며 未來도 또한 永遠히 그러리라 본다.

어느 學者가 評하기를 漢字文化圈인 東洋三國의 國民性은 韓國(朝鮮)은 선비, 中國은 君子, 日本은 武士로 비유하였기 適切한 表現으로 生覺하는 바 선비의 나라 우리 橫城은 선비 精神의 가장 으뜸가는 郡民이 아닐 수 없다.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어떤 地方이든지 固有의 地方特色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는 思潮는 발전의 동기로 삼는 좋은 현사이라 하겠다.

우리 橫城의 자랑할 만한 特色을 곰곰히 生覺하여 볼때 文化面이나 社會面에 아무리 좋은 事案이 있다 하여도 先烈의 얼(선비精神)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믿어 우리 郡民은 다같이 이 精神下에 뭉쳐 後孫에 부끄러움 없는 發展 歷史를 남기기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바이다.

두서없는 拙筆로 文化院소탁에 應한다.

젊은날의 추억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68-5 최 정 희

검집산중인 강원도 산골로 시집오던날 띄엄띄엄 외로운 초가 삼간을 보면서 후회도 했었고 「아니야 과념할 사이인데 노처녀를 구해준 것만 이라도 고마운데 천벌받아 마땅할 입방아지」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뼈를 문힐 소중한 흙한줌에도 정을 쏟아붓고 해보잖았었던 서툰 농사일에 취미를 살려야지. 로 결심하고 나서야 늦게 배운 도둑 밤가는줄 모른다더니 하면서 달밤에 콩밭때고 일이고파 해 지는것이 그렇게도 원망스러웠던 적이 었 그제만 같은데 강산이 두번 변할 세월이 내곁에서 물같이 흘러가 어느덧 내 머리엔 때아닌 서리가 하얗게 뒤덮어만 간다.

옛날을 반추해보니 한창 나이엔 별레가 사각사각 값아먹다 버려둔 서정시를 읽는 답시고 썬치하고 앙큼하게도 새침해서 감히 낯들 말붙일 만큼 틈도 여유없이 변호사라도 된듯이 알량스럽게 마구잡이식 책도 읽고 습작이 지나쳐서 두번씩 개인전을 갖고보니 일약 스타덤(?)에 올라 있었다.

신문마다 이름석자가 활자화돼 있을 때 아끼는 친구는 「야 인쇄소에 가 거들랑 이름석자 잔뜩 찍어다가 아무곳에고 마구 붙여라 붙여」하면서 비아냥 거릴때야 비로소 벼는 익을수록 고래를 숙인다는 철칙을 터득하고는 위 문편지랑 남에게도 편지쓰는 버릇들이 지나치다 싶었었는데 일생동안을 좌우할 남편과도 얼굴을 보잖은채 365일을 꾸준히 열애의 편지가 밀어들로 속삭임하다 웨딩마치 근엄하게 울려 퍼지게하고 슬하에는 아들만 둘.

스물두해전 우리내외 청첩장은 꽤나 인기있는 문구로 장식돼 세련됨을 뽐냈었다고 자부한다.

「하나
하나가
하나 됩니다.

발갈고 씨뿌려 함께 거두립니다.

「먼-곳서 또 오셔서 복 빌어 주세요」하고는 남편이나 나 똑같이 편모슬 하였던지라 신랑신부 대신 아담 아무개 이브 최정희라고 그림듯한 아이디어 창출로 인해 보기도문 청첩이라고 청송받은만큼 세상에 알려진 잉꼬가 되겠다며 결심했던만큼 반대급부로 내손에 쥐여진 것은 전국을 제패한 새농민 여성상, 농업기술을 터득한 전국 유수한 못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농업 기술상까지 일가견을 이루었고 강원도 농민대상 소득증대 부문까지 벽찬 농삿일에 맨발로 무섭게 뛰었던 보람도 내고향 횡성에서 파낸 흙속의 금은 보화였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돈을 따던 재미에 척추뼈가 휘어질 줄 모르고 몸을 아끼잖았던 오기가 병마와 싸우면서 쇠퇴되고 결국은 도시물을 먹는 편안한 도시민이 되었지만 마음은 항상 팍팍 일하던 어렵던 시절 생각하면 앞뒷집 편히 지내는 기름보일러도 내게 있어 사치이자 낭비인듯 싶고 달리와 외화낭비 줄인답시고 꾸준히 연탄만 고집하는 탓에 연탄배달 아저씨는 만날 때마다 「내게 있어 은인이지요」 하면서 「그 큰 이층양옥집에 어울리지 않게 연탄때는 것은 순전히 가난한 내가족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의지를 암 알고말고요」라며 고마와 한 것만 봐도 돕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때문에 여성의 정상이란 신사업대상 대상을 받아 부지런의 신조가 알을 낳고 고향땅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해 모든 것을 눈두렁 발두렁 해집고 다니면서 억척스러움을 몸에 익힌 탓으로 고마와 하며 삶을 영위한다고 자부한다.

앞개를 달팽이며 햇불을 밝혀들고 남편과 함께 침범대면서 잠자는 물고기를 족대로 잡던 추억 고래실 눈에서 허리춤에까지 차오는 눈흘을 해집고 미꾸라지잡아 호박잎에 다 씻어 추어탕을 끓인 날 잔칫집 분위기를 방불했고 감자밥 푹푹 해치우던 것도 옛말이 되어 수입에 의존하니 가슴아픈 현상이다.

정년퇴직이 코앞에 닥치고 내고향땅으로 되돌아가면 노령화된 힘으로 다시 농삿일에 메달리고자 정신건강 만점을 유지하려고 타는 것보다 걷고 사 먹는 것을 지양하고 내손으로 직접 해먹는 내고향 농산물 먹기에 열심이다.

추호의 부끄럼없는 삶은 내고향 횡성에서 익힌 겸소함, 그리고 부지런을 목표로 언젠가 돌아갈 꿈으로 영글어간다.

횡성며느리

— 고향에 온 나의 시집살이 —

농촌주부 박 수 자

“감자바위로 불리는 강원도가 뭐 좋다고 니가 거기로 시집갈라카노” 할
 며님들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나는 고생을 각오했으니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마침내 24살의 신부가 되어 머나먼 中國땅에서 江原道 농
 촌총각에게 시집을 왔었다. 막상 생활하게되자 생각과는 달리 人生에는 부
 딛치는 일이 많다. 지금에 와 되새겨보니 웃기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던 그
 시절은 참으로 단출한 인생의 짧디짧은 순간이기도 하였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다. 다라에 가득이나 담겨져 있는 빨
 래를 차가운 개울물에서 어떻게 할까하는 근심이 앞선다. “애미야, 나 밥
 안취? 난 안먹었던 것 같은데…” 100살이 넘은 시할머님의 가느다란 목소
 리가 또 귀에 들려왔다. 5분전까지만 해도 점심을 드신 할머님이 금방 돌아
 서서 안먹었다고 하시니 나는 하루에도 할머님께 밥을 적어도 다섯번, 여
 섯번씩 올려야 했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하지않을 수 없었다. 살림
 이 넉넉치 못함으로 시어머님께서는 등골이 빠지도록 떼(잔디)심으러 다니
 시거나 식당일을 가시곤 한다. 남편만 농사일을 하니 농사만 짓고서는 큰
 돈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아직까지 젊은 시아버님은 정신상의 문제
 로 일찍부터 아무일 못하시는데 매일매일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시지 않고
 술만 즐기신다. 나는 봄에 시집와서부터 고추, 마늘, 들깨 심는 일, 벼베
 기, 타작… 생전 안해봤던 일까지 하기 시작했다. 끝도 없을만큼 고된 농사
 일에 지쳐 코피도 흘리곤 하였으며 서러운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
 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님이 큰 힘이 되어주시어 그런 서러움도 사라
 지고 언제부터인지 농촌에 살면서 취미생활을 느꼈다. 이따금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알알이 여문 이삭들을 바라볼 때의 기쁨! 풍성한 수확

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게 바로 생활의 재미가 아닌가 느껴진다. 고생이긴 하지만 이런生活에 대해 낙관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쾌락이기도 하다.

나의 제2의 고향

갑천면사무소, 추동출장소가 소재한 秋洞里는 나의 제2의 故郷이다. 가래울이라 불리던 이곳도 내가와서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발전이 컸다. 울퉁불퉁하던 길도 거의 확장을 잘해놓았으며 앞으로 관광지로 손님들이 들끓을 장소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잘사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여지껏 신랑한테서 돈만원도 받아 써본 적이 없다. 요즘, 추수가 끝나자 나는 90원짜리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찾아했다. 처음 배우는 재간탓인지 손에는 여기저기 찢린 상처가 남았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달이 되자 집일을 하면서도 인형을 만든 돈이 어느새 20만원이나 되었다. 처음 켜어보는 큰돈이라 기쁘기도 했다. 하여 고생하시는 나의 시어머님께 5만원의 용돈을 드렸다.

中國서 멀리와 고생한다면 농촌지도소와 갑천농협등 여러 곳에서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농촌후계자협회에서는 장동일회장을 비롯한 후계자가족일동이 60만원을 中國심양에 있는 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냈으며 국회 박경수의원께서는 송아지 한마리를 주시는등 그외에도 농협지부장, 강원도지사... 여러 곳에서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나는 이 귀한 손길아래 오가는 따뜻한 사랑의 정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나에게는 강원도가 감자바위란 이름보다도 인심 좋고 평화스러운 살기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하고 있다.

나는 굳세게 살고싶다.

中國에서 이곳으로 시집은 아가씨들은 모두 나보다 살림형편이 껍이나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잘살지도 못하는 나에게 시집와서 저토록 고생시킨다고 늘쌍 안스러워 하신다. 남편의 너그러운 말만 들어도 나는 生活의 만족함을 느낀다. 게다가 인정이 찰찰 차넘치는 훌륭한 내나

라 한국땅에서 그 어디를 가나 지방의 차별을 두지않고, 반가이 대해주시고 서운한 마음으로 나를 배려주곤하는 여러분들로, 한국땅에 살고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함을 잊지 않으며 한편 감사하는 마음을 中國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인생은 마치 로정(路程)과 같아 평탄한 길뿐만은 아닐 것이다. 급한 굽이 길도 있고, 다리땀을 뺀느느 언덕길도 있는만큼 앞으로 걸어가는 人生의 길에서 나는 나 자신이 “은실에서 자란 화초가 되지말고 폭풍속에서 자란 백송”이 되길 원한다.

편집자 註: 중국 조선족의 발음을 그대로 표현하였음)

鷗亭先生の 伴鷗亭



橫城邑 墨溪里 牛峯李氏後人 李 丙 德

1. 伴鷗亭의 由來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에 있던 반구정(伴鷗亭)은 李朝 中宗朝의 文臣인 牛峯李氏인 李 塘선생이 乙巳土禍(1545) 이후에 관계에 뜻을 버리고 낙향하여 講學에 힘쓰면서 살던 關東의 花城名勝地인 墨溪里의 강변 언덕위에 있던 亭子이다.

반구정의 건립연대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 전하여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나 李 塘선생이 을사사화(乙巳土禍)이후에 목계리로 낙향하시였음과 또한 1543년(中宗 38년)부터 白雲洞書院을 효시로 하여 각지에 書院이 세워지기 시작하던 시대임을 살필때에 대개 1550년대 초기에 건립 되었을 것으로 推定 할 수 있다.

오늘날 牛峯 李氏世譜에 있는 伴鷗亭 重修記에서 본다면 1721(景宗 1년 辛丑)까지 내려 오다가 頽破된것을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나서 1787년(正祖 11년 丁未)에 중수하여 내려오던 정자임을 알수있으며 16~17세기 기간에는 橫城地方의 학문의 搖籃이었다고 한다.

伴鷗亭을 처음으로 세우신 李 塘선생은 李祖 科榜錄(이조의 과거에 등과한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1525년(중종 을유년)에 小科, 1528년(중종 무자)에 大科에 及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官은 翰林 修撰을 歷任하던중 을사사화(1545)로 大尹과 小尹이 싸우며 많은 선비가 죽고 죽이고 하는 世態를 恨歎하여 관직을 버렸다고 傳한다.

字를 方正이라 하였으며 貫은 牛峯이다 당시의 儒林間에서 이 당선생을 가리켜 鷗亭先生이라 불러서 마침내 先生의 아호가 되었다 한다.

配位는 原州 元氏이신데 耘谷 元 天錫선생의 후예이다.

鷗亭先生께서 講學하실때에 遠近의 儒生들이 많이 모여서 강학을 받고 글을 쓰느라 붓을 빨은 먹물이 강물을 검게하여 墨溪의 地名이 생겼다고 전한다.

구정선생의 家系를 간단히 살리면 다음과 같다.

(曾祖)

李 吉培…………(태종-세종조문신, 황해도 도관찰출척사 겸 병마절도사)

(祖)

李 질…………(세종-세조조문신, 대사간)

(父)

李 承禧…………(성종조, 현감)

(伯父)

李 承張…………(성종조문신, 예문관봉교)

(堂叔)

李 承寧…………(세조조 문신, 대사성)

李 承健…………(성종조 문신, 홍문관 대제학, 예조판서)

伴鷗亭에 관하여는 距今 205년전에 璿성의 후손들이 반구정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伴鷗亭 重修記>가 오늘날 전하여 지고 있어 어느정도 상세 하기에 국역문과 같이 옮기니 곧 다음과 같다.

<반구정중수기>

화성 남쪽 10리 목계에 반구정이 있으니, 이는 우리선조이신 구정공께서 세우신 바이다. 공께서는 일찍이 經學에만 뜻을 두시어 못내 누추한 곳에서 마치실듯 하시더니, 마음을 돌이켜 일어나시어, 늦게 벼슬길에 나가시어 요순시대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의 임무로 다짐하였다. 벼슬이 홍문관 修撰에 이르렀을때, 마침 중종 을사년에 세상의 사태가 변해서 士禍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간신이 나라일을 맡자 청렴한 선비들이 귀향을 가게되었다. 공께서는 이로부터 세상일에 뜻이없으시고 호연한 뜻이 게서 장차 산림에 돌아가서 늙으시려 하셨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호의 산림 사이에 그윽하고 깊숙하여 살만한 곳이 없

는것도 아니지만, 더욱 깊이 산으로 드실 생각으로 멀리 花城땅의 德高山 아래를 찾아 살게 되었다.

花城은 서울에서 3百里 떨어져 있는 고장으로, 大概 관동은 옛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일컬어왔고 花城역시 관동에서 이름난 고장이다.

이에 시내와 바위사이에 한 후미진 구간을 얻어 정자를 지으셨는데 워낙 이름난 곳이라서 자리잡으신 것이 아니라, 깊숙해서 세상을 잊을수 있기 때문이었다. 왼쪽에는 그림을 오른쪽에는 책을 두시고, 조그만 방에서 依然히 읊조리며 공명이나 영달을 뜬 구름처럼 보시고, 마음대로 스스로 즐기며 날마다 이고장 선비들과 경서를 토론하고, 이따금 나이많은 큰 선비들과 鄉飲禮도 베풀었으니, 이 시골에 문체가 훌륭한 선비들이 있게 된 것은 公의 亭子가 있음으로써이다.

학문을 강의하신 여가에는 公께서 갈건과 야복으로 시내에 나가서어 낚시를 드리우시고 갈매기와 벼을 삼으셨으니, 정자의 이름도〈伴鷗〉라 하셨으며, 대개 이를취해서 이고장 선비들이 드높혀서 〈鷗亭先生〉이라고 號를 하였다. 하루는 본 道의 관찰사가 이 고을을 지나가다가 公을 찾아 이정자에 올라 앉아서 소매를 잡고 말하기를 “지금은 세상의 道가 태평으로 회복되어 청렴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대는 어찌서 세상을 잊은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부터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는것이 옛도리에 마땅하다”고 하니, 公께서 의연히 낯빛을 상기하시며, “그대는 나를 모른다”하시면서 잡았던 소매를 뿌리쳐 꿇고(割袖)강에 던졌다. 이지음에는 公의 당숙이신 판서공(이 승건)께서 무고한 죄명이 풀리어 관직이 회복되시어, 문중의 벼슬이 혁혁하여 남들이 부귀와 명예를 다투어 따르게 되었지만 公께서는 단연히 나아가지 않으셨으니, 진실로 평소에 지조를 지키신 큰 의리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寒泉先生의 글귀에 “맑은 바람결에 소매 꿇음이 들리는듯하다”하심은 정녕 이때문에 하신 말씀이시다. 세대가 오래되고 연대가 깊어 정자가 퇴락되어 오래 지탱할 수 없게되매 지난 申丑年(1721)에 부득이 헐어버렸더니, 이로부터 글 읽는소리도 정자와 함께 사라지고, 지팡이와 미투리로 유유히 거니시던 곳은 잡초가 우거졌고, 정자와 계단사이에는 잔솔이 어지럽게 자라니, 이 정자의 옛터를 지나는 선비로서 누구인들 한결같이 흠모하며 탄식하지 않은 이가 있겠는가.

이에 묘소 아래에 사는 자손들이 갑진년(正祖8년, 1784)가을부터 재물을 출연하고, 계도 모아서 3년이 지난 정미년(정조11년, 1787)봄에 이정자를 다시 수축하였으니, 신축년(경종1년, 1721)부터 60여년뒤의 사단이다. 꾸밈새나 모양이 옛날과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정자의 경치야 옛과 무엇이 다르랴.

무릇 10리 모래벌에 갈매기가 오락가락, 한줄기 맑은 냇물에는 비단같은 물고기가 노닐며, 반길이되는 푸른 절벽에는 등근 꽃이 붉게 어리고, 몇길 이되는 층계가에는 다발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네. 鳩坪의 저녁 연기와 치악의 저분노을이 하늘가에 달아 사방을 둘러봐도 한결같으니, 大概 이런 연후에야 이정자가 花城에서 제일가는 景致임을 알것이다.

그러나 전일의 글을 강하는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고, 다만 여러 생원들의 시문을짓는 모임의 장소가 되거나, 다만, 유람하는 나그네의 시 읊는 장소가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 선생께서 정자를 지으신 본뜻이라 하겠는가.

伴鷗亭 重修記

花城南十里 墨溪 有伴鷗亭, 此吾先祖 鷗亭公 所作也. 公嘗以經學爲志 若終於陋巷, 翻然而起 晚就科宦, 以堯舜郡民 爲自任矣. 官至修撰 值中廟乙巳, 勢道乃變 土禍大作, 羣奸用事 清流竄逐. 公自是 無意於世, 乃有浩然之志 將歸老於山林也. 近畿江湖林壑之間 非無幽邃可居之地, 而益思入山之深, 乃遠求花城之德高山下 因居焉. 花城 去京三百里地也, 蓋關東古稱山水之鄉, 而花城亦關東之名勝也. 乃得溪石間 一奧區 因作亭焉, 非爲其名勝 而取適也, 以其深邃 而忘世也. 左圖右書 嘯傲一室, 其於功名利達 視之若浮雲, 徜徉自娛, 日與此鄉 章甫 討論經史, 往往與老成宿儒 爲鄉飲禮, 此鄉之彬彬 有士林者, 以公之有亭也. 講學之暇 公以葛巾野服 臨溪投釣, 與鷗爲伴 亭之名「伴鷗」蓋取諸此士林 因推獎 爲號曰鷗亭先生. 一日 本道道伯 巡過此邑, 訪公於此登亭 而坐把袖 而語曰, 今則 世道回泰 清議復振, 子豈果忘之人乎. 從今此 仕宜於古道, 公乃毅然作色曰, 子不知我, 因斷所把之袖 投之江中 於斯時也 公之堂叔判書公, 伸冤復官 門內簪纓軒赫, 富貴名利 人所爭趨而公斷然不就, 苟無平日操守之大義 安能至於此哉. 寒泉先生之詩稿曰, 「清風聞割袖」者, 良以此也. 世久年深 亭因類破 不可久支. 故粵在辛丑 不得

已毀廢，自是 絃誦之聲 與亭俱廢，杖○逍遙之墟 荒芽蕪穢，亭謝階礎之間 孱松紛雜，士流之過是亭墟者 孰不景慕而齊歎乎。肆以墓下諸孫 自甲辰秋 出財修稷，越三年 丁未春 重修此亭，此是辛丑後 六十餘年事也。亭之製樣 未知比古何如，而亭之景狀 與古何異哉。凡十里平沙 白鷗往來，一帶清波 錦鱗游泳，半崖蒼壁 團花映紅，數畝階畔 盤松垂陰，鳩坪暮煙 雉嶽晚霞，外與天際 四望如一，夫然後 知是亭之爲花城第一景概也。然而前日之絃誦 今不可復聞，而但爲諸生 翰墨都會之所，且爲遊客吟咏之資，則是豈吾先生 作亭之本意哉云。

2. 伴鷗亭에 關한 옛文獻

伴鷗亭에 關하여는 다른 문헌에도 나타남직 하나, 아직 밝혀진 문헌을 알지 못하니,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으나 肅宗-英祖朝의 양관제학 文衡이시며 三官記, 語類抄節, 檢身錄을 위시한 많은 저술과 우리나라 儒脈상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셨으며, 특히 四禮便覽을 편찬 하신것으로도 유명한신 陶庵 李 絳先生(1680-1746)께서 1733년 (英祖 9년)에 橫城을 지나시다가 當時 유명한 반구정 옛터를 찾아서 <過伴鷗亭 舊址>라 題 하여 지으신 五言 時가 陶庵集 卷二에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過伴鷗亭 舊址

陶庵 李 絳

| | |
|-------|------------------------|
| 勝地今誰主 | 이 좋은 고장이 지금은 그 누가 주인이지 |
| 吾宗舊有公 | 예전에는 우리 집안의 翰林公이 계셨는데 |
| 勿云分派別 | 파가 갈려 다르다고 이르지를 마오 |
| 猶喜出門同 | 같은 문중이라 오히려 기쁘구나 |
| 老木煙沙際 | 우거진 숲과 모래밭에는 내가 끼이고 |
| 孤村夕照中 | 호젓한 마을에는 저녁노을 한창이네 |
| 鷗波空浩蕩 | 물결의 갈매기는 속절없이 거침이 없어 |
| 獨立意無窮 | 우두커니 서 있자니 생각이 가이없구나 |
| 感激宗人淚 | 일가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
| 如經峴首來 | 羊祐의 峴山을 넘은듯 반가워 한다 |

華堂草履滿 빛나는 집에는 짚신이 그득하고
 春日綺筵開 봄날이라 고운자리 펴놓고 둘러앉아
 往迹如斯水 옛날 자취가 저 시내물과 같다 보니
 空臺復此盃 쓸쓸한 대에서 이렇듯 다시 잔을 기울여
 清風聞割袖 맑은 바람에 소매 끊는 소리 들리는 듯하니
 殘籥益堪哀 후손들이 더욱더 슬픔을 견디지 못한다

「陶庵集 卷二·26」

참고 ① 杜甫의 排律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에 「白鷗波浩蕩 萬里誰能馴」이 있다.

② 羊祐는 襄陽 사람으로 「普書」「羊祐傳」에 「祐與鄧潤 登峴山」이 있다. 太守 羊祐가 峴山에 즐겨 올라 飲酒吟詠했다. 一名 峴首山. 그래서 後人들이 羊祐를 기려 비를 세워 「鹽淚碑」라 해서 名士들의 글에 두루 전용되었다.

3. 伴鷗亭 再建을 위한 努力

진술한 바와 같이 한때 橫城地方의 講學의 中心的 位置에 있던 伴鷗亭은 1721년 까지 내려 오다가 퇴락 하여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자 60여년 후인 1787년에 璿성지방의 후손들이 주축이되어 증수 하였다하니 距今 205년전의 일이다.

이와같이 璿성지방의 옛분들은 반구정을 아끼고 옛모습을 되찾아 保存하기 위하여 몇년씩이나 財源을 마련 하느라 애를 쓰신 흔적을 <伴鷗亭 重修記>에서 엿볼수 있으니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教訓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건축기술과 건축자재가 모두 오늘날과 같지 못하였을뿐더러 계속적인 보수를 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오늘날 반구정을 볼 수 없으니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후 1925년을 전후하여 반구정을 증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역시 鷗亭 先生의 후손들 간에 다시 일어나 우선 기와 2000장을 準備하는 등 활발 하였으나 當時 일제하에서 우리의 옛것을 찾으려고 하는 운동에대한 부정적 정책과 또한 세계적으로 퍼졌던 대공황의 여파와 농촌사정의 어려움이

겹친위에 주동인사의 타계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취를 보지못하고 오늘날에는 옛터에 주춧돌인듯 몇개의 돌만이 굴르고 있으니, 옛부터 빛나던 關東 花城의 氣像이 아주 뿌리채 사라졌단 말인가?

더욱이 오늘날에는 鷗亭先生의 後孫들도 많이 移居하여 그 후손들에게만 期待할 수도 없는 現實이니, 이것이 어찌 한집안만의 안타까움이라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鷗亭先生의 時代 以來로 橫城地方에 뿌리내려 世居하는 家門이라면 누구나 그 先代時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크던 작던간에 鷗亭先生의 伴鷗亭과는 因緣이 있었을 것을 어찌 잊을수 있으리요.

그동안 西歐文化에 휩쓸려서 아름다운 우리의 傳統文化가 하나씩 사라지다가 昨今으로 社會의 一角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는 <우리 文化 되찾기>의 氣運이 일고있음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인바, 이곳 伴鷗亭 옛터에도 일찍이 鷗亭先生께서 講學의 터전을 닦던 큰뜻이 되살아 난다면 어찌 後孫이나 墨溪里마을만의 기쁨에 머물수 있겠는가?

關東花城의 第一名勝地가 한낱 놀이터가 아니고, 옛 어른들이 山川景概를 찾아 빼어난 自然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 학문과 뜻을 기르는 터전으로 삼았음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되새기고 後世에 이어줌이 우리 모두의 責務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끝으로 우리 橫城고장에 이러한 潛在한 郷土文化와 뜻깊은 유적이 있다는 것은 橫城의 자랑이요 傳統文化의 유산이므로 橫城郡民과 行政當局은 本伴鷗亭을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復元重修하여야 됨을 建議하며 언젠가는 누가 再建하든 옛모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后 記: <반구정 중수기> 및 <과반구정 구지>의 원문 국역은 李 丙疇님(동대 名譽 教授, 문박)의 역문을 옮겼음을 밝히며, 茂學군(대중회 도유사, 경제학사)의 원고 정리에 감사한다.

홍석규와 매일리 충혼탑



유현국민학교 교사 박 순 업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한 동족 상잔의 전란은 전 국토를 전쟁의 참화에 물들게 하고 첩첩산중의 산골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갑천면 매일리 주민들도 정든집과 고향 산천을 두고 먼 곳으로 혹은 더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다. 9. 28 수복으로 마치 죽음의 마을이 된 폐허의 고향을 찾아들게 되었지만 살벌하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패잔병이 만행을 부리는 무법천지였다. 먼 소재지인 이 마을의 치안 유지는 당시 횡성 경찰서 갑천지서의 경찰관 4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혼란과 무질서를 4명의 경찰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자 주민들은 자율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했고 이런 상황에 따라 이 지역 젊은이들 스스로 50년 10월초에 자치대를 발족하였다.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경찰도 아닌 피끓는 젊음으로 몽친 9명의 애국 청년들이었다. 대장 김문걸(당시 30세, 갑천면 유평리)과 대원 8명은 군번없는 군인으로 보수도 없고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채 구식 소총으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남아있는 패잔병을 찾아내고 공산당 앞잡이를 검거하여 군에 인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어담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을 벌여 일망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에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였다. 그해 10월말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밤 순찰 준비를 하던 중 저녁 무렵 패주하던 공산군 연대 병력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지방 불순분자에 의해 이들에게 날날이 고해졌다. 그리하여 지서가 불질러지고 대원은 포위되어 7명은 전사하고 홍석규(1930. 9. 24일생)와 최중연(1930년생)만 살아남았다. 홍석규는 당시 갑천중학교 3학년이었으나 최중연은 같은 또래이면

서도 그학교 교사였다. 북한 공산군은 총알을 아꼈다며 생포한 홍석규를 마구 찌르고 그들 나름대로 죽음을 확인하였고, 영어를 잘 하는 최중연은 이용 가치가 있던지 북으로 끌고갔다. 홍석규는 죽창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옆친데 덮친데 그날밤 가을비는 억수같이 퍼부어 도랑물은 불고 실날같은 생명의 불꽃은 꺼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나 신의 가호라 할까, 기적이라 할까, 그곳을 지나던 이웃 할머니에게 발견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구조되었으며 그후 의식을 회복, 황성 읍내에서 6개월간 병상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는 몸 곳곳에 흉하게 아문 상처를 지닌채 지금도 날만 흐리면 몸이쭈서 고통을 참느라 애쓴다고 했으며 구사일생 살아남은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한편 최중연은 화천까지 끌려갔으나 순간적인 기지로 탈출한데 성공하였으며 5.16당시 강원도 이용(李龍) 지사의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다 간 젊은 영혼은 대장 김문걸(당시 30세), 대원 박준금(당시 20세), 노성빈(당시 20세), 이의홍(당시 21세), 신기목(당시 19세), 방병국(당시 22세), 홍남석(당시 22세)로 대부분 갑천 중학교 3학년생이었으며 6.25동란이 지난지 15년 후인 1965년 10월 1일 갑천면장과 면민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하여 7층 콘크리트 탑을 세웠으나 그후 철거하고 지금은 대리석 비를 세워 구국의 영혼을 기리고 있다.

필자는 1983년 여름, 황성군 6.25 실증 자료를 수집한답시고 황성에 살다 춘천으로 거주지(춘천시 효자동 629-10)를 옮긴 홍석규를 수소문 끝에 찾아 증언을 들었다.

홍석규씨는 북괴군과 군번없이 싸운 몸이라 국가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부 갑천중 동기생에게만 그의 행적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 황성군민에 알려지지 않고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다. 매일리 충혼탑 주인공의 유일한 생존자 홍석규씨! 목숨바쳐 고장을 지킨 그의 호국 정신과 행적이 널리 알려져 황성군민의 가슴에 영원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石佛遺憾

유현국민학교 교사 박 순 업

공근면 상동리와 부창리는 부처가 있는 곳을 지칭하여 옛날에는 부체이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몇번 개칭된 끝에 지금 두 동리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도 외지에서는 본 고장을 부체이로 부르고 있다. 이렇듯 이 고장은 불교와 관련있는 유서깊은 것이다. 골짜기마다 석불과 관련된 슬한 전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고려조에 만들어진 석불좌상과 3층 석탑(지방문화재 22,23호)은 일제 말기에 이곳에서 현 3.1공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살아 숨쉬는듯한 석불의 자비로운 모습은 당시 조상들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 상동리 도로변 논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신라말기에 만들어진 석불좌상과 삼층석탑(지방문화재 20,21호)이 있어 이곳을 옛날 부터 '돌 부처 거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천년을 풍우에 시달리며 이곳 사람들과 애환을 함께하고 있다. 석불 주변에서는 경작할 때마다 그 옛날 사찰 지붕의 기와 파편이 수없이 출토되어 왔다. 다릿발 옆에는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직사각형의 잘 다듬어진 돌이 치박혀져 있는데 돌표면에는 마모된 글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천년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89년 10월 21일 상동리 아이들이 교무실에 몰려와서 큰일났다고 범석을 떨던 일이 생각난다. 이유인즉 석불의 몸체는 쇠 꼬챙이에 굽힌 자국이 있고 머리는 누가 간밤에 떼어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서와 군청에 알렸을 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올 여름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승용차도 서로 못 비킬 정도로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울퉁불퉁하던 산골 길이 지금은 새까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시원하게 뻗어 맑은 개울물과 암석, 고목과 어우러져 있으나 돌 부처를 보는 순간 안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얼굴 없는 돌 부처를 지내오다 주민들의 건의로 당국에서 머리를 만들어 없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천년을 묵상에 잠긴듯한 온화한 그 전의 모습은 간데 없고 어색하고 경박한 미소가 영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몸통만 있는 돌 부처 보다는 낫겠지. 머리 없는 돌 부처는 더 봐줄 수 없을테니까. 그 돌부처 머리는 도굴꾼에 의해 어느 호화스러운 별장 정원이나 부자집 정원 장식용으로 팔려갔는지 모른다. 조그만 돈이라도 되는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의식 수준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설에서 처럼 신통력을 갖고 있는 돌부처라면 아마 도굴꾼은 벌써 요절이 났을 것이다. 꿈 속에서 시달리다 못해 간밤에 몰래 다시 갖다 놓았다는 그런 소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필자약력 (박순업)

- : 출생지 및 주소 : 횡성읍 조곡리 277번지
- : 춘천교육대학 졸업
- : 덕고, 우천, 횡성, 상창국민학교 근무
- : 횡성군 항일운동 연구.
- : 횡성군 향토문화상 수상
- : 현 유현국민학교 근무

수필

「사람의 냄새」가 그림구나



楊口郡 副郡守 조 상 현

현대사회를 흔히 「情報通信革命的 時代」라고 한다.

이는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물고 온 지식의 폭발, 기술의 혁명으로 특징지워지는 컴퓨터 시대인 고속사회(高速 社會)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1946년 펜실바니아 대학의 존·버클리교수가 무려 1만 8천개의 진공관을 조립하여 겨우 가감승제(加減乘除)만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던 것이 컴퓨터의 효시인데, 그것이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다시 트랜지스터에서 초대규모의 집적회로(集積回路)와 함께 광섬유·케이블을 개발해 내면서, 그로부터 불과 30여년만에 정보의 국제화는 지구촌시대(地球村時代)를 개막했고 급기야 지상시대에서 우주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이와같이 엄청난 속도로 진전된 과학기술의 발달을 18세기까지 생산된 지식의 양이 그후 100년간에 생산된 양과 맞먹게 되었고, 최근 10년동안에 생산된 지식은 지난 1900년동안에 걸쳐 인간들이 만들어 낸 지식의 총량과 맞먹을 만큼, 실로 그 발전속도는 한달전이 새로운 정도로 지식의 유효기간을 단축시켜 놓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우만 해도,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부러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는것 먹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웬만한 시골 농촌안방에 까지 모두 갖추어진 TV, 냉장고, 오디오 등의 가전제품과 전화 자동차의 보급률... 6.25전후 만 해도 입에 풀칠하고 살기조차 어려웠던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40여년만에 6천5백달러,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표현만으로는 모자랄정도로 우리의 생활수준이 참으로 놀랍게 향상됐다.

그런데, 이 처럼 20세기의 문명이 19세기의 불편함에 비해 엄청난 발전

을 가져왔는데도 웬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살기는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지난날 못살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 옛날을 못내 아쉬워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오늘따라 일찍 배달된 조간신문을 펼쳐드니 주먹만큼씩한 활자로 뽑은 대문짝만한 기사의 제목이 또 마음을 언짢게 한다.

대충 훑어보니, 남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잡힌 가정과괴범들의 뻔뻔스러운 사진과 함께 실린 5단기사. 어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일이 이토록 버젓이 자행된단 말인가?

어디 그 뿐인가.

대단치도 않은 말다툼 끝에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 아는 놈. 혼자 죽기가 싫어 여의도 광장에서 뛰노는 20여명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썩살이 한 정신나간 놈. 촌놈이란 말에 화가 나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러 16명의 무고한 생명을 순식간에 황천으로 보낸 낫도깨비 같은 놈. 아내와의 재결합을 거절한다고 부인과 딸, 장인장모 등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살해한 금수만도 못한 놈. 자기 집 종업원과 눈이 맞아 병든 남편을 살해하고 살인강도로 위장했다가 들통이 난 앙큼한 30대 독부(毒婦).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천진난만한 어린이들까지도 공부하기 싫어 선생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과자를 먹이는가 하면, 열살밖에 안된 어린이가 누이동생을 살해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날마다 신문 사회면을 메우고 있는 강·철도 폭력사건, 서로 속고 속이는 크고 작은 사기사건들. 도박과 마약, 사치 향락 퇴폐 한탕주의가 어우러져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부녀자들을 잡아다 윤락가에 파는 잡놈들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고사하고 같은 APT안에 나란히 살면서 누가 이사를 왔는지 누가 죽었는지, 이웃끼리 담을 높이 쌓고 지내는 앙숙같은 인심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토록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의 동물사회 처럼 살아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간 우리가 좀더 잘살아 보겠다고 들뛰어 온 산업화 과정에서 배금사상 물질주의 개인주의 라는 산업사회의 기본원리가 이 같은 비인간화(非人間化)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제가 놓은 덫에 제 발목이 걸린 자승자박의 꼴이 된 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의 문제이지 옛날보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하늘과 땅사이 만큼이나 발전한 우리사회가 어찌하여 가치관의 방향각각을 잃고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인가?

못살때엔 그리도 좋던 인심들이 배꿍고 살 땐 그토록 곱던 심성들이 이제 큰기침하고 살만하게 되니까 너 나 없이 모두 흉칙한 야차(夜叉)의 물골로 변해 버리다니.

원래 못살던 사람도 의식(意識)이 넉넉해지면 예절을 지키게 된다고 했다. 관자(管子)의 말이다. 백성들 살림이 풍족해지면 자연히 도덕관념이 높아지고 나라의 기틀도 견실해 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큰소리치고 살만하게 된 우리사회가 이렇듯 하루아침에 범법의 만연, 규범의 붕괴, 신뢰의 상실로 도덕성 협동심 이웃사랑이 땅에 떨어지고 보니 비록 험벗고 굶주리며 살긴 했어도 이웃간에 따뜻한 인정이 오가던 그 옛날이 그리워지고 아쉽게 느껴짐을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래도 천만다행. 앞으로 다가 올 미래는 아주 살맛 나는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진단이다.

얼마 전 일본의 싱크탱크인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가 전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文化力>이 국세를 좌우 할 창조화(創造化)라는 「제4의 물결」이 밀려 올 차례라고 예견하면서 <樂美愛眞>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인류가 처음 유목생활에서 정착하여 농경사회(쌀가마)를 이룬 것이 「제1의 물결」 산업혁명이 물고 온 공업화사회(칼로리)가 「제2의 물결」 오늘의 이 정보화사회(비트)가 「제3의 물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발전에 따라 <五穀豐盛 - 농업화> <重臣長大 - 공업화> <輕薄短小 - 정보화> 등 물질의 양을 강조하는 말들이 그 시대를 지칭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어 왔으나 이제 다가 올 창조화사회(創造化社會)에서는 인간의 심리상태를 형용 할 <樂美愛眞>이라는 말이 핵심단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樂>은 휴양과 쾌적함 그리고 삶의 질을, <美>는 예술이 첨단기술과 접목되는 인간미를, <愛>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마음의 교류를, <眞>은 과학 자체가 산업화되는 사회의 전개과정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국력에 대한 평가기준도 농경 사회에서는 군사력, 공업화사회에서는 정치력, 정보화사회에서의 경제력에 이어 이제 창조화사회에서는 <文化力>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제3의 물결」의 토폴러도 최근 그의 저서 「권력의 이동」에서 “이제 지난 수세기를 지배 해 온 굴뚝문명이 끝나고 세계를 뒤흔들 권력투쟁의 뒤를 이어 〈知識의 文名〉이 그 승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밀임엔 틀림없다. 그것은 당장 그 사실을 실증해 보일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도덕의 불감증 상태에 까지 이른 우리의 처지이고 보면 이처럼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21세기를 진정 살맛나는 시대로 내다보고 있으니 이 어찌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문명의 전개과정이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이 거칠어 졌다면 이제 앞으로 「제4의 물결」이 물고 울 파도는 분명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문명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비록 나만의 소망일까?

「제4의 물결」이여!

제발 어서 신바람을 앞세우고 밀려오라.

이 증병에 걸린 우리사회의 타락된 도덕성, 해이된 사회기강,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킬 〈文化力〉으로 처방된 만병통치 영약〈靈藥〉을 가지고 말이다.

오순도순 이웃끼리.

그 옛날 담 넘어로 오가던 한 접시의 송편속에 담겨졌던 그 진하디 진한 「사람의 냄새」가 그럼구나!

수 필

간 떼이(덩이)가 분 사람들

황성균 황성읍 조곡리 377 권 용 환

신호등이 청신호를 켜다.

빠른 걸음으로 인도를 올라선다.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저마다 걷는다. 왜가는 것인가? 가야만 하는 것인가?

걸음으로 보기엔 다—멀쩡하다.

허름한 잠바걸친 저—남자. 가정법원에 들러 결혼 5년만에 이혼도장 찍고 나 닳은 아들을 못볼 생각에 담배맛을 모르며 걷고 있는 저모습—

철모를때 첫 직장에서 만난 옛 애인과 하루 외박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 냥 살고 싶은 아들과 부인이건만 부인이 더러워하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탓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서로 멸시하는 생활 몇달만에 결론을 너무 쉽게 내버린 사람들—

용서하고 누우치고 회개하는 가슴으로 따뜻한 손을 눈물로 잡았더라면 더 행복할 것을— 더 큰 행복을 위해선 필요한 사건 이었던만 그 여인의 전화 한통화가 무서운 괴로움의 비극의 파도가 밀려온 사건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다.

며칠 후 어느 셋방에 팽개쳐진 술취한 그 남자의 떨리는 손은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전화를 걸어본다.

“여보세요”

“어머나! 끊으세요! 지금은 안돼요!”

또 한가정에 불행의 악마가 손짓을 하고 있다.

간떼이가 분 사람들!

문화가 불구자되어 사람들은 간떼이만 커진다.

사회가 맹인되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인가?
진리가 참이 선도 정의도 비틀거리어 알레르기 체질로 변하는 것인가?
물질의 콜레스테롤 때문인 것인가?
한번뿐인 존엄한 삶은 투기 되어서는 안된다.
삶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상처는 죄의 잘못은 후대 어느 때에든지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삶을 즐겁게만 행복하게만 쾌락으로만 살려하지 말고 값지게 보람과 진리에 삶을 아름다운 생을 누리야 할 것이다.
행복을 주우려 하는 사람이 많다.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도 있다.
삶은 만드는 것이고 꾸미는 것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네모난 관과 함께 작품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엄숙히 평가할 것이다.
뒤편구나! 뺨었구나! 거꾸러 졌구나! 밥 손가락 놓쳤구나! 죽었구나!
돌아 가셨구나! 저세상으로 가셨구나! 눈을 감았다. 서거 하셨다. 소천 하셨다. 승하 하셨다.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 × ————— × ————— × —————

밀리는 스타킹에 새다리 아가씨! 입술이 얇고 검푸르고, 눈이 새까만, 목이 긴 미스 조는 건축회사 공사현장 경리겸 외래손님 접대담당이다.
과장님의 지나친 호의에 며칠을 두려워 했다.
미스 조는 전화를 받으며 눈썹이 날카로와 진다.
자제값을 주어야 하니 돈을 ○○여관 17호 실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조금은 두려워하며 수표 몇장을 가방에 넣고 여관 문을 들어섰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후 돌아오는 그의 뒷모습은 웬지 모르게 어깨가 가늘프고 다리는 더 가늘어 보이고 휘청거림에 몸 가누기를 애쓴다.
입술의 윤곽이 새삼 소스라쳐 보인다.
"세상은 다 그런거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고등학교 이학년때 퇴학당한 친구의 말이 새삼 또렷이 떠오른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과장님이 들어왔다.
공연한 수선을 떨며 호의에 선심공세가 평소와는 다르다.
“미스조 몸이 안좋아요?”
고개도 안들고 반응이 없다.
이상한 일이다. 평상시에는 과장님의 말이라면 하늘같이 여기어 과잉친
절이 넘쳤건마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요”
어색한 분위기에 침묵이 흐른다.
미스 조는 어느새 없어졌다.
과장님도 안 보였다.
‘오늘은 야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얼마후 한적한 갈비집 뒷방에서 저녁을 먹는다.
“자— 오늘은 어머님께 과일을 좀 사가지고 들어가요”
봉투를 핸드백 속에 넣어준다.
미스 조는 희한한 하루였다.
사회를 배우는 것인가? 간 떼이가 붓는 것인가? 신성한 존엄한 육체가
병들면 생도 병드는 것을 체험 하려는 것인가?
간접 경험을 해야하는 것이어늘—
간 떼이가 분 사람들!
나쁜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실수와 악행은 한번이라야 용서 받는다.
용서는 안하겠다는 조건 앞에서만 효용이 있는 것이다.
용서는 방종, 비판, 절망, 태만, 될대로 되라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
다.
본능을 이기는 것은 위대하다.
물살속에 갈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버티는 위대함이 있다.
버티다 쓰러져도 버티어 보아야 한다.
끓는 투가리를 드는 여인처럼 참고 견디자.
고개를 넘으면 언덕을 올라서면 푸른 초장이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다.

— × — × — × —

1951년 2월 쇠지못한 설이 지난 얼마후 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고 텅빈 동네는 주인없는 개들만이 들판을 헤매는 어느 날이었다.

응달 말 순덕이네 집과 봉철이네 집이 산비탈이 끝나는 골짜기 흙타구니에 서로 건네다 보고 있었다. 6.25후 12동란때 그 격렬했던 전투에도 이 두 집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미처 피난가지 못한 이들에게는 좋은 피난처였다.

앞산이 막힌 돌아 들어오는 골짜기이기에 피난처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버덩말 철민이네는 피난을 가지 못하여 봉철이네 행랑채에서 피난을 하게 되었다.

철민이 아버지께서는 보국대로 끌려가시고 철민이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네식구가 아버지 돌아 올때만 기다리며 있었다.

철민이 어머니는 서른 일곱에 철민이 하나밖에 없다. 위로 딸들을 낳았으나 어려서 잃어버리고 철민이 하나이어서 귀하게 기르며 시어머니 시아버님께 효도하는 효부이며 현모양처이다.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피난도 차일피일 미루다 못하고 봉철이네 집으로 온 것이다.

버덩말 고개넘어 개울가 들판에 미군전투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미군부대가 있는 동네에는 가끔씩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밤에 미군들이 권총으로 위협하고 여자들을 강간 한다는 것이다. 노인이고 젊은이고 여자이면 덤벼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막힌 봉변을 당한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철민이 어머니도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다가와 시어머니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불계타는 불과 입술은 어쩔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무사했다.

아침 굴뚝에 연기도 맺은 고요함은 반나절 찬란한 햇살이 늙은 암소 콧등 위에 흰서리를 녹인다.

되섬은 입김과 함께 녹아버리는 쇠침은 평화와 안도의 강이 되어 무수히 흐르는 것 같다.

한참만에 장담 숫탔이 하늘을 향해 외친다.

“꼬-끼-요. 자 이제 모여라!”

알집 속에 수수알 같은 알을 잔뜩 쓸어넣고는 생명의 씨앗을 놓기 위해 벗이 유난히 붉은 암탔이 먼저 다가온다.

한쪽 날개를 밑으로 끌며 암탔 주위를 한바퀴 돌고는 경충 기어오른다. 자세를 낮추었던 암탔은 날개를 털어 깃을 가즈런히 하고 만족한 듯이 모이를 열심히 쪼고 있다.

갑자기 고요의 평화가 깨지는 것 같다.

산모퉁이 발까지 미군차가 와서 더 이상 못올라 옴을 알았는지 엔진에 묘암함이 있는 후 발동을 끄고 두명의 큰 병사가 내린다.

검은 흑인 병사는 의료기기와 약이든 두말들이 통을 들고 어청어청 걷는다. 뒤를 따르는 백인병사가 올라온다.

봉철이가 바깥 뒷간에서 나오며 소리친다.

“엄마! 미군이 이리로 와요.”

두집의 모든 식구들은 계획했던 대로 행동하기에 급하고 바쁘다.

철민이 어머니, 봉철이 어머니, 순덕이 모녀 이렇게 넷은 어깨를 타고 검은 그늘음이 주렁주렁한 다락으로 올라간다.

할머니는 싸리비로 헛 비질을 하며 대문밖을 험금험금 내다본다.

할아버지와 남자 아이들은 돼지우리 옆에서 날이 큰 도끼로 장작을 펴고 있다.

드디어 미군 둘은 대문 밖까지 와서 손짓 발짓을 하며 떠들어 댄다.

괜찮다는 얼굴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선다.

두말들이 통을 열어 보인다. 약 상자이다.

자기네 말로는 대민 의료봉사를 나왔으니 염려 말라는 것이다.

하얀 병에다 약을 반병씩 덜어주는 것이다.

반창고를 찢어 병에 붙이여 영어로 약자를 써 주었다. (아스피린, 페니실린, 소화제) 연고로 되어 있는 것도 주었다.

무엇이라고 설명을 한다. (한번에 두알씩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는 것이

다. 양을 안지키면 해롭다고 한다. 연고는 상처에 바르고 냄새가 요란한 멘 소래담은 염증에 좋다고 설명이다.)

알아 들을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경계심을 잊고 신기한 듯이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이상한 노린내 같은 냄새가 나며 살갓은 속이 들여다 보일것 같고 노란 털이 많이 났다.

검은 군인은 구두 가죽같이 곱이 반들반들하고 입술이 매우 두터워 보였다.

껌을 주었다. 껌질을 벗겨서 하얀 약같은 것을 주었다. 지금의 바둑껌이다.

초코렛도 주었다. 엿같은 것을 먹어보니 매우 달콤하고 향긋한 것이 맛이 좋았다.

생전처음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먹어 보았다.

자기네끼리 막 웃고 무엇이라고 막 떠들며 마루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 손에서 빗자루를 뺏어 마당쓰는 흥내를 내며 웃어 보이며 경계심을 없애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신기해서 구경을 하는 행동으로 변했다.

다시 마루에 앉아 고향에 자기 애인자랑을 하는 모양이다.

앞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들고 서로 보며 웃고 있다. 한참만에 두사람은 돌아갔다.

철민이가 소리쳤다.

“엄마 잤어요. 내려오세요.”

다락에서 내려온 순덕이 모녀와 철민이, 봉철이 어머니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그으름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가장행렬의 아프리카 거지 같았다.

서로 보고 웃다 안도의 한숨을 쉬다하며 집으로가 씻고 털고하여 하늘을 보니 해는 한나절을 넘고 있었다. 또 평화와 고요가 흐른다.

오늘은 오후 바람도 순하게 분다.

‘똥 소문이다 거짓말이구나! 그래 그들도 사람인데’하는 안심과 조금은 기쁨이 서리기도 했다. 해는 저물어 천년의 고요가 오늘도 다가왔다.

희미한 등잔 불이 두집 다 꺼졌다.

철민이가 자는 행랑채 옷방에도 불이 꺼졌다.
잠이 까무룩하게 들었는데 봉철이네 개가 갑자기 막 짖어댄다.
순덕이네 개도 같이 짖어댄다.
행랑 아랫방 철민이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다.
“무슨 짐승이 왔나? 왜이리 개가 짖느냐?”
바튼 기침을 하고 방문을 열어본다.
깜깜한 밤에 곰방대 담배 불이 개똥불처럼 빛을 발한다.
개가 마루 밑으로 쫓겨 들어가며 짖어댄다.
이상한 일이다. 다 잠이 깬다.
봉철이 할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온다.
“샴쟁이가 왔나?”
“갈가지가 왔나?”
갑자기 등 뒤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총소리가
“탕-탕- 탕탕-” 하늘로 불줄기가 사라졌다.
두 노인네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누가 와서 손을 뒤로 묶는다. 넓직한 끈으로 입을 막아 뒤로 묶는다.
어느 헛간에 두 노인네는 팽개쳐 졌다.
방안에 있던 식구들은 이불을 쓰고 방구석에 쭈서 박혔다.
철민이는 엄마 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긴장속에 방문이 열렸다. 검은 키 큰 그림자가 다가왔다.
한 그림자는 문에서 총을 들고 서있고 눈부시는 전등이 다가온다. 이불
을 걷어 치운다.
철민이를 털렁 안고 밖으로 나간다.
엄마가 철민이를 잡으려고 일어섰다.
문에 섰던 그림자가 다가온다.
철민이는 할아버지 있는 헛간에 던져지고 울지도 못하는 공포에 떨며 할
아버지에게로 던져졌다.
묶여 있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숨을 죽이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순덕이네 집쪽에서도 총소리가 났다.
갑자기 조용하다.

철민이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반항의 비명이 적막을 깬다.
입을 옷가지로 틀어막아 묶고 손도 묶어 옷을 찢는 소리가 난다. 함정에서 소리치는 토끼같다.

나체를 만끽하는 시간이 비참하게 흐른다.

철민이 어머니는 짐승처럼 움직인다. 반항도 포기한 몸은 흐트러져 있었다.

한참만에 총을 든 그림자가 바뀌었다.

이번엔 더 큰 비명과 신음소리가 고통으로 변한다.

고통의 비명도 여력이 다 소모된 것인지——

사방은 조용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두 그림자는 방을 나와 순덕이네 집쪽으로 소리친다. 발자국이 요란하게 멀어져 간다.

번쩍이는 진동도 멀리 멀어져 갔다.

봉철이네 식구들이 호롱불을 들고 왔다.

철민이 할아버지와 봉철이 할아버지는 끈을 풀고 아무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철민이는 어머님께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꿈틀대며 피문은 옷을 꿰쳐 구석에 던지고 새옷을 입고 있다. 코피와 입에서 피가 번져 있고 기진하여 쓰러지는 그는 눈통이가 부어 있었다. 철민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울었다.

철민이는 그들이 어머니를 때려 심히 맞은 줄로만 알았다.

철민이 할아버지는 빈방에서 담배만 피우고 아무 말이 없었다. 운명에 순응하는 도둑은 모습인가?

철민이는 이해 할수가 없었다.

‘왜? 가만히들 있는 것인가?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씀도 왜 안하시는 것인가?’

철민이 어머니는 허리를 잔뜩 꾸부리고 아랫 배를 움켜쥐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휘 감기운채 맥을 놓고 누워 있다.

짓어대던 개들도 조용히 잠들었다.

하늘에 별만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반짝인
다.

며칠을 누워 있던 철민이 어머니가 밥을 짓기 시작했다.

철민이는 동네 아이들과 버딩마을 산넘어 미군부대 앞을 지나게 되었다.

철조망 뒤쪽에서 머리를 뺨뺨까운 미군 네명이 각각 무구덩이 보다 크게
땅을 파고 있었다.

감시병 둘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

버딩말 키 큰 아이가 말을 한다.

“야 저기 저 땅파는 뽕뽕이는 왜 저러는지 알아?”

“몰라. 왜 그러는데!—”

“응— 형이 그러는데 밤에 몰래 부대밖에 나갔다는 벌 받는 것이라—”

땅을 파다가는 메우고 파다가는 메우고 계속 구일째 벌을 받는다는 것이
다.

“몰래 밖에만 나가면 저런 벌을 받는대?”

“아니 이 바보야! 밤에 나가서 강간 집탈을 하고 오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강간 집탈이 뭐하는 건데—!” 철민이는 그날 밤에 일을 곰곰히 생각하
며 이렇듯이나마 상상해 본다.

‘참 이상한 일이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 × ————— × ————— × —————

전쟁은 보상받지 못하는 희생이 너무나 많다.

전쟁터에서 어느 젊은이가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는 것의 보상때문에
철민이 어머니의 보상은 순위가 멀어져 가서 묻어 두자는 것인가?

왜정시대 정신대도 묻어 두는데 철민이 어머니야 어쩔수 없는 것이지—.

아니 간접보상은 역사속에서 설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월남의 어느 하늘 아래서 한국 군인들한테 당한 월남여인의 비명도 있었
을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도 돈많은 승자의 횡포도 비명을 지르게 한다.

간 떼이가 분 사람들! 남의 비명에 쾌락을 누리는 간 떼이가 분 사람들!

그들의 후손도 어느 때에는 비명을 지르게 될 인과응보의 일이 있을 것이
어늘— 간 떼이가 분 사람들!

전쟁은 간 떼이가 부여야 우수한 전과가 따르는 것인가?

전쟁 승자의 일차보상은 여인들의 희생인 것인가? 배설물의 기구로만 쓰
이는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책임질 자도 없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의 흐름속
에서 자유수호의 희생자로만 기록될 뿐이다.

그후로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양공주가 많이 늘어났다.

그들도 역사적으로는 큰 공로자요 애국자인 것이다.

인류역사는 본능과 간 떼이가 분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인가?

회한한 역사의 흐름은 흐르는 물도 비웃는다!



무덤앞에서

황성군 서원면 압곡리 169 崔 聖 琛

촉촉히 내린 단비로 대지는 바야흐로 춘색이 완연하다.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 이름모를 무덤가에는 춘초가 돌아있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도 한결 부드럽다. 개나리 진달래꽃도 함께 어울려 화사하고 미풍 또한 솔솔 불어온다. 참으로 녹음방초 좋은 계절이다. 문득 맹호연의 시한구가 떠오른다. 그의 春曉(봄날의 새벽)에서

봄철이라 늦잠을 잤더니, (春眠不覺曉)

곳곳에서 새소리가 들리네, (處處聞啼鳥)

어젯밤 비 바람에, (夜來風雨聲)

꽃도 다 졌겠네, (花落知多少)

그렇게 되면 금년 봄도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고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사실 지나가는 봄을 석별하는 감정의 저류에는 즐거운 계절의 아쉬운 감상만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공연히 지나가버린 과거는 확실히 늙어간다는 도래를 고하게 된다.

그래서 무덤앞에 호화스런 석물이 요즘 부쩍 등장하는가 보다. 살아서 못다한 효를 가진 분에게 응보하려는 본성의 流露이다. 예부터 영혼불멸사상은 있어 왔다. 영생을 구하는 노력은 면면히 이어져 모든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다. 사람의 수명은 살아야 백년인데 이 수명이 다하면 서산에 넘어가는 태양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千年萬年 未來 永劫 북망산의 진토가 되어버린다고 옛 중국시인도 읊었다.

즉 세속의 쓸데없는 환락에 비해 북망산의 쓸쓸한 묘지의 비애를 읊어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것이다. 사실 이 광대한 자연과 천지의 유구함에 비해 인생의 영고성쇠는 무상하며 변전함이 끝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무덤앞에 서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몇몇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겠다.

「살아서 이 시대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죽어서 후세에 명성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小學에 적혀있다. 우리의 삶은 1회생이다. 두번 다시 살 수는 없다. 그렇기에 부와 귀는 뜬구름과 같고 순간적이다. 그러나 명성은 영구히 썩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받드는 외물의 의복, 음식, 주거등 재물에 관해서는 훌륭하고 좋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관해서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사실 자기가 원하던 재물을 얻었을때는 도리어 자기의 몸과 마음은 이미 병들어 쓸모없는 것이 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백살 사는 사람이 없는데 부질없이(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나는 이런 저런 상념으로 무덤 앞에서 가히 인생수업을 하였다.

비정의 사회를 유정의 사회로 愛物(物質)思想에서 愛人(人間性尊重)思想으로 자기수양을 쌓아 덕성사회로, 그리하여 인정이 훈훈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人死留名의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차츰 부음이 다가오고 있다. 좀더 선한 인간이 되어 하늘이 부여한 천성을 다하는 것만이 나의 소망의 전부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산을 총총걸음으로 하산하였다.



꿈

황성읍 마산리 308 흥성원

파아란 가을하늘을, 황금 들판을, 우리의 풍요로움을, 한아름 주고 가는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비집고 들어온다.

내 작은 창문에,

어제 못이룬 꿈을 내일에 이어간다.

나의 작은 아이는 지금 국민학교 3학년이다. 27개월이 되었을때야 “아빠” 소리를 처음 할만큼 말이 늦된 아이였다.

큰아이 보다도 이웃집 아이 보다도 훨씬 늦은 아니, 서너살이 넘었을때도 얼마만 알아듣는 소리를 했고 말보다는 표현으로, 행동으로 하는 아이가 걱정도 많이 되었었다.

사과를 달라는 표현은 칼로 자기 주먹을 오리는 시늉을 했고, 귤을 달라는 표현은 손등을 꼬집어 뜯어 자기 의사 전달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어야 할지, 마음아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이 되었었다.

그 아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7발음이 ㄷ으로 되어 주위를 웃길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미리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린후 어느날, 국어시간에 내아이에게 발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 “책상위에는 꽃병이 놓여있고 책상 밑에는 꽃신이 있다.”라는 말을 “책상위에는 〇병이 놓여있고 책상밑에는 〇신이 있다.”로 말을 했으니, 오죽 했으랴.

아이들의 주체못하고 웃어버림과 아이의 울음이 뒤범벅이 된 교실안. 다행히, 선생님이 미리 알고 계셨기에 내 아이의 용감함으로 마무리 지어진 국어시간.

남이 들으면 작은 일이라고 웃어버리겠지만, 나는 눈물이 핑돌며 코끝이 매움을 한번에 느껴 가슴까지 찡했다.

내겐 소중한 아이의 어쩔수 없는 실수를 웃어 넘길수 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장애자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내 아무리 헤아려 보려한들 반이나 헤아릴까. 그 누구도 못헤아려 봄을...

장래 희망이 가수나 개그맨이 되는 것이란다. 내 아이가 그 얼마나 생감도 못하던 꿈이었던가.

잠시 엄마의 욕심을 꿈꾸어 본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내아이의 모습.

멋진 정장차림으로 TV화면을 꼭 채우고 듣는 이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언변술 좋은 인기있는 남자 아나운서.

몇만 관중이 꽉 들어차 있는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내아이의 우렁찬 야구해설 소리. 혼자 웃는다.

발음이 정확치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할때마다 나는 내 아이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릴까봐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러던 아이가 만능 채주꾼이 되겠다니.

나는 내 아이가 꿈을 키워감에 거름이 되리라. 엄마의 욕심도 가해지지 않는 자기만의 꿈이 잘 이루어 지도록 반듯한 길을 열어 주리라.

마음속 깊이까지 저 하늘 구름 속까지 해 맑은 웃음을 소리치고 싶다.

(’92 강원도여성백일장 수필부 가작)

꿈

황성군 청일면 유평리 백 영 아

꿈결에 남편이 막 흔들어 깨웠다.
“여보 정신 차려봐 세상에 이 맘좀 봐”
물속에서 건져낸것 같은 내 모습에 놀란 남편은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 주며 물었다.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소?”
또 묻는 남편에게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꿈 생각을 다시했다.
‘세상에 무슨 꿈이 그렇게 무서웠을까’ 생각하며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잠은 천리 만리 달아나 버리고 머리만 아팠다.
‘아들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걸어 볼까 수화기를 들었다가 깊은 잠에 취해 있을것 같은 생각에 제자리에 놓고 안절부절 이었다.
‘설마 무슨일이 있을라고 다 깨꿈이지 악몽이 길몽이 될 수도 있다는데……’ 혼자 자위를 해보며 헛꿈으로 돌리기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버락이란 말인가?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는 아들이 교통 사고를 냈다는 전화였다.
내가 꿈을 꾸 그 시각에……
세상에 이럴수가 그렇다면 정말 꿈같이 나는 아들의 생명부터 물으며 나도 모르게 온 몸을 떨면서 울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길에 눈이 나쁜 아들은 술 취해 뛰어드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내 자신 얼마나 이기주의 인지 그때 알았던것 같다.
내 자식이 별일 없다는 그말에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었던것 같으니 말이다.

그후 45일 동안 울산을 오르내리면서 뒷수습을 했다.

피해자 가족한테는 요구사항의 합의금을……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속에 살아야 하는데……)

강원도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3~4장의 편지를 때로는 4~5장의 편지를 써 아들이 있는 울산 경찰서 유치장으로 써 보내면 편지지 위에는 항상 주먹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검사님과 판사님께는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다.

아들의 죄를 대신 받을수만 있다면 이 어미가 달게 받겠다고……

모든일이 내가 꿈을 잘못 꾸어 그렇게 된것 같은 죄책감에 혼자 부처님께 울며 빌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모든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미옥한 이 어미가 너무 몰라. 그렇게 된것 같노라고 하면서……

아들한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타 이르고 울산을 떠나 오면서 기차안에서 차창밖을 내다보며 어렸을적 꿈을 생각해 보았다.

어렸을 적에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 꿈도 꾸게되고……

오 헨리의 마지막 인생의 주인공 처럼 창백한 얼굴의 시한부 인생의 소녀가 되어 보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는 꿈도 있었으며 어느 시대에는 천년 만년 살아도 독신을 고수할 것 같더니……

그러나 그런것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자식을 두게된 후 알았다면 남들이 얼마나 웃을까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의 나이 오십을 넘어 머리칼이 희색빛으로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나의 꿈은 남편의 건강과 자식들의 건강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겠나 사람이란 정말 꾸어야 할 꿈은 꾸지 못하고 모두들 헛꿈 개꿈들만 꾸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헛꿈 개꿈이 아닌 실천하는 꿈 길몽을 꾸어야 겠다.

꿈 생각을 하는 동안 기차는 어느사이 원주에 도착하고 있었다.

약몽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신 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힘찬 새 생활을 하리라 생각해 본다.

(’92 여성백일장 군대회 장원)

해 외 동 포

황성음 가담리 박 명 순

하얀 구름 속으로 비행기의 꼬리가 감춰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5년전 둘째 시누이가 이 정든 고향땅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다. 이름도 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결정하고 몇날 며칠을 다시는 못 올것 같은 고국의 마지막 나날을 아쉬움과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냈던 그 얼굴이 문득 보고도 싶어진다.

이민을 떠난지 일년도 채 못되어서 어느날 저녁에 전화벨이 울렸다. “김중학씨 택이죠? 여기는 서울인데 바꾸어 주세요.” 시누이라고는 까마득히 생각도 못한채 무심코 수화기를 그이한테 옮겨주었다. “오빠 나야 나!” 의외로 동생의 목소리를 듣던 그이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를 나무랐다. 잊고 살게 따로 있지 시누이 목소리를 벌써 잊었다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집에 전화를 했을때 일이다. 며칠후 시누이가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언니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오빠한테 전화를 바꾸어 주는게 어디있어? 옛날 애인에게 라도 온 전화면 어쩔려고?”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용어가 스페인어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렵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서인지 얼마되지 않아 말을 잘하더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한인 친목단체 끼리도 패가 갈라져서 보통 어느어느 대학 동문회로 통하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도 끼지 못해 못배운 한을 이국땅에서도 격게 뒀을 슬퍼하였다.

어쩌다가 고국생각에 잠겨 보고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여 머릿속에서 마냥 그리다 제자리를 찾을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생각을 더하여 식욕도 잃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식구들을 불러서 비행기표만 되면 고국에 나왔다 가야지 못 배긴다고 했다. 그래서 시누이는 일년에 한번꼴로 이나라를 다녀간다. 떠날때는 또 그날의 아픔을

반복하면서도 말이다.

이제는 해외동포가 되어버린 둘째시누이. 이민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이민 시절에 굳이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고 형제들이 말렸지만 그들대로 계획과 꿈이 있었기에 정든 이들을 버리고 갔을거다. 생활의 풍요로움과 사회제도의 차이점을 들추면서 이국땅에서 지내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고독하고 빈자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인 지상정이 아닐까?

이제 옷깃을 스미는 소슬바람이 불어오고 그손이 닿기만 하면 오색 물든 나뭇잎이 한잎두잎 거리를 댕구는 계절의 가운데 서서 멀리 떠난 이들에게 이 계절을 알리는 편지라도 띄울까?

(’92 황성주부백일장 입상작)



꿈

황성군 청일면 유동2리 이 정 재

국민학교 삼학년짜리 우리 딸 아이 꿈이 대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란다. 공부하기 싫을때 하는 소리다. 선생님은 숙제를 내는 사람이고 안해 오면 야단 치는 사람이라나.

가슴이 철렁한다. 저 아이가 엄마를 닮아 가는 걸까? 아이야 나도 그랬단다. 엄마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아궁이에 쓸개비를 싹싹 쓸어넣고 모락모락 옥수수를 삶으며 소똥냄새 풍기면서 풀 베어 소 먹이느라. 땀 냄새가 온 몸에 흠뻑 배어 버린 그래서 아무리 비누로 잘 닦아도 땀 냄새가 없어 지지 않는 우리 신랑 기다리는 농부의 아낙이 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과연 어느 만큼의 꿈을 이룰수 있을까 또 몇번이나 바뀔까. 도토리 같은 작은 머리 속에서 샘 솟듯 많은 꿈들이 피어 날테지 아이야 아빠는 말이다 송아지 여 나문마리 더 늘리는게 꿈이란다.

기껏해야 소똥이나 죽어라 더 칠텐데 무어 남는게 있다고……

두엄치고 풀 베다 지치면 냉수로 좌악 등목 한번하고 대청 마루에 나무퇴침 베고 수건한장 깔고 등 대고 누워 코 고는 소리 천정 물러 앉을까 걱정이 되도록 요란하게 한잠 청해 잠이 들테지.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 이 남자의 꿈은 그리도 소박스러울까. 겨우 소똥 치는 일을 늘리겠다니. 이 소박한 남자의 아낙이 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좋은걸 어찌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 지피고 바람이 불면 쏟아져 나오는 연기 내음을 맡으며 눈물 찼끔 짜고 맑은 냇물에 푸드득 세수 한번하고 절래 절래 냇물에 빨래 흔들어 넣고 앞 산에 푸름하니 단풍 들려고 품 잡는 모습 건너다 보며 아 이것이 나의 풋풋한 사는 모습이려오.

당신이여 내게 두엄 치는일 시키려오! 주저하지 않고 하리다. 당신은
내게 산이오 그리고 꿈이려오.

아이야 꿈을 마음껏 펼치렴. 새 하얀 예쁜 꿈들을! 아이야 이젠 엄마의
꿈도 달라졌구나. 농부의 아낙인 엄마의 꿈은 말이다 땀 냄새 가득한 남편
열심히 보필하고 그리고 열심히 두엄치고 풀베기 하는 모습 보면서 지긋이
눈감고 행복한 모습이 될테지. 아이야 잘 보렴 꿈 가득한 엄마의 얼굴을.!

(’92 횡성주부백일장 입상작)



친정어머니께

황성음 입석리 김 용 순

가을입니다. 스산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에 陳서방하고 차를 타고 공근쪽으로 한바퀴 돌았어요 우람한 산에 늘 푸른나무 사이사이로 붉은 단풍들이 어렸하게 물들어 가더군요. 어머니 늘 말씀 하시듯 세상일은 때가 있나 봅니다. 누가 감히 단풍드는 것을 막아 내겠어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지금 연세가 혹 물든 저 단풍때가 아닐까? 하고요. 엄마 더 늙지 마세요 저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겠지요?

제 나이 벌써 쉰 한살, 어쩌면 제가 단풍철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가 더 늙어 지는것 같아서요.

엄마

철없던 시절 엄마를 이해 못해 속도 많이 썩여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였지요 엄마의 꾸지람에 반발해서 아침을 안먹고 학교를 갔더니 엄마가 그 바쁜 속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오셨지요 지금의 학교 풍경으로는 아무런 말 꺼리도 안되겠지만... 엄마 아빠들이 더운밤을 지어 자랴용으로 날라다 주는 지금이니까요.

그러나 그시절에는 대단한 이야기꺼리였어요 혼자서 장사하시면서 바쁜 엄마가.

선생님도 반 친구들도 기뻐 했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학교다닐때 엄마는 저의 생활비와 학비를 날자도 어기지 않고 보내 주셨어요 같은 자취생들 중에 유독 저만 날자 어기지 않고 돈이 송금되어와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 했지요. 분명코 그 애들은 아버지도

계시고 생활도 우리집 보다는 잘 사는 애들이었는데, 엄마 고맙습니다.
애비없는 호로자식소리 안들게 한다고 엄하게 길러 주신 엄마인데도 깊은 생각, 깊은사랑으로 저를 멋있게 길러 주셨습니다. 엄마 늘 말씀하시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의 말씀을 곰곰 생각 하면서 어느새 저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용이가 벌써 대학 졸업반입니다. 처음 태어날때 그렇게도 식구들을 놀라게 하던 녀석이... 산부인과 과장님까지도 "포기하고 새로 낳으실 생각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엄마의 끈질긴 다락방에서의 기도 덕분에 우용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요. 개구리꽃 피기시작할때 태어난 놈이 그꽃들이 다지고 잎이 푸르게 되어서야 의사로부터 정상아의 판정을 받았지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우용이에 대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미되어 엄마의 고마움을 알기 시작하니 엄마는 어느새 80가까운 노인이 되셨어요. 흡사 칼에 손을 베었을때 소금을 뿌린것 같이 저의 가슴이 저리고 아파요. 엄마의 한 평생이 너무 고독하셨고 너무 힘드셨는데...

어려서 아버지 여윈 내 자신의 불행만 생각했지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엄마의 그 슬픔과 기막힘 고독함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를 시집 보내던날 방문을 걸어 잠그신채 남모르게 통곡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덤덤했었지요.

엄마, 남편없이 아들없이 저를 의지했던 엄마를 둔채 신랑따라 가버린 제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선회가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어 갑니다. 선회 시집보내면 나도 울것 같아요. 저는 남편도 아들도 다 있는데두요.

위대하신 엄마

한평생의 그 고통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셨기에 이제 내가 엄마되어 하나 하나 느껴지게 하신 엄마.

크고 우람찬 단풍든 산을 보고 엄마 생각나서 이렇게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1992년 11월 14일

황성 딸 용순 드림

동화

사랑도깨비

김 양 수

쪽빛 하늘 만져보려다 햇살의 눈총만 받고 노오랗게 물들어버린 고운 은행잎, 그 은행잎이 가없이 산들바람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루종일 가지를 흔들던 어느날 엄마는 은행잎 초대장을 내게 보내왔다.

엄마가 생일선물로 사다준 <조그만 사랑얘기>라는 책갈피 속에 끼워있는 은행잎 위에는

<다연아, 1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밤 예쁜 달님보러 별장으로 오거라, 기다리마 - 다연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듯 웅기종기 모여있는 글씨들이 나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쉽게 끌고갔다.

엄마가 기다리는 별장으로 가면서 나는

'예쁜 달님이 무얼까?'

그 말을 몇번씩 속으로 반복해 보았지만 쫓히는게 하나도 없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은 분명 아닐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떠올랐을 뿐이었다.

별장은 풍선처럼 부풀은 궁금증 만큼이나 찬란한 오색등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은촛대 위에 촛불 하나가 엄마 얼굴을 흐미하게 잡고 있었다.

김양수/ ○ (1953. 2. 22 황성, 우천, 산전리 출생)

○ 정금국, 원주중, 원주고, 춘교대 주

○ 1984 강원일보 신춘문예당선

○ 1984 아동문학평론 추천완료

○ 저서<생각하는 배나무>

○ 직장 : 춘천군 서면 서상국민학교

“엄마, 딴 세상에 온 기분이에요.”

나는 엄마 옆에 앉으며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분위기가 마음에 드니?”

“들다말다요, 내 생애 최고의 생일 같아요, 그런데 예쁜 달님이 뭐예요?”

나는 엄마 목을 두 팔로 감아쥐고 외동딸의 재롱을 마음껏 피웠다.

“다연아, 너 사람의 말을 본 적이 있니?”

갑자기 엄마가 불쑥 그 말을 꺼냈을 때

“사람의 말이 어디 있어요? 날 놀리려는거죠?”

나는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렇지만 은행잎 초대장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알 것만 같았다.

“여자는 어른이 되면 매달 말을 한 개씩 낳는단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을 안하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엄마가 이상하게 보여서 반신반의하는 어조로 되물었다.

“너 놀라는 눈빛이구나”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설마...?”

내가 무엇인가 물어보려다 흐지부지 말꼬리를 흐려버리자 엄마는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여자로서 너도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 알건 알아야 한다.”

하고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엄마의 표정이 아주 진지했을 뿐만아니라 엄마는 산부인과 전문의사였으므로 나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서게 되어서

“엄만 진짜 사람의 말을 보셨어요?”

하고 엄마 가슴에 폭 파묻혔다.

엄마는 내 등을 손으로 쓸어주시며 자신있게 귀엣말로 소삭였다.

“보았으니까 네게도 보여주겠다는거 아니니.”

“우리 엄마가 최고야, 어서 보여주세요?”

“물론이지”

콩닥콩닥 방망이질하는 가슴으로 나는 슬라이드에 스위치를 넣는 엄마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드디어 스크린에 예쁜 달님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야! 정말 멋지다! 저게 여자의 알이란말이지요!”

오색등불과 촛불, 캄캄한 밤하늘 그리고 달님같이 예쁜 여자의 알을 바라보며 나는 도깨비에 홀린듯 몽롱한 채로 앉아 눈빛만 반짝거렸다.

“그런데 사람의 알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거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야 나는 제정신을 찾았다.

“야구공 정도요”

“눈으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란다.”

라고 엄마가 고쳐주었다.

“13년 동안이나 자란 것이 겨우 그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나는 동화의 나라에 와 있는듯 조금씩 새로운 세상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밤새도록 여자에 대한 신비스러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비밀약속도 했다.

참으로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놀랍고 황홀한 밤이 아쉽게 흘러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낙엽을 앞세우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섰다.

웅덩이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어느 보름날 밤이었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창밖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누군가 창문을 기웃거렸기 때문이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누구시냐고요?”

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야, 예쁜 달님!”

오동나무 가지 끝에서 오들오들 떨며 달님이 말했다.

“달님아, 난 지금 바쁘단말이야.”

그렇게 핑계를 대보았지만

“다연아, 문 좀 열어줘”

달님은 다급하게 애원을 했다.

“싫어, 추워서 안돼”

나는 거북이처럼 목을 어깨 속에 깊숙히 감추며 또 저절했다.

“오늘이 내가 어른이 되는 날이야. 너를 축하해주기 위해 빨간바지를 선물로 가져왔단말이야. 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귀를 통해 가슴에 닿는 순간 나의 눈빛은 별빛보다 더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몽롱한 기분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머리까지 멍하고 어지러워 오는걸 잠시 느꼈을 때 달님은 길쭉하고 하얀 손을 내 앞에 가만이 내밀었다.

“나도 달속에 들어가고 싶어, 예쁜 달님이 되고 싶어!”

나는 잠꼬대인 양, 헛소리인 양, 거듭 그 말을 되풀이하다 창문을 열고 달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꿈속인 듯 아득히 구름 속을 미끄러지며 나는 하늘 높이 떠올라 달님집에 초대되었다.

달님이 사는 집은 계수나무 숲속 한복판에 자리잡은 동그란 궁전이었다.

꽃불처럼 치솟는 분수대를 돌아서 은빛 찬란한 복도를 지나서 나는 엄마랑 밤새도록 사랑얘기꽃을 피우던 별장과 똑같은 분위기가 감도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다연아, 빨간바지를 입었으니 너도 남자친구를 갖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보니 내 속마음을 다 읽고 있구나.”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여기선 나를 <사랑도깨비>라고 불러줘.”

나는 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으나, 아픈건지 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정신이 아니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어서 말해봐.”

“알았어, 사랑도깨비야, 상혁이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거든 그 애와 사귀고 싶은데 넌 어떠니?”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랑도깨비는 입으로 파란연기를 서너번 뿜어내더니 상혁이로 변해버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상혁이의 손에 이끌려 지난번에 봄소

풍을 갔던 포동개울로 갔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나는 코를 막아야만 했다.

“상혁아! 왜 여기로 날 데리고 왔니?”

“여자가 말이 많구나, 남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되잖아.”

상혁이가 험상궂게 쏘았으므로 나는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은 채 꽃 꺾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상혁이는 꽃을 마구 꺾어서 나에게 주면서

“여자는 꽃만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 하던데 너도 그렇냐?”

하고 말한 뒤 땅바닥에 툄툄 침까지 뱉었다. 그것 뿐이 아니었다. 소변까지 아무 곳에다 보는 모습을 보니 한심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공부 잘하면 최고냐! 난 네가 싫어!”

하며 나는 도망치듯 뛰었다. 뛰따라온 사랑도깨비가 앞을 가로막으며

“다연이는 남자친구 보는 눈이 형편없구나, 다음번으로 네 마음속에 넣고있는 남자에는 누구니?”

빙그레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재촉을 했다.

“사랑도깨비야, 이번엔 틀림없으니 두고봐라, 우리 반에서 얼굴이 제일 잘 생긴 미남인 진국이를 사귀겠어.”

그러자 순식간에 사랑도깨비가 빨간 불을 컷구멍으로 두어번 뿜어낸 후, 칠판의 두 배나 되는 영사막으로 변해버리자 진국이네 집이 영화처럼 나타났다.

“진국아, 슈퍼에 가서 두부좀 사올래.”

“싫어요, 진숙이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요.”

“진숙인 방청소 하고 있잖니?”

“청소 나중에 하라고 그러세요, 난 만화영화 봐야돼요.”

조금 일그러진 나의 얼굴을 확인하고 막을 거뒀버린 사랑도깨비는

“자, 어쩌나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싫어하는 진국이는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잖니?”

사랑도깨비는 분명 나를 깔보고 있었다.

“내 눈이 빼었나봐, 미안해 사랑도깨비야, 그럼 키크고 운동 잘하고 힘

이 장사인 동규랑 사귀면 어떻겠니?”

“조금있다 말하기로 하자.”

하더니 이번에 사랑도깨비는 노란불과 연기를 콧구멍으로 한차례 쏟아놓고 타임머신으로 변해 나를 태우고 20년 후 세상으로 곧장 달려갔다.

신부가 된 나는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이 잔뜩 취해 새벽녘에 돌아온 동규에게

“일찍 좀 다닐수 없어요?”

그 한 마디만 했을 뿐인데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하면서 따귀를 올려붙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타임머신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다연아, 넌 남자친구가 그렇게 없니.”

사랑도깨비 말투가 맘에 안들어서

“누구든 나쁜점과 좋은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

나는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화까지 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느 쪽에 비중이 크냐를 따져봐야 돼.”

“그럼 우리 마을에서 최고 갑부인 영익이는 어떻겠니?”

나는 자신있게 영익이를 점 찍었다.

그러나 사랑도깨비는 마음이 상했는지 그 즉시 말을 받았다.

“다연아, 너 지난번 미술시간에 영익이한테 그림물감 빌리려다 망신만 당한 적이 있었지?”

“응”

“그런 지독한 이기심이 좋다는건 아니겠지?”

“그럼 나도 몰라”

나는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지만

“너는 진용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사랑도깨비는 상담 선생님처럼 조용조용 캐물었다. 뜻밖에 사랑도깨비가 진용이를 골라주었지만 나는 썩 내키지가 않아서 통명스럽게 말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공부도 보통이고, 키는 작고, 집도 가난하고, 힘

도 약하고 그 정도 뿐이야.”

“그럼 이제까지 네가 마음에 든다는 아이들과는 영 판판이로구나.”

“그런 셈이야.”

나즈막한 소리로 동의했다.

“그렇다면 진짜 진용이 모습을 보여줄테니 결정을 네가 내려”

자신만만하게 힘 주어 말하며 사랑도깨비는 사랑방망이로 내 머리를 힘껏 때렸다. 그 순간 나는 부인이 되었고 사랑도깨비는 남편이 되었다.

교통사고로 양쪽 눈을 다쳐 장님이 된 나는 병원 수술실에 누워있었고 남편은 의사선생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애걸하다시피 조르고 있었다.

“의사선생님, 저의 한쪽 눈을 부인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그 쯤에서 사랑방망이에 다시 얻어 맞은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다연아 저 정도면 마음에 드나?”

“진용이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는데.”

“역시 넌 계산적이구나, 진용인 남을 위해 봉사하는 어떤 직업을 택할거야.”

“그것은 나도 인정하겠어. 신문을 돌려 벌은 돈으로 자기보다 가난한 아이를 도와 어린이날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너도 진용이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텐데?”

“내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찾아준 적이 있었어, 5학년 남자 애들이 날 놀릴 때 타이른적도 있었고, 내가 유리창을 깬 때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셀 수도 없어, 더 이상 묻지마.”

“그럼 진용이와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뜻이야?”

“사랑도깨비아, 너 아니었으면 좋은 친구를 놓칠뻔 했구나, 고맙다.”

나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자존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다연아,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흔들며 깨웠을 때, 나는 겨우 눈을 떴다. 머리맡에는 달님이 준 빨간바지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엄마, 지난번 별장에서 비밀약속한거 생각나지요?”

“남자친구 얘기구나, 누구로 정했니?”

“만나보면 알아요.”

“네 마음을 속 뺏아간 그 애가 누군지 나도 빨리 보고싶구나.”

“오늘 초대해도 괜찮아요?”

“근사한 만찬으로 대접하마.”

“실망은 안할거예요.”

하면서 빨간바지를 끼워입은 나는 짱총짱총 학교로 달려갔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잡아당겼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않고 뛰었다.

하늘에선 깨끗하고 하얀 눈송이가 축복처럼 쏟아져내렸다.



화(火)

횡성 서원(압곡)국교 정재영

「무슨 팔자 기막혀서, 극지랭이 짙어지고
이 산중에 들어 와서
곧은 멍에 걸어 놓고, 소 두 마리 매어 놓고
발갈이를 하는거나,

한치(汗치) 뒷산 곧드레 딱주기,
입의 맛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 살아 나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벧창잘 잡아 뜯는 황영감의 메물푸저리 타령이, 혼(魂)일랑은 솔골 화전
밭에 말짱 빼 놓고, 빈 몸뚱아리만 허우적 거리며 걷고 있는, 화전민(火田
民)들의 텅 빈 가슴에, 날 선 검(劍)이 되어 꽃혀 졌다.

빗살 처럼 달빛은 차갑게 노루목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돌목발엔 얼추 자란 하얀 메밀꽃들이 창백한 달빛에 훈장(勳章)처럼 반
짝 거렸다.

“하- !

고놈덜 냄새 하군, 아- ! 솔골 막바지를 메물 냄새가 온통 뒤 흔들어 쌓
던 그땐 참 좋았었는데……”

솔골의 산메지기(山堂긋)는 매년 정월이면 연례행사 처럼 벌어지곤 했
다.

물론, 그날은 손이 없는 아흐레나 스무날로 받아 졌다.

원혼귀, 몽달귀, 수살귀, 역마살귀, 주당살귀……

사방 그 어떤 손도 넘보지 않는 날이래야만, 그들은 안심하고 동네를 송

두리چه 뽑아다 산신님께 바칠수가 있었다.

쌀 서말 서되 서흙이 정갈스럽게 오지시루에 담겨져, 풀풀 김을 뿌려가며, 흰무리가 되어 갈때 쫄, 동향으로 뻗은 소나무가지를 잘라 만든 신장대엔 문창호지가 칭칭 감겨 떡시루에 꽂혀 졌다.

네발 묶인 통돼지가 술골 막바지 대판(臺板)으로 올려짐을 시작으로, 산메지기는 빵빠라방 막이 올랐다.

풍물패들은 알뜰알 해진 막걸리 기운에, 초작부터 신명이 잡혀 징소리 뽕매기 소릴 골타데이에 내 질러 댔다.

“매화, 덕고, 태기산 자락에 높을시고, 산신-니임, 북두칠성 칠성-산신-니임, 북두칠성 칠성-니임

부디, 부디 우리 술골 가엸비 살피시어, 들민 날민 복이요.

삼신할매 점지 하심에 자자손손 번성이요, 알뜰살뜰 살피심에 우마 가축 번창이요.

남풍 동풍 순풍자락에 화투(화전민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불씨)불씨 불기둥이 세세토록 임하소서 임하소서……”

복재노인의 가슴을 해집어 뜯는, 구성진 가락이 술골 화전민들의 만가지 바람을 싣고, 신명 잡힌 풍물꾼들의 푸저리 가락에 맞춰, 푸르른 향 연기를 따라 하늘에 날아 올랐다.

마을을 넘나 보는 온갖 것들을 물리치기 위한 액막이로, 네발 묶인 통돼지가 마을 청년들의 창(槍)날 아래 거덜이 났다.

“선창(先槍)이요!”

“후창(後槍)이요!”

첫소릴 내며 햇빛에 번쩍 거리는 창날이 돼지 먹통 위로 날아갔다.

부정한 모든 것을 씻기 위해 돼지 먹통 위에서는 새빨간 피가 팔팔 흐르며, 이름하기 어려운 무수한 꽃들을 허공중에 흩뿌려 댔다.

창날은 수없이 돼지 먹통 위로 꽃혀지고, 산당(山堂)은 온통 새빨간 피로 얼룩이 졌다.

귀밝이술이 마을의 연장자들을 시작으로, 잠지에 숨털도 채 안 벗은 얼라들에게 까지 끌고루 돌려 졌다.

신명은 잡혔었다. 풍물소린 골타데이를 뒤흔들어 대졌다. 마을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독여 왔던 신명들을 넓다 잡아 제켜 놓고는 어깨죽지를 뒤 흔들

어 됐다.

그중에서도 온몸을 실루덩 거리며 메저 데는 덕만(安 德萬)이의 징소리는 제일 신바람이 나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올 가을이면 솔골 가근방선 인물 좋기로 소문이 짝한 황영감네 외동딸 선희와 백년가약을 약속 해 논 터수니 아니 좋고 그 무어라!

자지러질듯 쏟아지는 풍물 가락에 니미랄거 세상은 돈짜만 하게 보여지고, 산메지기는 막바질 향해 숨가쁘게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뺨 본 개구락지 마냥 덕만의 징소리가 '툭-' 숨을 멈췄다.

마을사람들이 갑자기 웬일이냐며 쓰악한 얼굴로 일제히 덕만을 바라보자, 덕만이는 대답 대신 정채 든 손을 들어 산뿔 모롱가지를 가리켰다.

"아니-! 저 작자가 웬일로 이곳엘 다……"

"변 창일"

바로 그 작자 였다.

솔골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참깨밭에 꺾망아지 보듯하는 변영감이 낯선 양복쟁이 들을 앞세우고, 휘적휘적 그들을 향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아이구야, 변주사가 웬일이당가, 산메지기 판에는 발신양도 안하드니…
… 오래 살구 불일이야"

"허-싱거운 사람하군 아따- 난 왜 못 올 자린가, 예또 거 뭐시냐 나 솔골 산림계 계장 변창일이 여기에 오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고 중차대한 일로 군에서 출장 나오신 두분을 안내 해 드리려고 이렇게 들린걸세"

"아침나절부터 이적지 마을을 핀담해도 마을사람들을 찾을 수 가 있어야 지 윈, 물어 물어 빠지게 올라왔지 군산림과에서 나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불일들이 있다는 구먼 그라"

"군산림과 이 천우 과장 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화전정리계 김 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사가 나발이고 산림과 어찌구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눅이 짝 들어, 빈 방에서 바지를 까 내리고 용두질을 치다 들킨 선 머슴아 마냥, 금새 똥 먹은 얼굴이 돼 버렸다.

“산림 간수 ! ……”

화전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최판관이였다.

밀주단속반인 술조사(흔히 그들은 밀주단속 세무공무원을 그렇게 불렀다.)가 무섭네 어쨌네 해도, 산림간수에 대면 거 시쳇말로 조족지혈이요, 모기다리에 워카 였다.

까짓 밀주 서너말, 누룩 몇장 땡세나 봐야 벌금 기만원이면 쇼블 봤지만 산림간수에게 동티가 났다 하면 그야말로 단매에 작살이 났다.

“에-또 거 머시나, 이 양반들이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술골의 화전정리 까탈로 오셨다구먼”

“뿔-! 화전정리?”

누구 초상 나는 꼴 볼려구 어따 대구 하는 소리당가 영,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이……

그럼 쉬운말로 해서 우릴 말짱 이곳으로 내몰자는 거여?”

변영감과는 어릴적 부터 동갑내기로 같이 자라, 말을 놓고 지내는 황영감이 뜨악한 얼굴로 다그쳤다.

“아따- 그사람 성급한거 하군, 우물에서 승능 찾을 사람이네 그라……

화전민 잘 살게 해 준다는데 웬 성화여 복에 겁게스리……”

마을 사람들은 이마뺨에 찬물을 끼얹은듯 술이 꼭지부터 ‘뿡까닥’ 깨 달아났다.

산림과장은 엄하다 놓친 놈처럼 시퍼렇게 찢어붙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초도순시 업무 현황 브리핑 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동작으로 화전정리 사업내용을 내리 읊어 댔다.

“우리 도의 화전 총면적은 29,709ha에 41,498가구의 화전민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불명예 스럽게도 전국 최고 입니다.

화전으로 인한 막대한 산림피해는, 저보다도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사료 돼 생략 하겠습니다. 1973년 범국가적인 “화전정리법”이 제정 되어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앞으로 전개 될 중차대한 화전정리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그의 히떠운 얘기는 그후에도 꽤나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솟증 난 시에미 쳇머리 흔들 듯, 으등그러진 마을 사람들 귀에 그 작자 얘기가 씨아리 맥힐리가 만무했다.

솔골 사람들의 산메지기를 무참히 파토 내킨 그들은, 볼장 다 봤다는듯 변영감을 따라 휘적휘적 산을 내려 갔다.

마을 사람들두 하나들 산메지기구 뭐구 다 물건너 갔다는 듯, 뿔뿔히 산을 내려 갔다.

보쌈 기다리는 여편내 마냥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폭풍우에 얼이 빠진 마을 사람들은, 산지당골 동박꽃이 노란 눈망울을 터뜨려 메물풀 시기가 다가 왔다고 성화를 부려싸도 모두들 일손을 놓고 있었다.

유독 복재노인만 日政「甲山화전 사건」때도 살아 남았는데, 설마 개명한 요즘 세상에 즈놈덜이 어찌겠냐며 똥뱃장을 부려 댔다.

1921年 6月

함경도 甲山 화전민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방화사건은, 웬만한 사람들은 '쉬쉬'하고 그냥 지나 갔지만 정말 끔찍 했었다고 한다.

산림보존 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일본놈들은 세상 모르고 잠든 화전민 오두막을 복날 개 끄슬르듯 불을 내 질러댔다.

그날,

조상이 돌봤는지 그 난리통에서도 복재노인만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 곳을 빠져 나왔다고 한다.

그후 배운 짓거리의 못 버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늙으막에 이곳에 찾아 들어 터를 잡았다.

화전정리지를 가려내기 위한 측량반이 머잖아 솔골엘 들이 닥칠 거란 좃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솔골 사람들은 똥끝이 타 저마다 맘속으로 '깡'소리를 내질러 댔다.

줄베기(등기부에 등재 된 땅)와 경사 20도 이하 땅만 이번 화전정리에서 빠질뿐, 그 나머지 모자리 걸린다니 솔골 꼴타데이 어느 집구석치구 온전한 놈이 있겠는가?

변영감은 '그들두 사람인데 어찌 그만한 융통성이 없겠느냐며' 독약(?)만 적당히 쓰면 잘 풀릴 거라고 요살을 떨며 교계비 명목으로 집집을 돌려 통종골과 닭모강질 비틀어갔다.

원래 그런데는 도가 튼 작자라 사람들은 별말없이 그에 따랐고, 몇몇은 별도로 그작자를 찾아가 수를 쓰기도 했다.

일정선¹⁾ 작업은 정밀한 항공촬영을 바탕으로 진행 돼 갔다.

「에어로콘-맨다 680F」 비행기가 고도 1,000m 상공을 나르며, 마치 송골매가 먹이를 찾아 숲을 뒤지듯, 화전정리 예정지를 「DC8*15/23」 카메라는 정밀한 항공촬영을 해 나갔다.

현상 인화된 한문치의 컬러사진이 김서기에게 전달된 것은 항공촬영이 있는 뒤 이레째 되는 저녁때였다.

사진은 마을의 변소까지 보일 정도로 정확하고 선명했다.

김서기는 벌기 먹은 송아지 엉덩짝 마냥 군데군데가 시뻘겍게 벗겨진 화전지 마다 코드번호를 붙이고, 빨간 싸인펜으로 화전정리 예정지를 표시해 나갔다.

지적계 측량기사들을 대동 해 가지고 김서기 일행이 솔골에 들어닥친 것은 변영감이 예고했던 날짜보다 사흘이 더 지난 아침나절이었다.

측량반은 우선 경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핸드레벨, 크로노미터를 작동시켜 점과 선분을 이어가며 화전정리지가 될 일정선을 그려 나갔다.

물론, 줄베기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일정선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되리라 예상 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두 그날 측량에서 솔골 어느 집구석두 구제되지를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귀살머리스럽게 측량패를 따라 다니며 애교를 떨고, 따리를 붙어 봤지만 말짱 허사였다. 융통성이고 나발이구 그런건 애당초 어렵 반푼어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작자,

벤데이 같은 변영감 소유의 수 많은 산발들만이 쌀미꾸리 뭐 빠지듯 줄베기로 둔갑이 돼 교묘하게 일정선의그물을 벗어났다.

그 작자는 화전정리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 하자마자, 이미 오래전에 자기 소유의 산발들을 정식으로 불하를 받고, 지목변경을 해 등기를 내 놨던 것이었다.

“씨발놈- 너구리 같은 영감탱이……”

1) 일정선 : 화전정리를 위해 경사 20도 이상인 지역에 그어 놓은선

사람들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걸어가는 변영감 뒷통수를 향해 한마디씩을 맥어댔다.

변영감이 술골 가금방 수십리를 쥐었다 폼다 할 정도의 기름종이(유지)로 부상하게 된것은, 돈이라면 마누라 치마 속 밀천까지도 잡혀 먹을 천부적인 끼 닷도 있었지만, 호랑이 담배먹던 자유당 말기의 산림정책 덕분이였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식량 자급자족이란 목표아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지(山地)를 계단식으로 개간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었다.

개간비는 개간비 대로 따로 지급 됐으며, 미국산 48호 도입 양곡까지 대량으로 개간사업에 투자 됐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변영감이 놓칠리가 없었다. 그는 영문 모르는 산주들로부터 평당 7,8원에 산을 사 들이곤 쟁쟁하게 정부에다 개간 신청을 냈다.

막대한 액수의 개간비는 변영감 수중으로 날아 들었고, 48호 도입양곡이 그의 창고에 그득 쌓여 갔다. 그는 개간보다는 나무 팔어 먹는데 주력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장개간을 실시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 확인차 들리는 담당직원을 현장 갈 틈도 없이 붙들고 늘어져 독약을 처 바르고 지지고 복곤 하였다.

「평-평」반출검인이 그의 심복 인부 손에서 몇대로 찍혀져 갔고, 며칠후면 그 나무들은 엄청난 돈이 되어 변영감에게 되돌아 왔다.

그는 그렇게 굵어모은 돈을 화전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사용했다. 화전민들이 가장 원수로 여기는 보릿고개에 선심쓰듯 장리쌀을 퍼 돌려 주고는 가을 타작마당에서 이자에 이자가 새끼를 친 장리쌀을 칼같이 채가곤 했다.

물론, 가을 가서도 장리쌀을 못갠자에겐 인정사정없이 땅문서를 가로채 갔다.

손바닥만한 술골이 그작자의 장리쌀로 거덜이 났고, 몇해 안가 인근 마을들도 그의 두손안에서 놀아 나게 되었다.

날고 기는놈 다 제치고, 학벌도 줄도 뺄도 없는 김서기가 뜬금없이 산림과 발령이 떨어지고, 화전정리 대사이어 그의 손에 쥐켜 졌을때, 그는 고등이판에서 오판에 피박을 씌웠을 때처럼 정신이 멍해졌다.

그는 이번 기회야 말로 평생 끝발이라곤 없는 말단 면서기도 어쩌면 막을

내릴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구원의 방주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칠 각오로 화전정리 사업에 심혈을 쏟았다. 더군다나, 부임 첫날 과장이 그에게 은밀히 귀뜸한 얘기는 더욱더 김서기를 들뜨게 했다.

“평생 두번다시 못 올 기회라구, 이번 사업만 성공리에 끝맺게 되면 위에서도 실무자들에게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는 믿음만한 소스가 들어 왔대구, 열심히 뛰어 봐, 자네 덕에 나도 만년과장 때쯤 벗자구”

김서기에겐 밤낮이 없었다. 죽지않을 만큼 한옹클씩 눈을 붙이는데만 밤이 필요할 뿐이었다.

당구세 미친놈 젓가락작까지도 큐대로 보인다고, 김서기에겐 세상이 온통 화전정리 사업장으로만 보여졌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화전정리 하러 태어난 놈 같다고 슬며시 빙긋거리며 능갈칠때도 그는 오히려 어깨와 모강지에 힘이 주어졌다.

참새 X하듯 힐딱거리다 초작에 마누라 감질만 내키고 바지를 추스리며 일어서는 그를 향해 마누라는 단내가 확확하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독을 썼다.

“화전정리지 나발인지 뎀에 좋던 물건 강건너 갔군요. 난 미치겠는데...”

그렇지만 김서기는 그런일 따위에 조금도 낭패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며칠에 한번이지만 마누라 한테 할애하는 그시간까지도 그에게겐 아까운 노릇이었다.

“엠병할, 지금이 어느뎀데 한가하게 노닥거리며 마누라 배나 타-?”

관공서 문턱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서두, 화전민인 덕만이가 군청 산림과 현관문을 “드르륵” 열었을때, 온몸을 엄습해 오는 그 어떤 힘 그를 초작부터 열게했다.

“저- 술골 사는 송 덕만이라는 사람인데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그래요. 잠깐 앉으시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 김서기님- 다짜고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리지만도 못한 술골 화전민들 한번만 봐 주십시오. 네- 즈동네 화전정리 사업에 어떻게 인정 좀 베풀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희 화전이나 파먹는 무지랭이들은 그곳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답답한 양반아 그게 어디 사사로운 인정으로 될 문젠가, 국가정책의 흥망이 달린 대사업에 개인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 줄 수 있겠오?”

“물론 저희들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 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전정리 이의신청서』와 『진정서』 30통을 마을을 대표하여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발 김서기님께서 높은 분들께 잘 말씀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신청서요?— 그럼 범국가적인 화전정리사업에 반델 한단 말이요?”

“저희들이 왜 반델 합니까? 옛말에 도둑놈두 쫓겨 갈 구멍을 보고 쫓으려다구, 평생을 못 박아 산 땅을 하루아침에 버리구 가라면 저희들은 어찌 합니까? 네—”

“이주 화전민에 대한 사후대책은 정부당국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해도 시답잖게 화전떼기 파는 것보다야 백번 낫걸요.”

“그래요?……”

“이주자에 대해서는 이주비조로 가구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새 이주지에 서의 생활도 적극적으로 보장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김서기님네도 고향에서 노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니 그런건 뜬금없이 왜 묻죠.”

“그래요 나도 농사꾼 아들이. 그거와 화전정리와 무슨 관계라도 있소?”

“김서기님 부모님이 늙으셨는데도 왜 고향을 떠나지 않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다.

몇번이고 주위사람 보기 뭐하니 집과 농물 정리하고 읍으로 나오라고 김기사는 말씀드렸었다. 그러나 노부모님들은 일없다며 고집을 부리시곤 하였다.

“엎병할 녀석 갑자기 고향애긴……”

“김서기님.”

그것은 먼옛날 선조때부터 우리네 밭줄 속을 면면히 흘러 내려온 땅에 대한 끈질긴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뿌리일지도 몰라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이러한 땅에 대한 신앙(?)심은 찾을 수 없을거예요.

세상에 믿을거라곤 오직 땅밖에 없었던 그네들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딸 자식을 지주에게 바치면서까지, 땅을 떼이지 않기 위해 피눈물나는 투쟁을 해 왔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솔골 화전민들도 앞산 뒷산에 조상을 묻고, 또 언젠가는 자신들도 영원한 휴식을 위해 땅에 묻힐 그곳에다가, 나름 대로의 뿌리들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끈질기고 억센, 삼줄같은 뿌리들요. 뿌리가 뽑혀진 식물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처지로요, 물론

요즘 많이 배운 농사꾼들처럼 뽑혀진 뿌리도 발근제 바르고, 흙갈이 하구, 토양소독제 뿌리면 다시 소생할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네들 마음속 뿌리완 전혀 다르답니다.

맹세코 더이상 화전불타원 지르지 않겠습니다. 솔골서 내몰림만 면하게 해 준다면 모강질 길고 산을 지키겠습니다. 산은 저희들 몸입과 동시에 살아 쉼쉬는 신령입니다.

사실, 말이 났으니 얘기지만, 지금 우리들 부쳐먹은 산발만 해도 허가만 안났다 뿐이지 줄맞은 땅이나 다를게 없어요.

산악국가인 조선팔도 농토치구 어느게 산 깎지 않고 만든 땅 있습니까? 무식하고 세상 돌아 가는 걸 몰라서 그들은 허가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못 밟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산속에서 부데기나 일구고 살던 화전민들이 평상 하던 그짓거리 버리고 어디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공장 일ियो? 영세민 취로사업 잡부 노릇이요? 안돼요. 그들은 못해요.

온 몸에 폭 썰어 붙은 메물푸저리 냄새땀에 안된다구요, ……”

덕만이는 말끝을 휘감치지 못하며 끼이끼이 울고 있었다.

이적지 세상살며 꼭꼭 참아 왔던 가슴 속에 서리설켰던 한(恨)의울어들 이 터진 붓물처럼 흘러넘쳤다.

김서기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아슴아슴 내려지는 어둠 저권으로 날개죽질 축 늘어트리고 사라져가는 그의 암울한 모습 위로, 고향에 홀로 계신 늙으신 부모님 얼굴이 얼비쳤다.

기나긴 겨울밤을 해소기침으로 하얗게 패는 아버지, 이젠 김불냥구한짐에도 허리가 휘청거리신다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면서도 한사코 고향을 못떠나시는 당신의 그 고집을, 김서기는 멀어져 가는 덕만이의 뒷모습에서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였다.

“이 사람아-뭘 그리 얼이 빠져있나?”

“아니예요. 과장님 일찍 들어오셨군요.”

“응- 뭐 별다른 일 없었지”

“네,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방금 송덕만이란 젊은 친구가 「이의 신청서」와 「진정서」를 한몽테기 갖다놓고 갔어요.

술골을 대표 해서요.”

“뭐-! 「이의신청서」라 망할 자식, 헬줄 아네 빌어먹을 녀석 다 즈들 위한 일들인데 왜들 설치고 안달들이여, 생각할것 없어 합당한 이유없는 「이의신청서」백날 올려봐야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다구, 괜히 멧놈 영구력 쓰는데 맘 흔들림 안돼.

이번 사업은 자네나 나나 모강지가 걸린 사업이야, 널모래 일정선에 서울 경제표주 점검이나 철저히 해 두라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날밤 김서기는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폈다.

「꺼이 꺼이」목을 꺾던 덕만의 얼굴이 술잔 위로 알쩍거리고, 해소기침에 밤을 패는 아버지의 가녀린 허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술이 떡이 되어 돌아온 그는 세상모르고 곤히 잠든 마누라를 들깨워선 전회구 나발이구 없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물기없는 마누라 그곳에다 거칠게 달근질을 해댔다. 평소 2,3분을 못버티는 싱겁게 끝장을 내버리던 그가 무릎팍이 까져 얼얼해지도록 나뒸는대도 끝을 보지 못하고 제풀에 질려 마누라 배위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전혀 예상 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서도 생각보다 그들은 단수가 높았다.

그들은 충혈된 두눈에 시퍼렇게 붉은 커가지고서는 경제표주¹⁾를 서울 땅에 큰 댓자로 누워 육탄전을 벌였다.

“이 늙은이 몸뚱아리에다 경제표준지 화전못해 먹는다는 세면조가린지 설칠 하라구요. 내 몸뚱아리도 화전발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 양반보게, 정신이 나갔나 정말, 공무집행방해죄로 훈구명이나야 정신 차리겠소”

과장이 서술이 퍼래가지고 야단야단 했지만, 그들은 소죽은 귀신마냥 꿈쩍도 안했다.

1) 경제표주 : 화전정리시 일정선을 표시하기 위해 시멘트로 만든 사각형 표지판 「화전금지」라고 써 있음.

“이보라구, 과장양반 우린 당신네 하는 일에 눈꼽만큼도 방해 안했수, 괜히 생사람 잡지 마슈”

“이영감이 지금 누굴 놀리나, 늙은이면 늙은값을 해야지”

“왜 늙은이가 바른말좀 하니 뱀이 뒤틀리는가 보군, 왜들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구”

“뭐 이런 영감탱이가 다 있어, 씨발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래니 나원……”

그렇지 않아도 그날 작업량이 많아 종일 세빠지게 뛰어도 될지말지 하는 판국인데, 일 개시부터 파도가 나게 생겼으니 과장은 은근히 열이 치받쳐졌다.

또한,

무식이 일친다고 이런치들은 침부터 유하게 다루면 기어오르려고 하는것을 잘 아는 과장인지라, 노소불문하고 초작부터 강으로 내몰았다.

“뿔- 어찌구 어찌 당신 산림간수면 다야, 당신 눈에는 애, 으른두 안 봐여?”

“나 즐베기 한꼬레이 없는 순 화전민 송 덕만이요. 저기 땅바닥에 누워 계신 황영감님 장래 사윗감이기도 하구요.”

“오라 이 작자가 바로 전번 군에 들어 와 「이의신청서」어찌구 하며 시건방을 떠 자식이로군. 그래 똑똑한 친구니까 잘 알겠군. 지금 당신네들이 저 지르는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아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뿔! 임-마 말 다했소 정말……”

그순간

이글거리는 덕만의 두눈에서 보는 이의 더운 피를 얼어 붙게하는 섬찝한 시퍼런 불빛이 빛을 통겼다.

마을 사람들은 불같은 성미의 덕만이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애 똥끝이 났다. 살얼음판 같은 숨막히는 긴장이 팽소릴 내며 산림과 직원과 마을사람들 사이를 오고갔다.

삼을 거머 쥔 덕만의 두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마을사람들도 이제 여차하면 산림간수와 나발이구 없다고 독하게 맘을 다져먹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어찌지 못할 극한 상황속에 너구리같은 변영감이 뛰어들었다. 얼렁뚱땅 풍치고 초치는 즉흥 협상이 변영감 농간에 의해 이루

이졌다.

즉, 주민들 「공무집행 방해건」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해줄테니, 즉각 「경계표주」설치작업에 더이상 짐이 돼주지 말것과 아울러 군당국에서도 「이의신청서」에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겠다는 그럴듯한 내용이었다.

그들의 속셈을 전혀 알까닭이 없는 우직한 술꾼사람들은, 모든 걸 내맡길까만 생각 해 강경일변도에서 일보후퇴를 했고, 황영감도 마지못해 땅바닥에서 일어서며 옷에 흠먼지를 툭툭 털었다.

「화전금지」라고 노란바탕에 빨간 글씨로 써 갇힌 「경계표주」가 “땅-땅” 소릴내며 일정선 위에 박혀졌다.

그소린, 둘러선 술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갈갈이 찢으며 바로 자신들 가슴속을 향해 못질을 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술꾼 구석구석에 고래힘줄 처럼 끈질기게 발부리 내렸든 자신들의 뿌리가, 한치 두치바닥이 지는 경계표주 아래 한가닥 두가닥 거덜이 났다.

다 저넝매가 돼서야 김서기 일행은 술꾼 화전정리에 경계표주를 모두 다 설치 할 수가 있었다.

바람 난 서방 안부 오듯,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답은 꿩귀먹은 소식이고, 아닌밤중에 흥두깨같이 그들이 떠난지 닷새째 되는 날 황영감과 덕만이 앞으로는, 경찰서까지 자진출두 하라는 빨간 딱지가 맘 약한 술꾼사람들의 혼을 뜨게 했다.

“나쁜 자식들, 약속은 즈들이 해놓구서, 사람들을 잡아 들여……”

“그 너구리 변영감 그 작자한테 우리가 또 당한거여, 씨발놈, 드러워서” 믿노라 했던 황영감과 덕만이마저 노루목젤 넘어 경찰서로 가버리자 대가 약한 술꾼사람들은 갈피를 못잡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화전민들중 아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이주대상자 개발심사」가 불원간 진행될거라는 좃같은 소식이 초상집 전야같은 마을을 짓두들겨 댔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던 이웃들이 한집 두집, 인간같지도 않다며 손가락질 하던 번가네 집문턱을 기웃거리 댔다.

「큰-손 !」

확실히 변영감 그 작잔 큰 손이었다.

실제로 변영감이 손바닥 한번 뒤집어주기만 하면 그네들은 고향에서의 내물림을 쉽게 면할 수가 있었다. 내물림을 면할 최소 조건은 두가지였다.

첫째 화전밭고도 줄베기땅이 600평이상 있는자, 둘째로 화전 외에 달리 생계유지가 가능 하다고 뉘뉘한 유지들이 보증을 서 주기만하면, 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살 수 있었다.

까지 변영감이 는 한 번 꿈적하고 손 한 번 쥐었다 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다. 더군다나 리동단위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인 산림계 계장감투도 그가 차고 앉았으니, 쫓겨나고 남고는 그의 맘하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리고 나밭이고 내던지고 벌써 몇집이 변영감 상용 소작인으로 따리를 붙었다는 소문이 「짜-」하니 솔골에 퍼져 갔다.

선희도 몸이 달았다. 들고날고 한 분 뿐인 아버지래야 주변머리하고는 오래전에 이미 담을 쌓은지 오래고, 융통성이나 결길 같은건 눈 한 번 안돌리는 그런 위인이었다. 게다가 일전에 덕만이와 같이 경찰서에서 며칠을 있다 온 후로는 도통 말이란걸 잊어버리고, 애꿎은 핫술만 맨날 꺾어댔다.

믿거라 했던 약혼자 덕만이 마저도 일당백의 기백은 어디로 가고, 날개죽지가 축 늘어져 애꿎은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어떡하긴”

“땀집들은 안쫓겨날려구 야단들이예요.”

“쓸개 빠진 작자들 같으니라구……”

“아버지-이”

“난 안간다. 아니 못가 못가고 말구.

내 어떻게 터를 잡은 곳인데, 솔골을 떠, 네 에미없이 혼잣손에 이손이 갈퀴가 되도록 세빠지게 일귀 는 땅인데, 이 손을 보렴. 이게 어디 밭먹고 사는 사람 손 같으냐?……”

“알아요. 아버지, 그러나 고집만으로 세상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변영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두 어릴적 소꿉친군데 설마 몰라라 하시겠

어요?”

“안돼, 그것만은 도저히 못해, 비록 내 가진것 없이 이때껏 살아왔지만, 이적지 하늘 부끄러운 것은 안하고 살아 왔어.”

“.....”

“애 선희야, 니 애비맘 다 알제

차라리 아주 모르는 남이라면 소싯적 부터 손바닥 보듯 흰한테.....”

더이상 애길 안 들어봐도 선희는 변영감 애길 익히 알고 있다.

일제말, 일본인 주인 밑에서 일하며 일본놈 보다 더 조선인들을 괴롭힌 일이라던가, 해방후에는 하늘처럼 떠받들던 일본주인을 떡을 만들어 놓으며, 애국자인양 그집 재산을 맡아 먹은일, 난리 때는 두개의 가면을 번갈아 갈아쓰며 마을을 짓주무르던 일들을.....

혹시나 하며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이의신청서」가 도 화전정리 위원회에서 깨끗하게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마을에 정식으로 통보되자 이제껏 이웃 눈치만 슬슬 보던 마을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제살궁리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폈다.

이젠 더이상 믿을 건덕지라곤 없으나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변영감에게 따리를 붙였다. 하루아침에 우애종던 도타운 이웃들이 풍지박산이 돼 버렸다.

1차심사가 변영감을 중심으로한 산림계 감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줄베기 내땅 600평 이상이 있는자와 없는자, 화전외에 다른 생계수단으로 생활이 가능한자와 그렇지 못한자가 갈리어 졌다.

사실, 이주대상자 선정심사는 1차에서 거의 종을 치게 마련이었다. 2차면단위 심사와 3차 군단위 심사는 적정선만 판별할 뿐이었다.

그만큼 1차심사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황영감 외동딸 선희가 쥐도 새도 모르게 마을에서 종적을 감춘 것은 이주대상자 선정작업의 마감을 이틀 앞둔 초사흘날 밤이었다.

황영감이 굳게 입을 다물어 손금 보듯 확실한 내막을 알길이 없었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안홍택이 보고 들은 얘기 자투릴 이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내막이었다.

선희가 집을 나가기 며칠전부터 부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언쟁을 벌였었다. 그날밤 황영감이 마실을 간 사이 선희가 실성한 사람처럼 변영감네 집을 찾아갔다. 그날따라 마실을 일찍 다녀 온 황영감이 없어진 딸을 찾아 나섰다가, 꼬이는데가 있어서 양짓말 변영감네 집을 향하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선희를 발견하곤, 다짜고짜로 머리채 끄드러가지고 집에 와 복날 개 패듯 했다. 그길로 목넷을 거머 쥔 황영감은 번가움을 찾아 나섰으나 여우같은 그작잔 이미 어디론가 줄행랑을 논 뒤였고, 반쯤은 정신이 나간 선희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노루목재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하여튼 그날밤,

잠못든 술골사람들 대부분은 생전 처음, 시퍼런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노루목재 위에 가슴을 찢어내는 듯한 황영감의 울음소릴 들었고, 마음이 아려 거개가 잠을 설쳤었다.

이주대상자 선정작업은 별 탈없이 착착 진행 돼 갔다.

반은 미쳐서 집을 나간 선희 사건도 그런일 이후로 하루에도 몇번씩 정신이 오락가락 하게 된 황영감 일도 그게 뭐 좋은 일이겠느냐며 모두들 「쉬-쉬」하는 통에 발없는 소문은 얼마를 못가고 잠 재워 졌다.

대운동날 청군백군 갈라지듯 떠나는자와 남는자가 갈리어졌다.

김서기는 이주비를 도에 신청하라 일정선 위로 벨트조림을 하라 대단히 바쁜나날을 보냈다. 어쩌나 바빴던지 「쉬-」하구 육근 세번 두드릴 시간조차도 그에겐 없었다. 재도경을 막기위한 주민계도는 물론이지만, 곧 있을 화전정리 완료 확인감사 대비가 더 큰 문제였다.

화전정리지 필지 마다에는 코드번호가 쓰여진 붉은색 깃발이 세워졌고 술골 막바지엔 항공확인 감사에 대비한 대형 표식판도 시멘트 벽돌로 세워졌다.

「화전없는 푸른마을」
여덟글자 였다.

D데이(화전정리 완료 확인감사일)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김서기는 천둥에 개뿔듯 했다. 손이 열개라도 모자를 지경이었다.

거기다 과장이 다른 군에게 일등자릴 빼앗기지 않으려 득달을 처했다.

까짓, 장부상의 계수놀음이야 별문제가 아닌데 필히 현장확인을 받아야 하는 화전정리지 조림이 큰 문제였다.

나무 심을 땅은 엄청나고 시간은 없고 김서기는 미칠 노릇이었다.

인부들도 막판에 가서는 김서기의 의도를 헤아렸음인지 술골 막바지 조림시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나이롱조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산에 다 나무심는 시간을 벌기위해 밑동을 자르고 땅에다 대강 철저히 꽃아 놓는 거였다. 마침 갱신수종이 침엽수인 잣나무라 그렇게해도 한달정도는 무난 하리라

작업인부를 독려하던 김서기도 똥끝이 타던 때라 짐짓 모른채 했다.

그래도 천만다행한 일은 술골 똑똑한 친구 덕만이가 선회사건 이후 자진 해서 이중에정일보다 빨리 술골을 뜬 일이었다. 이제 덕만이가 없는 술골은 김서기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질 않았다.

경계표주를 설치한 때 독을 쓰며 육탄전을 벌였던 황소고집 황영감도 초점 잃은 두눈을 멀뚱거리며 「이주확인서」와 「재모경방지 각서」에 꼭 지장을 눌러 댔다.

비단 황영감 뿐이 아니었다.

술골 이주화전민들은 모두가 뿌리가 빠지고 냇이 빠져 빈껍데기들 만이 「꼭-꼭」지장을 찍곤 이주비를 타 갔다.

혼(魂)일랑은 말짱 화전밭에 빼놓고, 떠날 날짜를 헤어보고, 먹고 마시고, 이삿짐을 주물러댔다.

황영감은 찬바람이 「쓷-쓷」소릴내며 가슴한턱을 쥐어뜯는 허허로움에, 선불로 받은 이주비를 주머니에 찌르곤 밤낮없이 술만 꺾어댔다. 술 취했을때 모르겠는데, 웬수놈에 술만 깨면, 오래전 젊은 장돌뱅이를 따라 야밤도주를 났던 마누라와 「꺼이꺼이」목을 꺾던 선희얼굴이 황영감을 잡아 흔들었다.

술골 사람들은 마지막 고향을 떠나기 앞서서, 먼훗날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날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조상들 산소에 표를 하기에 바빴다.

새벽참 김서기가 산림과 차로 술골장터 거리에 도착 했을 때 벌써 이주대상자로 이곳을 뜨는 술골사람들은 새벽이슬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서는 이삿짐을 이고 진 채로 고무신가게 앞에서 웅성거려 대고 있었다.

김서기는 선불로 지급한 17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든 「이주비 지급통장」을 한사람 한사람씩 나누어 주면서 그들 손을 「꼬-옥」잡아 주었다.

새벽참이라 그런지 그들 손은 너무나 차갑기만 했다.

“안녕히들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들 사세요. 술골 화전밭들이 푸른 숲으로 변했을 때쯤 해서 한번 들리세요. 절대로 고향을 잊지 마세요. 영원토록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들 하세요.”

“수고 했어요. 잘 있어요. 김서기님”

그들은 가늘게 어깨가 흔들리며 그렇게 울고 있었다.

마지막 한순간만이라도 술골골짜기를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차창 밖으로 모강지를 길게 빼내 가지곤 멀어져가는 술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모롱까지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김서기 눈에서도 알 수 없는 눈방울이 그렇거려대고 있었다.

고도 백피트, 이백 피트, 삼백.....

구름 한점없는 하늘을 헬리콥터는 김서기의 만가지 바람을 싣고, 그의 피와 땀으로 다듬어진 작은 왕국으로 힘차게 날아 올랐다.

손에 든 화전관리지도 코드넘버를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도산람국장의 확인검사는 물샐 틈 없이 진행 돼 갔다.

“다른 군은 아직도 화전지 조립에 정신이 없는데, 이곳은 목표 보다는 3개월을 앞당겨 100% 사업완료라,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물심양면 힘써 준 주민들과 실무자 김서기 덕택이요. 저-야 뭐.....”

“오늘 확인감사 끝나는대로 중앙에다 놀라운 사업성과를 보고 올리겠소 아마 특별배려가 있을 거예요. 기대들 해 봐요.”

김서기는 금방이라도 손아귀에 잡혀 질것 같은 바람을 맘속으로 조용히 음미해 봤다. 미치고 팔딱 뛰어도 시원찮은 국장님의 칭찬이 그를 무아경으로 몰고 갔다.

“거-이번 사업에 가장 애를 먹었다는 술골이라든가, 그곳은 아직 멀었소?”

“예 한 20마일만 가면 나올겁니다.”

“아- 그래요.”

“그곳이 저희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전정리지 입니다. 100% 완벽하게 조립을 끝내 놓고 매화봉 정상에는 대형 표식판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군요.”

“국장님 우스개 소리로 김서기 저사람 화전정리 까탈에 어찌나 바빴던지 안사람과 밤일까지도 정리를해 글썽 좋던 물건이 녹이 났다지 뭐니까”

“뭘! 그곳에 녹이 허허허 오늘밤엔 열일 제치고 그곳에 기름 좀쳐야 겠어요.”

“하-하하”

“참 이과장 거 산불 무서운 거더군요. 실화건 방화건 한건 났다하면, 응매는 재주 없습니다. 산불엔요……”

“그러므로, 염라대왕이죠, 저희들한테는”

산불

정말 그건 무서운 녀석임에 틀림없었다. 자라보고 놀란토끼 슬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서기는 산불얘기 한마디에 그만 등허리가 축축히 젖어왔다.

「코드 No-2, 3, 5, 7,」

김서기는 이적지 숨죽여온 긴장감이 「팽」소릴 내며 등가죽을 내리 달렸다.

그곳「코드넘버 2-3-5-7」지역은 다른군과의 치열한 시간 싸움에 미쳐 손길이 모자라 대강 철저히 나이롱 조립을 해 는 곳이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야 그것이 뺑세 날리 만무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김서기는 진땀이 바작바작 나며 뚱뚱이 뒹다.

지도에서 보면 한개의 점에 불과한 그곳이 김서기에게겐 세상 어떤곳보다 고 길고 넓게만 느껴졌다.

과장은 이제 모든게 순조로이 다 끝났다는듯이, 화전관리도를 덮고 며칠 후면 그에게 다가 올 신바람나는 일들은 두 눈을 감고 느긋하게 되새김질 하고 있었다.

비행속도로 봐서 앞으로 2~3분, 그러면 확인검사는 완료가 되는 것이었다.

“여봐! 잠깐 고도 좀 낮춰 봐.

그리고 쌍안경 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이상이라도……”

“저기 저 밑을 봐 코드 No. 2, 3, 5, 7 같은 연기 같은게 보여”

“엣!! 여-연기요?”

이 과정은 금새 놀란도끼마냥 얼굴이 흙빛이 됐다.

헬리콥터가 휘파람소릴 내지르며 나뭇가지에 스칠듯이, 연기가 피어 오르는 곳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아니-!! 저 미친 영감탱이가……”

황영감이었다.

한달전 분명히 뱃창잘 잡아 뜯는 메물푸저리 타령을 노루목재 걸어놓고 그는 술골을 떠났었다.

“저 미친 작자가 끝내……”

황영감은 닭모강지 비틀듯 뿌리도 없는 나이롱조림 전나무들을, 땅에서 뽑아 시뻘겍게 타고르고 있는 불길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던져 넣고 있었다.

술골 언덕마지에 묻어 있던 한(恨)의 울들을 한 거품, 두 거품 불길 속으로 던져 넣는 황영감의 입가에는 야릇한 웃음이 비절 거러 대고 있었다.

鄭才永(小說家, 현 횡성 서원(암곡)국교 교사)

- 1982년 신춘문예 소설 당선(江原日報)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횡성 문화원 이사

우리 소

서원 (압곡) 국민학교 3학년

심 현 기

① 우리소 팔려 가던 날

비가 오고 있었다. 소차가 우리집 앞에 있었다. 소를 팔고 있었다. 엄마는 서운하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다. 아줌마들도 엄마가 성하게 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이 핑도는 것을 보고 나도 하늘을 봤다. 조금 뒤 소는 떠나갔다. 엄마는 안보이는 곳이 나타나자 소가 있던 자리에 가서 더 우시는 것이었다. 정이 들었던 소인지 소도 떠나기 전에 자꾸만 우리 가족들을 쳐다 보고 있었다. 소는 금새 죽는다고 했다. 나도 소가 불쌍했다.

(4월 30일 일기)

② 팔려 갔던 소

저번에 팔았던 소가 다시 우리가족 곁으로 왔다.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소장사들이 비싸다고 안사간다고 해서 도로 가져 오라고 하셨다. 소는 많이 헐숙해졌다. 먹이도 제대로 안주고 차에서 시달려서 다리와 몸이 많이 다쳐 있었다.

아빠는 소에게 약을 발라 주시고 엄마는 눈물을 감추시면서 소를 쓰다듬어 주시고 소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의 보답에 가만히 쳐다 보고 있었다.

엄마와 소는 너무 다정해 보이고, 다시 우리 가족품으로 와서 다같이 기뻐했다. "소야 아프지 말고 영원히 떠나가지 말아라".

(5월 6일 일기)

③ 애기 소가 태어 나던 날

아빠가 착유를 하시는데 엄마는 안보였다. 큰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해서
깜깜한 곳에 혼자 계셨다. 엄마는 새끼소 다리를 잡아 당기어 황송아지
를 낳다. 엄마는 아빠를 부르셨다. 착유를 하시다 깜짝 놀래시며

“어떻게 당신 혼자서 새끼를 내키었소”

하시며 놀래셨다.

혼자 힘이드셔서 온통 땀범벅이 되신 엄마는 “나도 당신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무척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하셨다. 어미소도 건강했다. 아빠는 업
마를 대견해 하시면서

“오늘 밤은 당신에게 맥주 한잔 사리다”

하시면서 허허 웃으셨다.

우리 소

성북국민학교 6학년 1반
이 은 경

우리 집에는 검정이 누렁이라는 소 2마리가 외양간에 있습니다.
검정이는 산지 얼마안돼서 짧지만 누렁이는 늙은 할아버지 소입니다.
어느날 이었습니다.
동생 혜진이와 누렁이 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아빠가 도살장 김씨 아저씨
를 데리고 오셔서 누렁이를 끌고 가셨습니다.
동생 혜진이는 엉엉울며 바닥에 털석 주저 앉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어제 전화로
“누렁이를 팔아야겠소”
하시며 도살장의 김씨 아저씨께 전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놀랐었습니다.
그날밤 잠도 못자고 울면서 하느님께 누렁이를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
다.
하지만 오늘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송아지 1마리를 샀는데 혜진이는 그 송아지를 멍청이 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고 괴롭혔습니다.
어느날 동생이 새삼스레
“언니 누렁이는 살아 있을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이 가여워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말을 하자 동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멍청이 소에게 혜진이가 먹이를 갖다주며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혜진아, 왜 멍청이에게 먹이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예뻐하니?”
내가 묻자 혜진이는
“예뻐 한것 아니야”.
동생이 뽀로통 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괜찮아, 말해봐”.
그러자 동생 혜진이가 뽀로통 하게 담은 입술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잖아 누렁이는 아주 행복하게 잘살고 있으니 걱정 하지 말
라고……”.
“그러니까 멍청이에게 못해줄 필요 없잖아”
“아직도 멍청이야”
내가 소리치자
“아참, 그럼 포동이로 할래, 포동이 예쁘지 언니.”
동생 혜진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동생 혜진이가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후 동생 혜진이 기억 속에 누렁
이는 잊혀지고 포동이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포동이는 혜진이가 가
장 좋아하는 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포동이가 더 좋습니다.
이제 부터 포동이에게 잘해주고 더 예뻐해야 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우리 소 소니

둔내국교 6학년 2반
최 정 민

음매~~~

음매~~~

리듬에 맞추어 소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우리집은 소를 기른다.
나는 우리 소에게 예쁜이름을 지어주었다 소니 이다. 소니는 새끼 날때
가 다되었다.

나는 것도 모르고, 소니야!

너는 왜 이렇게 살만찌니? 그러니까 이상 하잖아.

소니 너도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야지 안그러니?

소니는 리듬에 맞추어 음매 음매 하고 울기만 하였다.

소니는 새끼를 낳았다. 아주 귀여운 송아지 이다. 아직은 뛰지를 못하
다. 나는 송아지의 이름을 지었다. 애지라고 말이다.

소니는 엄마 애지는 딸 꼭 엄마와 나사이 같았다.

소니는 요즘 밥을 잘 안먹는다.

그래서 나까지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었다. 내가 하도 밥을 먹으라고 해
서 인지 요즘에는 소니가 밥을 아주 잘먹는다.

그래서 나도 잘 먹는다.

그래서인지 나도 기분이 한동안 좋았다. 그런데, 그좋은 친구가 팔리게
되었다. 소니가 말이다.

그순간...

번개불이 번쩍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니 이게 웬일인가?

나는 집밖으로 뛰어 나갔다.

나는 우리소를 생각하며 시를 지어보았다.

나의 친구 소니
귀여운 친구 소니

나의 친구 소니
예쁜 친구 소니

나에게 있어줘 소니
영원히 있어줘 소니

나는 눈물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소나기가 오는 것 같
았다, 갑자기 음매~~~, 음매~~~

하고, 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으아~~~, 으아~~~

하고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울어도 울어도 좋은 수가 생기지 않았다.

나는 남몰래 기도를 하였다.

하느님 제발 우리 소니가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소니와 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 아 멘 —

나는 집으로 들어가 생각 하였다.

어떻게 어미소와 아기소를 떼어 놓을 수 있을까?

만약 엄마와 소니를 떼어 놓았다면 나는 고아가 될것이다.

지금 소니와 애지는 그 처지에 속해있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소를 안파시겠
다고 결정 내리셨다, 나는 그순간 하늘이 붓고 땅이 붓는 것 같이 기뻐다.

소니도 그 소리를 들었나 본지 음매~~~ 음매~~~

하고 말은 웃음을 흘리는 것 같았다.

소니야!

나는 네가 무척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 하자.

나의 보금자리

청일중학교 1학년
정은선

“언니, 저기 저기 저기에 간다.”

“악”

또, 우리집에선 쥐 소동이다.

오늘도 쥐를 우리집에서 없애버리려고 한참 골려 주는데, 도리어 언니가 쥐에게 꿀탕을 먹었으니, 오늘도 실패다.

“으유,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니 때문에 자꾸 놓치잖아. 이젠 그만 두자 그만 뒤.”

나는 통명스런 목소리로 소리를 썩 지르며, 언니에게 구박을 주었다. 언니는 더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으이구, 지는 어때서 쥐를 잡는답시고, 쥐만 자기 앞에 지나가면 난리를 치는 게 까불어. 야! 그리고 사실 뭐 쥐를 우리가 키워서 이 고생이나 이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려고 있는 거 아냐.”

사실 그랬다. 몇년전 수리를 했지만, 그래도 쥐는 이사갈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언니는 아주 불만스러운 말투로

“어휴 큰집이나 가야겠다. 큰집엔 쥐가 별로 없으니까 난 간다. 니가 오늘은 잘 해결해서 잘때 좀 천장에서 소리 좀 만나게 해라 잉? 굿바이.”

하며, 나가 버렸다.

나는 힘이 빠져서

“애라 모르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나는 속으로

‘으휴, 이 여장부 정은선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며,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녁이 되자, 난 이때라 생각하고는 엄마한테
“엄마, 쥐 때문에 못 자겠어. 자꾸 바스락 거리잖아.”
라고는 하소연 하듯이 말씀드렸다.
엄마도
“얼른 집을 지어야겠는데…….”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때,
“삐르르르, 삐르르르.”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기분이 좋은 편이어서 얼른 가서 받았다. 수화기에서는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선이나? 너 큰집에서 잘거야 안잘거야?”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나는 참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건 왜 묻냐? 그리고, 큰집에서 쓸데없이 왜 자냐?”
라고, 물으니 언니는
“뭐? 쓸데없이 큰아빠 큰엄마가 안계셔서 자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거냐?”
그래, 자기 싫으면 관둬라. 내가 너한테 말 꺼낸 게 잘못이고 돈만 낭비했잖아. 전화비 많이 나가.”
하며, 쌀쌀맞은 목소리로 그냥 끊어 버렸다. 쌀쌀맞은 목소리라 기분은 나빴지만, 언니 말에 귀가 쫑긋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큰집으로 뛰어갔다. 언니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착 할 시간 5초전 4, 3,…….”
“아이고, 아이구 힘들어.”
다급히 뛰어 들어온 날 보더니 언니는

“야, 빠르다 빨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며, 나를 한대 툭 치더니 들어갔다.
나는 숨을 가라앉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고개가 아프도록 질리게 본 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벼룩이 무는 것 같이 딱잡고 가려워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떻게 거의 거의 하룻밤을 넘기고 일어나 보니 웬일인가?
온몸이 모기 물린 것처럼 빨갱게 불어나 있었다.
나는 울상을 하며, 곤장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난리를 쳤다.
“야, 미치겠네 가려워 미치겠다. 진짜로 아 가려워.”
라며, 발버등을 쳤다.
역시, 언니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리하여, 고생스럽게 하루를 넘긴 후, 마음이 진정되고 물린 것이 다 낫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일기장에 이 하룻동안의 일을 하나 하나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끝맺음을 이렇게 하였다.
'과연 우리집이 초라하고 살기 싫을 정도로 나쁘고 있어서는 안될 곳일까? 과연 양육으로만 된 집이 훌륭하고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일까?
그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를 앞에 두고……
알지도 못하는 서양식 집만을 강조했던 것이 나 아닌가? 과연 그런 내 옛날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맞아, 그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건 나의 옛 판단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아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건 하잘것 없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어쩌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내가 일기를 끝맺는 동안, 밤하늘에 맑게 빛나던 별 하나가 이름 모를 저편 산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품 앓 이

공근중학교 3학년
오 영 숙

창문을 통해 그 넓은 논 위로 새파랗게 자라 올라오고 있는 벼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우리집 모 심던 날이 생각난다.

농촌이라 그런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의 일손 부족인 만큼 우리 집에서도 해마다 손이 모자라 부모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그날 아침 엄마께서는 날 깨우셨다.

보통 때 같으면 '잠깐만요 엄마, 좀만 더 잘게요.'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쓸텐데 오늘만은 내가 엄마를 이해 해 드리고 싶었고 참이나 점심 준비를 혼자 하셔야 하는 엄마가 조금은 안스러워 이불을 차고 일어났다.

잠이 덜깨어 휘청이다가 밖에 나오니 새벽아침의 밝고 깨끗한 그리고 시원한 공기들이 어느 새 나의 흐렸던 정신을 아주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께서 심부름을 시키신 덕에 가게집에 가서 오늘 어른들께서 모를 심으며 드실 마실 것과 새참에 국수 등을 사오느라 아침운동은 잘 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그 사이 벌써 동네분들이 몇 분 와 계셨다.

"안녕하세요?"

양쪽 손에 잔뜩 들고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한 아주머니께서 얼른 받아 주시며

"가게에 갔다 오니? 아이구, 뭘 이렇게 많이 사오니?"

놀라시듯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들 눈으로 나가셨다.

'다른 집들은 거의 이앙기로 모를 심는데 왜 우린 손으로 모를 심는 것일까?' 불평스러운 생각을 하며 곧 새참을 들고 눈으로 나갔다.

내가 눈에 갔을 때 놀란 건 일꾼이 생각보다 꽤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 많아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았다. 그제야 엄마께서 왜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사오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함과 동시에 이상한게 하나 있었다. 모두들 바쁜 터라 다른 집 일을 잘못 다니실텐데 오늘 비교적 많으신 분들이 우리 집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곧 난 집에 돌아와 점심 준비에 한창이신 엄마께

“엄마!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언젠 사람 구하기 힘들다시며 그렇게 애를 쓰시더니, 웬일이예요?”

하고 말씀드리자 엄마께서는 품앗이로 일꾼을 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품앗이요?”

내가 의아해 하자 엄마께서는 덧붙이셨다.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 너도 나도 걱정하고 일손 구하느라 힘들 텐데 품앗이를 하면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서로에게 필요한 거란다.”

학교에서도 품앗이에 대해 배웠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럼, 품앗이를 하는 것이 품삯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뭐예요?”

엄마께서는 두부찌개의 간을 맞추시며

“우선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국자를 싱크대 위에 살며시 놓으시고 날 보시며 계속 말을 이으셨다.

“내가 다른 집 일을 해 주잖니? 품앗이로 해줬다면 품삯을 받지 않는 대신 내가 일손이 부족할 때 언제라도 일손을 구할 수가 있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 일을 해 주지? 오늘처럼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삯대신 그 사람들이 일손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이지. 노동으로 빚을 갚는다고나 할까?”

오늘 오신 분들도 무언중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참! 북어조림을 해야 하는데…… 너랑 노닥거리다가 그만 깜빡 했잖아. 얼른 가서 북어 가져와.”

난 재빨리 북어를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쉽게 일손을 구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잠시 후 일꾼들께서 들어오셨다.

일을 해서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결 밝은 모습으로 점심을 드셨다.

반 농담, 반 진담의 수다도 섞으시면서 말이다.

그분들의 일손 걱정은 품앗이로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밖으로 나왔다. 요즘처럼 일손 구하기 힘들고 돈이 메마르는 시기에 동네분들끼리 상부상조해서 서로 서로를 도와준다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농촌의 자치규약인 품앗이를 계속 계승시키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해는 서슴없이 올라와 하늘의 정 중앙에 자리잡았다.

농촌의 바쁜 하루는 또 이렇게 자꾸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나의 꿈

우천국민학교 6학년 1반
박 은 진

나의 꿈이 담겨진 일기장
펼쳐 놓으면

하늘과 바다가 그려지고,
산과 강이 합창하고 있는곳.
덮으면 아련한 추억이 묻어 나올듯……
소중한 나의 비밀 친구여.

시간을 수 놓은 일기장
펼쳐 놓으면 감춰놓은 옛 이야기 주머니양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꽃 열리고
덮으면 다시 보고 싶은 친구 처럼
사랑스런 나의벗이여.



일 기 장

성북국민학교 6학년 2반
김 성 범

일기장 속엔
내 어린시절
추억이 담겨있다.
아카시아 냄새와 더불어
푸른 동산을 함께 뛰놀던
친구도 있고

티격 태격
운동장을 뒹구르며
다투던
친구도 있고

일기장속엔
나의 미래가
그려져 있다.

의사 선생님도 되어 있고
하늘을 날으는 비행사도 되고
멋있는 아빠도 되어 있고

이곳 저곳
기억을 다듬어 보니
어느덧 나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옛날을 생각하면…….

일 기 장

성북국민학교 6학년 2반

김 현 미

빛바랜 일기장을
한권 두권 모아서

다쓰고난 일기장을
한권 두권 모아서

조그마한 상자에
소복히 모아두면

상자는
작은 추억의 동산

동산에 모이는
추억의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아름답고 멋있는

그것은 바로
내 일기장 속
추억의 색

그리운 통일

창립국민학교 5학년 1반
최 화 성

새들은 새들은
참 좋을 거야
이산가족 슬픔이
없으니까

바람은 바람은
참 좋을 거야
남북한 인제나
왕래하니까

구름은 구름은
참 좋을 거야
구름끼인 휴전선
없으니까

새들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나도 마음대로 다녀왔으면

밤의 길

공근중학교 3학년

윤 신 영

오늘
또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차창 밖으로
습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어둠을 바라보다가

나 또한
어둠 속에
둥그마니 밀려나와
집을 향해 걷는다.

오늘도
작은 꿈으로
씩이 튼 하루
빈 가슴에
무엇인가
가득 채우려고
설레었던 시간들

즐거움과 우울함으로
채색되어
책갈피마다 꽃혀 있는
내 하루를
다시 들춰 보며

지금 또
하루를 마치고
밤길 걸어
돌아가는 시간

저 멀리
날 기다리는
아빠의 빨간
담뱃불이 보이면

조금씩
밀려오는
하루의 향기에
나는 젖어든다.



밤 길

대동여중 3학년 3반
최정화

어두운 밤하늘에
마음을 맞추듯
내 마음도 차츰차츰 어두워 간다

어디에선가
불쑥
나올 것 같은 어둠의 손

이마엔 송글 송글
땀이 맺히고
어느새 내 손은
꼬옥 주먹을 쥐었다.

가로등 밑에서
쳐다본 하늘
비록 달은 구름뒤로 숨었어도
어슴프레 별들은 하나, 둘 나오고...

바람결엔듯 희미한
종소리에
깨인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 모습에
다시 내 마음은 깨이고
따뜻한 마음과길을 걸으며
또 다시 쳐다본 하늘

구름은 어느새 눈을 가리고
새하얀 달빛이
머리 위에 부서진다.



希(꿈)

횡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장 지 혜

흰 날개짓 하는 손〔客〕
당신이
저 하늘 밑
내 살던 향기 가득한
꽃밭에 가시거던
내게 하나만 물어다 주오.

당신의 검은 날개 끝에
포근히 싸서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내 이를 두 손에 받아,
내 발에 심고
옛 동무 느티 꺾부리에 매달린
구슬을 따다
듬뿍 마시우고 싶소이다.

어둠이 창가에 스며들고
나 홀로 있을 때에
그 향내와 속삭임에 취하여
살포시 잠이 들고 싶소이다.

그러다가 또, 날이 새면
내 놀던 옛 꽃밭에
다시
눕고 싶소이다.

일요일 오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안 선 희

은은히 창호지 사이로 나리는
한 줄기 햇살이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그대로 평화이다.
보일듯 잠힐듯 그러나
느낄 수도 없는
희미한 아침 내음에
내가 아는 시간은 나를 찾아든다.

긴 날의 외로움을 깨우고
가벼운 걸음을 몸에 안은 채
햇살은
어느새 내 머리 위에 머물고
실바람을 타고 흐르는 커튼 자락이
여유를 주며
여름날 뜨거운 느낌처럼
시간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일요일 오후처럼

임 직 원 명 부

| 직 책 | 성 명 | 직 장 및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
| 원 장 | 윤 재택 | 황성읍 읍하리 115-1 | 43 - 2121 | |
| 부 원 장 | 권 용환 | 황성읍 읍상1리 359-2 | 43 - 4396 | |
| 이 사 | 조 경택 | 황성읍 읍상리 274 | 43 - 2742 | |
| 이 사 | 이 병현 | 황성읍 입석리 188 | 43 - 2874 | |
| 이 사 | 유 영길 | 황성읍 읍하리 112 | 43 - 2302 | |
| 이 사 | 정 재영 | 황성읍 북천리 영진 아파트 201호 | 43 - 3326 | |
| 감 사 | 도 회 관 | 황성읍 읍상리 276-3 | 43 - 2964 | |
| 감 사 | 진 기 범 | 황성읍 읍상리 278-7 | 43 - 2687 | |
| 사 무 국 장 | 도 광 태 | 황성읍 읍하리 191-1 | 43 - 2271 | |

회 원 명 부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전화번호 | 비고 |
|-----|-----|-----------------------|------|---------|-------|
| 원 장 | 윤재택 | 횡성읍 읍하리 94 | 상 업 | 43-2121 | |
| 부원장 | 권용환 | 횡성읍 읍상 1리 359 | 교 사 | 43-4396 | |
| 이 사 | 조경택 | 횡성읍 읍상 3리 | 상 업 | 43-2742 | |
| " | 이병현 | 횡성읍 입석리 188 | 교 사 | 43-2874 | |
| " | 정재영 | 횡성읍 동원아파트 507호 | 교 사 | 43-3326 | |
| " | 유영길 | 횡성읍 읍하 1리 115-5 | 상 업 | 43-4192 | |
| 감 사 | 도희관 | 횡성읍 읍상리 276 | 상 업 | 43-2376 | |
| " | 진기범 | 횡성읍 읍상리 280-5 | 상 업 | 43-2687 | |
| 회 원 | 한중희 | 횡성읍 읍하 1리 80-2 | 의 사 | 43-2579 | 전문회원장 |
| " | 김정기 | 횡성읍 마산리 326 | 사무원 | 43-4360 | 전부원장 |
| " | 이관술 | 횡성읍 읍하리 92-1 | 사무원 | 43-3344 | |
| " | 홍재욱 | 횡성읍 읍상리 277 | 수의사 | 43-2246 | |
| " | 이종성 | 공근면 학담리 143-2 | 농 업 | 42-3225 | |
| " | 김정웅 | 횡성읍 읍상리 313 | 약 사 | 43-2707 | |
| " | 이상천 | 횡성읍 읍하리 | 숙박업 | 43-2607 | |
| " | 박충원 | 횡성읍 읍상리 | 상 업 | 43-3221 | |
| " | 박순갑 | 둔내면 자포리 409 | 약 사 | 42-1024 | |
| " | 김상원 | 횡성읍 읍상리 | 상 업 | 43-2796 | |
| " | 김명수 | 횡성읍 읍상리 | 상 업 | 43-2549 | |
| " | 정두영 | 횡성읍 읍하리 366 | 인쇄업 | 43-2404 | |
| " | 함소훈 | 횡성읍 읍하리 93 | 한약업자 | 43-2636 | |
| " | 한창일 | 원주 단구동 단구 APT 104-208 | | 44-6890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전화번호 | 비고 |
|-----|-------|----------------------|-----|---------|-------|
| 회 원 | 정 병 용 | 횡성읍 읍상리 284 | 요식업 | 43-2335 | |
| " | 변 규 성 | 횡성읍 읍하리 102-6 | 운수업 | 43-2450 | |
| " | 한 상 근 | 횡성읍 읍상리 288-11 | 양조업 | 43-2720 | |
| " | 전 인 환 | 횡성읍 조곡리 433 | 사무원 | 43-4813 | |
| " | 윤 춘 식 | 횡성읍 읍상리 333 | 공무원 | 43-3349 | |
| " | 고 락 흥 | 횡성읍 교항리 61-1 | 공무원 | 43-2855 | |
| " | 김 상 겸 | 횡성읍 마산리 451 | 공무원 | 43-3514 | |
| " | 송 인 호 | 횡성읍 읍상리 294 | 보건업 | 43-3015 | 도의원 |
| " | 유 경 희 | 횡성읍 입석리 173 | 공무원 | 43-2390 | |
| " | 이 일 영 | 횡성읍 읍상리 69 | 양복점 | 43-2669 | 군의회의원 |
| " | 정 병 익 | 횡성읍 입석리 150-6 | 사무원 | 43-4813 | |
| " | 민 영 석 | 횡성읍 읍하리 363 | 상 업 | 43-2664 | |
| " | 이 철 구 | 횡성읍 읍하리 543-13 | 토건업 | 43-2358 | |
| " | 정 계 항 | 횡성읍 읍상리 528 | 토건업 | 43-2203 | 도의원 |
| " | 한 상 동 | 횡성읍 읍상리 276-15 | 상 업 | 43-2505 | |
| " | 정 호 일 | 횡성읍 읍상리 36-12 | 농 업 | 43-2275 | |
| " | 최 사 승 | 횡성읍 읍하 1리 94-10 | 보건업 | 43-2212 | |
| " | 진 기 원 | 횡성읍 입석리 19 | 농 업 | 43-2821 | |
| " | 엄 기 호 | 횡성읍 곡교리 139 | 협 장 | 43-0004 | |
| " | 윤 재 기 | 횡성읍 읍하 1리 110 | 상 업 | 43-2233 | |
| " | 한 상 인 | 횡성읍 북천리 태우 APT 1-501 | | 43-2363 | |
| " | 민 인 기 | 횡성읍 목계리 두산농산 | 회사원 | 43-3396 | |
| " | 김 의 자 | 횡성읍 입석리 188-2 | 상업 | 43-2304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전화번호 | 비고 |
|-----|-------|-------------------|--------|---------|----|
| 회 원 | 조 원 열 | 횡성읍 추동리 1반 | 전화국 | 43-5088 | |
| " | 박 경 용 | 횡성읍 읍하 1리 302-1 | 상 업 | 43-2332 | |
| " | 원 동 용 | 횡성읍 읍상리 동원주택 301호 | 공무원 | 43-1188 | |
| " | 김 승 현 | 횡성읍 읍하3리 251-54 | 상 업 | 43-2773 | |
| " | 박 상 선 | 횡성읍 읍하리 2반 368 | 상인마을금고 | 43-3059 | |
| " | 한 장 희 | 횡성읍 읍하 3리 251 | 공무원 | 43-0910 | |
| " | 석 인 국 | 횡성읍 읍하 3리 251-51 | 회사원 | 43-3735 | |
| " | 홍 승 익 | 우천면 정금리 | 농 업 | 42-2671 | |
| " | 양 중 하 | 우천면 정금리 | 농 업 | 42-2602 | |
| " | 이 중 호 | 우천면 정금리 | 농 업 | 42-2647 | |
| " | 이 철 우 | 우천면 정금리 507 | 농 업 | 42-2665 | |
| " | 김 갑 봉 | 횡성읍 읍상 5리 1반 130 | 교육공무원 | 42-6084 | |
| " | 탁 락 구 | 횡성읍 교항리 58 | 전교장 | 43-2573 | |
| " | 최 성 칩 | 서원면 압곡리 160 | 전교장 | 42-8188 | |
| " | 김 운 수 | 횡성읍 상5리 102-2 | 공무원 | 40-2260 | |
| " | 이 각 구 | 횡성읍 목계리 221 | " | 40-2208 | |
| " | 임 태 규 | 횡성읍 읍상3리 38-11 | " | 40-2223 | |
| " | 고 석 용 | 횡성읍 읍하2리 300 | " | 40-2505 | |

1992년도 문화사업 실적

1. 제1회 횡성군민 연날리기 대회
일 시 : 1992. 2. 18
장 소 : 횡성전천교 제방 뚝
참석인원 : 121명
2. 미술전시회
일 시 : 1992. 2. 28
장 소 : 횡성문화관
참석인원 : 200명
3. 사진전시회
일 시 : 1992. 5. 22~26
장 소 : 횡성문화관
참석인원 : 200명
4. 문화단체장 향토사 강좌 및 친목대회
일 시 : 1992. 8. 22
장 소 : 횡성읍 복천리 강변
참석인원 : 80명
5. 태풍루 복원 경축 경로 잔치
일 시 : 1992. 9. 17
장 소 : 3.1공원
참석인원 : 425명
 - 태풍루 복원 작품 공모시상
일 시 : 1992. 9. 17
시상인원 : 19명
 - 태풍루 복원 경축 미술작품공모시상
일 시 : 1992. 9. 17
시상인원 : 24명

6. 제1회 태풍예술제
 일 시 : 1992. 11. 7
 장 소 : 문화관
 참석인원 : 400명
- 태풍예술제 미술전시회
 일 시 : 1992. 11. 15~17
 장 소 : 문화관
 참관인원 : 250명
 - 태풍예술제 사진 및 서예 전시회
 일 시 : 1992. 11. 7~9
 장 소 : 문화관
 참관인원 : 200명
 - 태풍예술제 노래자랑
 일 시 : 1992. 11. 7
 장 소 : 문화관 대극장
 참관인원 : 400명
 출연자 : 15명
7. 발간사업
 일 시 : 1992. 9. 27
 향토사료집 발간 700부
8. 향토문예지 발간
 어사매 9호 1992. 12. 31 1,500부

편집후기

찬란히 빛나는 꽃잎이 토해낸
물방울처럼 아름다운 손길의
진주가 알알이 영근 제9호 어사매뒀을
가슴설레임으로 꾸밈니다.

동심의 고향 내음과
시냇물 소리 타향까지 여울져
우러르게 하는 어사매………

또 제10호를 생각하면서………

편집위원 : 권용환 · 정재영
이병헌 · 도광태

